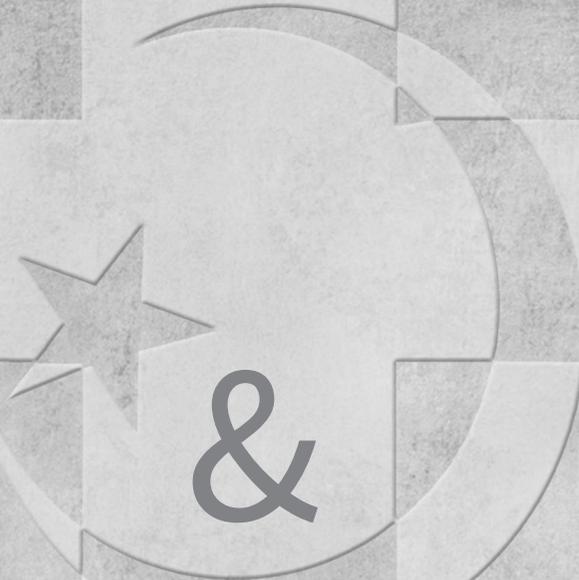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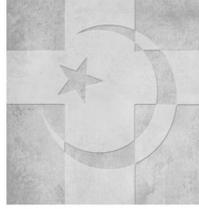


크레센트

이슬람 이해하기

압둘 하디

목차



| | | |
|-----------------------------------|-------|------|
| 소개 . | | 4 |
| 제1장 - 무슬림 복음화: 과제의 본질 ... 1 | | |
| 2장 - 무슬림과 소통하는 방법..... 17 | | |
| 3장 - 무함마드 | | . 33 |
| 제4장 이슬람의 확장. | | . 65 |
| 5장 - 무슬림이 믿는 것 | | . 75 |
| 제6장 - 무슬림의 의무. | | . 97 |
| 제7장 - 이슬람 종파 | | 109 |
| 제8장 - 이슬람에서 예수의 우월성 | | 121 |
| 제9장 - 이슬람과 그리스도의 신성..... 145 | | |
| 제10장 -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방법 .160 | | |
| 제11장 - 무슬림들이 십자가형을 보는 방식..... 186 | | |
| 제12장 - 십자가 처형의 증거..... 204 | | |
| 13장 - 예수님이 왜 죽어야 했는가. | | 222 |
| 제14장 -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를 믿는 이유 .240 | | |
| 제15장 - 무슬림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다..... 252 | | |
| 부록 A - 이슬람 역사의 중요한 날짜 | | 268 |
| 부록 B - 용어집..... | | 270 |
| 부록 C - 이슬람 주석서 및 하디스 서적 .276 | | |
| 부록 D - 참고문헌 | | 278 |

소개

1840년에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지난 12세기 동안 이슬람은 인류 전체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종교이자 삶의 지침이 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슬람은 진심으로 믿는 종교였습니다. 이 아랍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믿고 그에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초창기부터 어떤 기독교인도, 아니 어쩌면 근대의 영국 청교도들만이 무슬림처럼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무슬림은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믿고, 그 신앙으로 시간을, 그리고 영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이슬람의 신봉자들은 어느 쪽에서도 약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신앙, 무슬림 신앙이 너무나 광활처럼 보이며, 많은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는 데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무슬림의 종이 되도록 부르셨을 때, 그분의 격려를 컸고 그분의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들의 얼굴 앞에서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놀라지 않게 하리라." (예레미야 1:8, 17) 저는 여러 번 "주님, 이슬람의 장벽은 언제 무너질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대답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7, 8)

십자가와 초승달

오늘 저는 이슬람의 벽에 금이 가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처럼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니 “사람의 손만 한 구름”이 보입니다. (열왕기상 18:44) 모든 그리스도인이 약속의 땅 경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환상을 공유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30)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도전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에 대해 궁금해하는 중요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합니다.

이슬람 신앙을 그토록 열렬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슬림들은 왜 기독교에 반대할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자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요?

-압둘 하디

i 1840년 5월 8일 금요일에 "영웅과 영웅 숭배"에 관해 한 강연에서 발췌. 『토마스 칼라일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 (뉴욕: The Book League of America, A Blue Ribbon Book, 1942), 205쪽 참조.

1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다: 작업의 특성 The Nature of the Task

1985년 1월 1일, 리비아 대통령 무아마르 알 카다피 대령은 소위 기독교 국가들의 수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입니다.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을 보는 방식에 대해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그리고 예수의 탄생 198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그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무함마드(평화가 그에게 있기를)에게 계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낭송한 사람은 무함마드였습니다. 우리 무슬림은 무함마드에게 계시되었지만 불행히도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꾸란을 통해 예수의 탄생과 예언의 기적을 믿어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토라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현재 사본이 위조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이름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참된 성경에서 자신을 버리고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나는 토라와 성경을 증거하고 내 뒤에 올 아흐마드라는 예언자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너희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예언자이다"(수라 61:6).

이 성스러운 기회에 나는 새로운 세대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기독교 세계는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꾸란을 읽습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 아론에게, 저는 그들에게 꾸란을 읽어 보라고 요청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떻게 다가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먼 곳에서 태어나셨는지 알아보도록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녀에게 하늘의 양식과 종려나무를 내려주셨는지, 그리고 그녀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녀를 공격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자신이 복된 예언자이며 무함마드가 그의 뒤를 이어 예언자로 올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확신시키셨는지,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그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늘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나병환자와 병어리를 고치셨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세부 사항 때문에 우리 무슬림은 예수 탄생의 기적과 그의 예언, 그의 시작과 끝, 이스라엘이 그와 벌인 전쟁,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지지한 일 등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오직 꾸란에서 배웠는데, 여러분은 꾸란을 읽지 않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아랍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민족주의적 광신주의, 이스라엘의 오도된 선전, 그리고 꾸란과 예수의 이야기와 꾸란에서 다른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낭송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진실을 찾지 못하게 한 무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독교 세계의 새로운 세대에게 현재 봉고되고 쇠퇴하는 과정에 있는 기독교 세계의 신앙을 변화시킬 문화 혁명을 수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시대에는 사보나롤라, 마틴 루터, 칼뱅과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모든 의로운 자들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이러한 증거에 따르면, 무슬림은 많은 기독교인이 이슬람교에 대해 이해하~에 는 것만큼이나 기독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둘 다 복음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주의를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슬람은 모든 사람에게 신앙을 받아들일도록 초대하는 다와 ("부름")를 실천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책의 메시지는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슬림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신다면,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선, 무슬림 복음화라는 과제의 근저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상 이 과제를 "포기"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교회의 취약성과 둘째, 이슬람의 저항입니다.

I. 교회의 약점

1. 대명령에 대한 순종의 부족

무슬림 복음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독교 교회에 있습니다. 약하고 미온적인 교회는 선교라는 첫 번째 의무를 소홀히 합니다. 분열된 신자들은 싸울 시간은 많지만 증거할 시간은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나아가는 도전보다는 폐쇄적인 교제의 아늑한 분위기를 더 선호합니다.

그 결과, 믿는 자들은 주변 세상과의 “접촉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사실상 죄인들을 쫓아내는데, 아무도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계 순종하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며,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게 합니다.

2.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 부족

기독교인이 소수인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마치 가나안에서 모세에게 돌아와 계획된 침략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언했던 열 명의 정탐꾼처럼 행동합니다(민수기 13:28-33).

무슬림 국가에서는 이런 행동이 7세기 우마르 계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회적 태도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이 계약의 주요 목적은 무슬림 국가에 거주하는 비무슬림, 특히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격한 조건이 따랐습니다. 첫째, 기독교인은 무슬림이 되고자 하는 동료 기독교인의 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기독교인은 무슬림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시도를해서는 안 됩니다.

칼리프 우마르 이븐 알 카타브는 자신의 정복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 계약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이 계약을 기독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이 조약은 여러 형태로 제시되었는데, 한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당신께서 우리 나라에 도착하셨을 때, 우리는 당신께 우리의 생명과 우리 가족과 신앙의 형제들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재산을 지켜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러한 봉사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는 교회나 수도원을 짓지 않을 것이며, 무슬림 거주 지역의 교회나 수도원을 수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교회나 수도원에 스파이나 외국 사절을 숨기지 않을 의무를 선언하며, 무슬림의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무슬림에게 숨기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야외에서 종교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이며, 설교에서도 이를 권장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종교 공동체 구성원 중 누구라도 원한다면 이슬람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무슬림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이 앉아 있을 때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슬람 구역에 우리의 서적이거나 십자가를 전시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여러 세기가 지난 지금도 이 성약의 조항은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간지 알 알람에 따르면, 모로코의 이맘이기도 했던 하산 2세 국왕은 1990년 5월 15일 인권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무슬림이 '나는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를 받아들였다'고 말한다면, 회개하라는 권고를 받기 전에 의료 전문가들 앞에 끌려가 그의 정신이 아직 건전한지 검사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회개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알라에게서 나오지 않은 다른 종교, 즉 이슬람이 아닌 종교의 증언을 고수하기로 결심한다면, 그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무슬림 국가의 기독교 소수자들은 자신들에게 무엇이 기대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창조적인 소수자, 즉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며,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마태복음 5:13-14; 13:33).

3. 무슬림에 대한 사랑의 부족

오랜 세월의 전쟁과 박해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신 사람들로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새로운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마태복음 5:43-48).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4. 교리적 지식의 부족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기본적인 신조를 변호할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베드로전서 3:15). 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의 질문에 답할 수도,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에 대한 무슬림의 공격을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무슬림 어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들이 성령을 지브릴(가브리엘) 천사라고 부른다는 것을 아는 기독교인은 얼마나 될까요?

5.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슬림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무슬림 국가의 많은 기독교 사역자들은 단 한 명의 무슬림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기독교 전도자는 이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마태복음 28:18).

6. 무슬림 국가의 안보 부족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여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거부합니다. 기독교인에게 기독교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무슬림들 중 일부는 경찰이나 근본주의 무슬림 단체의 스파이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개종자들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것은 개종자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슬람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회귀자들은 나중에 기독교 활동을 당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II. 이슬람의 저항

1. 무슬림들은 대체로 자신의 신앙에 만족합니다.

전형적인 무슬림은 유대인들이 모세에게 주어진 신의 계시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기독교인들은 모세와 예수에게 주어진 신의 계시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무슬림들은 모세, 예수, 무함마드에게 주어진 계시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 무슬림은 자신이 최종적인 참된 계시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에 게 무함마드는 "예언자들의 인장"과 같습니다. (수라 33:40). 따라서 그는 합리적으로 들리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명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무함마드를 당신들의 예언자 중 한 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와 무함마드는 동등할 수 없습니다. 그들 각자의 주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독교인들이 무함마드를 진정한 예언자로 받아들인다면 "공정하게 처신"하려 한다면, 곧 그들을 최후의 예언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력이 그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슬림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근거로 가장 최근의 종교 지도자를 가장 진실되고 위대한 인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가장 최근의 철학자(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철학자가 있을 것입니다)가 반드시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현대 예술가가 르네상스의 천재들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어떤 20세기 작곡가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완벽함에 필적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선지자들 중 가장 위대한 분이 아니라,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요한계시록 1:8).

하지만 물론,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무슬림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원본을 훼손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성경을 변조했고, 이슬람이 이전의 모든 계시를 폐기했다고 믿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시기 전에 승천하셨을 때, 원본 복음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2. 무슬림은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종교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그 힘을 부정합니다.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딘 알-피트라(Din al-fitra)", 즉 "자연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슬람은 기도, 금식, 그리고 자선을 요구합니다. 이슬람은 세상의 종교 사상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습니까. 꾸란은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 진실은 이전 경전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수라 41:43; 87:18, 19 참조). 이슬람의 매력은 대부분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무슬림이 되려면 아랍어로 "증언의 말씀"을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 일라하 일라 알라. 무함마드 라술루 알라"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하나님은 "삼위 일체"가 아니라 단순히 "한 분"입니다.

정의의 문제에 있어 이슬람은 "눈에는 눈"(수라 5:45)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적용합니다. 무슬림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마태복음 5:39)에서 가르치신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은 여성보다 남성을 뺨뺨스럽게 우대합니다. 경제력을 가진 남성은 재산으로 여성을 부양하고 여성의 삶을 스스로 꾸릴 권리가 있습니다(수라 4:34). 이슬람 법에 따라 남성은 최대 네 명의 여성과 결혼할 권리가 있으며, 첩을 둘 수도 있습니다(수라 4:3). 남성은 언제든지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여성은 "다른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성에게 불법입니다. 만약 그[다른 남편]가 그녀와 이혼하더라도, 그들이 알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만나는 것은 두 사람에게 죄가 아닙니다"(수라 2:227-230 참조). 수라 2:223은 남성이 원하는 어떤 자세로든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권리를 부여합니다. "여자들은 너희의 농사일이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농사일을 하라."

기독교의 신비는 무슬림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교리에 대해 고심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그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세 신을 숭배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다신교도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강조하면서, 본능적으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인 십자가형을 부정합니다.

3. 무슬림들은 그리스도에 관해 반쪽짜리 진실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슬람과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 면에서 겹칩니다. 무슬림들은 그분이 지브릴("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온갖 기적을 행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자신을 낮추셨거나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사실(빌립보서 2:7)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거부합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십자가 처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측면에서 "무슬림 그리스도"는 복음서의 예수와 다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8장과 9장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4. 무슬림들은 '기독교'를 '서구'와 동일시합니다.

이슬람은 종교와 국가를 거의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서구 사회와 정치를 기독교 신앙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서구인들이 하는 일은 기독교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생각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낮은 인식을 심어줍니다. 최신 할리우드 영화에서 조장되는 느슨한 도덕성은 그들에게 기독교적 행동의 기준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5. 무슬림들은 기독교를 적대적인 정치 세력으로 본다.

많은 무슬림들은 기독교인을 최대의 적이라고 여긴다.

"기독교 서구"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건국과 그로 인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분산은 많은 무슬림들에게 8대 십자군 전쟁(서기 1096-1291)의 부활로 해석되며, 이슬람교도들의 기억 속에는 이에 대한 분노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친이스라엘 외교 정책, 기독교적 정치적 수사, 그리고 기독교 선교사들을 손쉽게 공급하는 미국은 무슬림들에게 이슬람 파괴에 헌신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무슬림은 종종 엄격한 배교법을 시행합니다.

이슬람에서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조차 엄격히 금지합니다. "오, 믿는 자들이여,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친구로 삼지 말라. 그들은 서로 친구이다. 너희 중 누구든 그들을 친구로 삼는 자는 그들 중 한 사람이다. 알라께서는 악한 자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수라 5:51).

배교자들은 신앙과 공동체를 배신하기 때문에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무슬림의 배교법은 배교한 유대인에 대한 모세의 율법(신명기 13:6-11)과 유사합니다. 압둘라흐만 알 자지리는 이슬람 배교법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에서 타락한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배교 자는 반드시 처형되어야 하며, 그의 피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폭로해야 합니다. 무슬림으로 가장하면서도 은밀히 불신자로 남아 있는 위선자이자 이단자 역시 처형되어야 합니다.

전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은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7. 무슬림은 폭력적인 종교를 받아들인다.

꾸란에서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동사, 명사, 형용사로 99회 등장하는 반면, "죽이다"라는 단어는 무려 170회나 등장합니다. 이슬람에서 잔혹한 처우를 받는 것은 배교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꾸란은 폭력을 가정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로 묘사합니다. 아내를 때리는 것은 합법입니다. 수라 4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 알라께서 남자에게 다른 남자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고, 그들은 여자를 부양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로운 여자들은 알라께서 보호하신 것을 비밀리에 지키며, 헌신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다. 불충실을 두려워하는 여자들은 훈계하고, 따로 잠자리에 들게 하고, 때려라."

그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더라도, 그들을 대적할 방법을 찾지 마라. 알라는 가장 높고 위대하시다."

이슬람에서 여성의 지위는 이러한 폭력성을 보여줍니다. 수라 4장 3절은 일부다처제를 명령합니다. "네가 보기에 좋은 여자를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네 명이든 결혼하라. 만약 네가 공평하지 못할까 봐 두렵다면 한 명만, 아니면 네 오른손이 소유한 것만이라도 결혼하라."

그러므로 당신은 편파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큼니다."

그러나 무함마드는 네 종류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수라 33:50에 따르면 알라께서 무함마드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언자여, 우리는 너에게 허락하였노라. 네가 자참금을 지불한 아내들, 알라께서 전쟁의 전리품으로 네 오른손이 소유한 아내들, 그리고 아버지 쪽 삼촌의 딸들, 아버지 쪽 숙모의 딸들, 어머니 쪽 삼촌의 딸들, 그리고 너와 함께 이주한 어머니 쪽 숙모의 딸들, 그리고 믿는 여성이 예언자에게 자신을 바치고 예언자가 그 녀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허락하라. 이는 오직 너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지 (다른) 믿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노라." 수라 2:28에 따르면 남성은

십자가와 초승달

여성보다 높은 지위: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남성은 여성보다 한 단계 더 높습니다." 수라 4:11은 여성의 상속에 관해 "남성은 (상속에서) 여성 두 명과 같은 몫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성 증인에 관하여 수라 2장 28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남성 중에서 두 명의 증인을 세우라. 만약 두 명의 증인이 없다면, 너희가 선택한 남성 한 명과 여성 두 명을 증인으로 세우라."

이혼 후 결혼에 관하여 수라 2장 2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가 그녀와 이혼했다면, 그 후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때까지 그에게 합법적이지 않다. 그러나 만약 그가 (다른 남편이) 그녀와 이혼했다면, 그들이 알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다시 결합하는 것은 두 사람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 (신명기 24장 1-4절 참조)

수라 24:31은 대중 앞에서의 여성의 모습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믿는 여성들에게 말하여라. 시선을 낮추고 겸손함을 지키라. 아름다움과 장신구를 보이는 것 외에는 보여주지 말라. 가슴 위로 베일을 끌어당기고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말라."

따라서 간통은 엄중한 응징을 초래합니다. 수라 2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통한 여자와 간통한 남자는 각각 백 대씩 매질하라. 알라와 최후의 날을 믿는다면, 그들을 향한 어떤 동정심도 알라의 종교를 지지하는 것을 막지 말라.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들의 형벌을 목격하게 하라."

우상 숭배자들에 관하여 수라 9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스러운 달(라자브, 두케다, 두헤자, 알무하람)이 끝나면, 다신교도들을 발견하는 곳마다 차단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 포위하고, 곳곳에 매복하여 그들을 공격하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고 자카트를 바치면, 그들을 풀어주어라. 알라는 관대하고 자비로우시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에 관하여 수라 9:29에서는 "알라와 최후의 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알라와 그의 사자가 금한 것을 금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싸우라. 그들은 진리의 종교를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들로서, 책임 주어진 자들 중에 속한다. 그들이 조공을 바치고 굴욕을 당할 때까지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라께서는 지하드("성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수라 9장 111절은 "알라께서 신자들에게서 생명을 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라의 길에서 싸우고, 죽이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는 토라와 복음서, 그리고 꾸란에 기록된 알라의 약속입니다. 누가 알라보다 그분의 약속에 더 충실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과 맺은 계약을 기뻐하라. 그것이 최고의 승리이다." 수라 4장 74절은 이렇게 말한다. "내세를 위해 이 세상의 삶을 팔아넘기는 자는 알라를 위해 싸우도록 하라. 알라를 위해 싸우는 자는, 그가 죽든 승리하든, 우리는 그에게 큰 보상을 줄 것이다."

이슬람에 대항하여 무장하는 자들, 즉 알라와 그의 사도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이 땅에서 부패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죽음이나 십자가 처형, 손발이 서로 잘리는 것, 또는 이 땅에서 추방되는 것 외에는 보상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에서도 타락할 것이며, 내세에서도 엄중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무함마드와 그의 군대는 바드르 전투에서 쿠레이쉬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꾸란은 이 전투에 대해 수라 8:95, 60, 65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알라의 뜻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보라! 그들은 도망칠 수 없다. 그들을 위해 무장한 모든 병력과 말들을 준비하여 알라의 적과 너희의 적,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적들을 두렵게 하라. 알라는 그들을 알고 계신다. 너희가 알라의 길에 쓰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보상받을 것이요, 너희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예언자여! 믿는 자들에게 싸우라고 권고하라. 너희 중에 굳건한 자가 이십 명이면 이백 명을 이길 것이요, 너희 중에 굳건한 자가 백 명이면 불신자 천 명을 이길 것이니, 그들은 무지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에 관하여 수라 5장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믿는 자들아,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친구로 삼지 마라. 그들은 서로 친구이다. 너희 가운데 그들을 친구로 삼는 자는 그들 중 하나일 뿐이다. 알라는 불의한 자를 인도하지 아니하신다." 무함마드의 총애를 받았던 아내 아이샤에 따르면, 예언자의 마지막 말씀은 "아랍 반도에 두 종교가 공존해서는 안 된다"였습니다.

이슬람이 외부인에 대해 갖는 태도는 이 구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알리 이븐 아부 탈리브,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가 쓴 글:

십자가와 초승달

우리의 꽃은 칼과 단검입니다.
수선화와 머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음료는 적의 피이다.
우리가 싸웠을 때 우리의 잔은 그들의 두개골이었습니다.iv

이런 선동이 얼마나 쉽게 실제적이고 광범위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살만 루슈디 사건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중동 포럼의 이사인 다니엘 파이프스에 따르면:

이 문제는 1989년 1월, 영국 브래드퍼드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이 유명 작가 살만 루슈디의 신작 소설 『악마의 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설에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파키스탄 이민자였던 무슬림들은 이 소설을 구입하여 광장으로 가져가 말뚝에 매달고 불을 질렀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한 달간 집결 후, 약 1만 명의 반(反)루슈디 시위대가 수도 이슬라마바드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미국 문화 센터(이 자체로도 중요한 사실)로 행진하며, 그들은 견고한 요새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 폭력 사태로 6명이 사망했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란의 혁명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관심을 끌었고, 그는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1989년 2월 14일, 그는 "모든 열성적인 무슬림들에게" 『악마의 시』의 저자인 살만 루슈디 뿐만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을 알고 있는 출판 관계자들"을 모두 신속히 처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칙령으로 영국은 루슈디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조치를 취했고, 전 세계 정치인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언론의 자유와 신성모독 문제를 놓고 수주, 수개월 동안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호메이니는 루슈디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구체적인 목표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호메이니가 루슈디에게 해를 끼치지 못했지만, 훨씬 더 심오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많은 무슬림의 영혼을 일깨워 무슬림에 대한 신뢰감을 되살렸습니다.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 과제 의 본질

그들의 신앙과 그것을 폄하하는 어떤 행위에도 강한 참을성을 보이지 않으며, 신성모독자나 비판자로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메이니는 자신의 포고령을 발표한 지 몇 주 만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포고령이 불러일으킨 정신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1989년 이후 10년 동안 이슬람주의 세력, 즉 무슬림 근본주의 세력은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노골적인 폭력부터 더욱 정교하지만 그 효과는 결코 뒤지지 않는 수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노력은 인상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초기의 신체적 위협 행위 중 일부는 루슈디 사건 자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악마의 시』 번역가들은 노르웨이와 이탈리아에서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고, 일본에서는 살해당했습니다. 터키에서는 호텔 화재로 인해 다른 번역가가 사망했지만, 그는 살아남아 탈출했지만 3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무슬림과 비무슬림 모두를 다양한 범칙 혐의로 처벌하기 위한 폭력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소명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슬람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도전입니다. 하지만 로마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초기 제자들에게 불가능했던 것처럼, 이슬람 세계 복음화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 전파가 교회 설립의 주된 목적이라고 말합니다(베드로전서 2:9, 10).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초기 신자들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사도행전 2:8; 4:20, 29; 8:4; 13:1-4 참조).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린도전서 11:26)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한 일을 명하지 않습니다. 교회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실 때, 그분은 신자들에게 순종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께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께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서 "아니오"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용어상 모순입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분은 그분의 백성에게 순종할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바울은 “누가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은 결과를 보장합니다. 그분은 항상 그분의 보좌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증거하도록 위임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18)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분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20)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회심의 일을 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단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아무도 씨 뿌리는 사람에게 땅이 좋은지, 가시덤불이 많은지, 돌이 많은지 확인해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곡식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회심은 오직 성령께서만 이루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망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결국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 주신 일을 통해 믿게 된 종일 뿐입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리라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요 각각 자기의 수고대로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리라"(고린도전서 3:5-9).

누군가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다고 말할 때, 그는 반쪽짜리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신 유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열리도록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팀 워크"는 개종 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슬림 개종자들에게는 세심한 지원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무슬림은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집에서는 성경을 자유롭게 읽거나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신앙에 대한 그의 무지함은 기독교 설교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이슬람을 거부함으로써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자각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를

십자가와 초승달

끊임없는 슬픔. 이 모든 것이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키는 빠르게 자라는 잡초가 될 수 있습니다(마태복음 13:21).

게다가 그는 가족, 이웃, 그리고 당국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내는 종종 개종한 남편을 버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개종자는 직장과 상속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미혼이라면, 다른 집을 찾고 결혼할 적합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정탐꾼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동시에(데살로니가전서 5:21), 무슬림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은 새로 개종한 사람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세례를 주기 전에, 그리스도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과 평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균형 잡힌 그림을 제시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을 위하여"(빌립보서 1:29). 교회는 이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새 개종자를 환영하고 새롭게 찾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무슬림 복음화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1985년 1월 2일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서 인용.

ii Abdulrahman al-Jaziri, 이슬람의 배교에 대한 처벌, (Villach, 오스트리아, 생명의 빛) 1997), 첫 번째 장.

iii 이븐 하삼, 무함마드의 생애, 압둘 마시흐가 개정 및 증보함(오스트리아 빌라흐: Light of Life, 1999) 2권, 305쪽.

iv 위와 같음, 306쪽.

v 다니엘 파이프스, 이슬람을 어떻게 감히 훼손할 수 있느냐 (워싱턴 DC: 종교 자유의 집, 1999년 11월).

무슬림과 소통하는 방법

2

신앙 문제에 대한 개성적인, 지속적인 토론 개발이 필요합니다. 오해받기 쉽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복잡한 세부적인 문제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이 장에서는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설명합니다.

1. 질문에 답하고 제기하세요.

무슬림이 당신의 신앙에 대해 질문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기독교 무슬림이 묻는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쟁 자체를 위해 논쟁을 만들지 말고, 어려운 질문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무슬림의 반대에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논쟁의 모범은 사도행전 17장 23-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알려지지 않은 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는 이슬람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기도 전에 왜 세수를 해야 할까요? 자카트는 왜 해야 할까요? 무슬림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신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왜 속죄를 강조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무슬림들은 왜 알아드하(아브라함의 아들을 구원하신 축제)를 자신들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축제로 여길까요? 이슬람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 최대한 많이 배우세요. 이는 무슬림의 대답을 이해하고 당신의 선한 신앙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ichard Thomas 박사는 복음 전파에 대한 좋은 조언을 제공합니다. 그의 책 *이슬람, 측면과 전망*:에서 무슬림

무슬림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질문은 환영하라. 나는 예전에

레바논의 한 병원 결핵 병동 주변을 맴돌던 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걸프만 지역에서 온 무슬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나이 드신 사우디 분이 저를 불러 세우시며 "인질(Injil)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쿠란을 낭송하는 동안 잘 들어주시겠습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계속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60절을 낭송하셨습니다. 대화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가치 있는 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의제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넓은 범위를 다루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 다니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모든 논의는 잠정적인 결론으로 이끌어가고, 남자는 무슬림 남성에게만, 여자는 무슬림 여성에게만 증거해야 한다는 규칙을 기억하세요. 모든 논의에서 정치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무슬림 아랍인들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에 대해 많은 불만을 품고 있으며, 종종 그들끼리도 적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리처드 토마스는 무슬림에 대한 따뜻한 환대와 배려로 훌륭한 경력을 쌓은 한 아랍인 복음 전도자가 정치적 논쟁을 갑자기 이렇게 종식시킨 사례를 회상합니다. "저는 제 집에서 정치적 다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II. 무슬림에게 알려주세요.

무슬림에게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대화"를 보라고 제안하세요. 소책자, 책자, 성경 구절이나 신약 성경을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사용하기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은 산상 수훈, 시편, 그리고 누가복음입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읊기를 좋아합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께 매료되었지만, 그분의 가르침, 비유, 인터뷰, 기적 이야기 등을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슬림이 꾸란이나 소책자를 건네주면 정중하게 받으십시오. 읽고 우호적인 대화를 나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III. 꾸란의 초대를 활용하세요 신앙에 관해 토론하다.

무슬림의 반대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의 백성과 논쟁하지 말라. 너희에게 부당한 일을 한 자들과 논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더 나은 방식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너희에게 계시된 것을 믿는다. 우리의 신과 너희의 신은 하나이며, 우리는 그분께 행복한다.’”

이 꾸란의 구절은 무슬림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다. • 좋은 유대인과 좋은 기독교인을 잘 대하십시오.

- 유대인에게 계시된 구약성경과 기독교인에게 계시된 신약성경을 믿으십시오.
-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신이 그의 신이라고 믿는다. 그는 자신의 신에게 행복해야 합니다.
- 기독교인은 이교도도 아니고 다신교도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IV. 중요한 사실을 공유하세요.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슬림에게서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 믿음에 대한 강력하게 확인됩니다.

1.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슬람은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 4:8, 16 참조)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율법과 그들을 더 가까이 이끄시는 은혜는 얼마나 다른지요!(히브리서 12:18-21; 마태복음 5:1)

이슬람은 신이 경건한 자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신이 온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죄인과 신성모독자를 사랑하시고, 불경건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들을 경건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무슬림의 하디스(전통)에 따르면, 신은 오른손에 한 줌의 흙을 쥐고 그것으로 인간을 창조한 후 "천국으로 가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왼손에 또 한 줌의 흙을 쥐고 그것으로 인간을 창조한 후 "지옥으로 가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슬람은 알라를 자비로우신 분으로 인정합니다. 사실, 이 이름은 꾸란에서 다른 어떤 신의 이름보다 더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알라는 위대하고 고귀하신 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실 때에도 그는

십자가와 초승달

멀고 비인격적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수준까지 내려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한 그분의 자기희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영원한 자리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안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안에서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2. 당신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라"

(요한일서 3:1, 2)

3. 당신은 언제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의 영원한 구원에 관한 쿠란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쿠란은 파라오의 마술사들이 "우리는 만물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 중 첫 번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수라 26:47, 51)라고 말한 것을 인용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심판의 날에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수라 26:82)라고 말한 것도 인용합니다.

쿠란은 독자들에게 "알라를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가 번영할 것이다"(수라 2:189)라고 명령하고, "알라와 그분의 사자께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자비를 얻을 것이다"(수라 3:132)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쿠란은 "이것은 우리가 계시한 축복 받은 성경이다... 그것을 따르고 알라를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가 자비를 얻을 것이다"(수라 6:155)라고 말합니다.

수라 19장 71-72절에 따르면, 종교가 있든 없든 모든 무슬림은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너희 중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이는 너희 주를 위해 정해지고 결정된 일이다. 우리는 경건한 자들을 구원할 것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릎을 꿇고 절뚝거리며 그곳에 남겨둘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슬림은 언제 구원받는지 모릅니다!

한 하디스에서는 무슬림이 천국 사람들의 일을 하며 평생을 보내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하디스는 이렇게 전합니다. "진실로 알려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오른손으로 그의 등을 문지르시고 그에게서 자손을 취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것들을 천국을 위해 창조하였고, 그들이 할 일은 천국에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다.' 그 후 알려께서 손으로 그의 등을 문지르시고 그에게서 자손을 취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것들을 지옥을 위해 창조하였고, 그들이 할 일은 지옥에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다.'" iv

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신자는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꾸란은 모든 죄인의 죽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모든 죄인의 구원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그러한 갈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알라는 죄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꾸란에 24회 기록된 원칙 - 수라 2:190-192 참조). 그는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만을 사랑합니다(수라 3:76). 이러한 이유로 어떤 무슬림도 알라가 자신을 위해 천국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지, 아니면 즉시 지옥으로 보내셨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그분의 열망,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분의 보장이라는 세 가지 위대한 사실을 선포할 모든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이러한 영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무슬림에게 주어집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두 팔 벌려 기다리신다 (누가복음 15장).

V. 다리를 놓는 꾸란 구절을 활용하세요.

꾸란의 여러 구절은 기독교인들이 이 열람 자습서에서 인용한 구절들이 큰 존경을 받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처음에는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무슬림들에게 부드럽게 상기시켜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 장의 앞부분에서 수라 29장 46절을 언급했습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3장 55절

알라께서 “오 예수님… 나는 부활의 날까지 너를 따르는 자들을 불신자들보다 위에 두겠다. 그때 너희는 모두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나는…”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와 초승달

너희가 이전에 의견이 달랐던 점에 대하여 판단하라."

3장 113-115절

경전의 백성 가운데에는 밤에 알라의 계시를 낭송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정직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알라와 최후의 날을 믿으며, 옳은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금하며, 선행을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그들은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선행에는 그에 따른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알라는 의로운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5장 69절

[무슬림을] 믿는 자들과 유대인들과 사바인들과 기독교인들, 그리고 누구든지 알라와 최후의 날을 믿고 옳은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5장 82절

유대인과 우상 숭배자라고 믿는 자들에게 가장 격렬한 적대감을 품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가장 가까운 애정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 가운데 사제와 수도사들이 있고, 그들이 거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VI. 타락에 관한 꾸란의 이야기를 알고 공유하세요.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야기는 두 번 언급됩니다. 전체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장 30-38절

(30) 주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총독을 세우겠다." 천사들이 말했다. "우리가 당신의 찬양을 찬양하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동안, 거기에 해를 끼치고 피를 흘리는 자를 두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안다." (31) 그리고 주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그것들을 천사들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옳다면 이것들의 이름을 말해 보아라." (32) 천사들이 말했다. "영광을 돌려나이다. 우리에게는 지식이 없으니,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실로 지식과 지혜가 완전하신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33)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담아! 그들의 이름을 말해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자 알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과 땅의 비밀을 알고, 너희가 드러내는 것과 감추는 것을 안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34) 보라, 우리는 천사들에게 "아담에게 절하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절하였지만, 이블리스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거절하고 거만했습니다. 그는 신앙을 거부하는 자들 중 하나였습니다.(35) 우리가 말했습니다. "오 아담! 너와 네 아내는 에덴 동산에 거하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마음대로 먹되 이 나무에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해와 범죄에 빠지게 될 것이다."(36) 그러자 사탄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미끄러지게 하여 그들이 있던 상태에서 끌어냈습니다. 우리가 말했습니다. "너희 모두 내려와 서로 적대감을 품고 있어라. 땅은 너희의 거처이자 한동안 너희의 생계 수단 이 될 것이다."(37) 그러자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영감의 말씀을 배웠고, 그의 주께서는 그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자주 돌아오시는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38) 우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모두 내려와라. 그리고 만일 내가 너희에게 인도를 내리면, 누구든지 내 인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장 7:11-26

(11) 너희를 창조하고 형상을 준 것은 바로 우리이다. 그때 우리는 천사들에게 아담에게 절하라고 명령하였고, 그들은 절하였다. 그러나 이블리스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절하는 자들 가운데 있기를 거부하였다. (12) [알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명령하였을 때 너희가 절하지 못하게 한 것이 무엇이나?" 그가 말하였다. "나는 그보다 낫다. 너희는 나를 불로, 그는 진흙으로 창조하였다." (13) [알라]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서 내려와라. 여기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나가라. 너희는 가장 비천한 존재이다." (14) 그가 말하였다. "그들이 부활하는 날까지 나에게 휴식을 주어라." (15) [알라]께서 말씀하셨다. "휴식을 얻은 자들 가운데 있어라." (16)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길에서 쫓아내셨으니,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바른 길에서 그들을 기다리겠습니다. (17) 그러면 저는 그들의 앞에서도 뒤에서도, 그들의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 중 대부분에게서 은혜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18) [알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나가라, 수치를 당하고 쫓겨난 자여. 만약 그들 중 누구라도 너를 따른다면, 내가 너로 지옥을 채울 것이다."

모두. (19) 오 아담아! 너와 네 아내는 에덴동산에 거하며 원하는 대로 즐기되, 이 나무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해와 범죄에 빠지리라." (20) 그러자 사탄은 그들에게 숨겨진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 속삭이는 암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희 주께서 이 나무를 금하신 것은 너희가 천사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뿐이다." (21) 그리고 그는 두 사람에게 자신이 그들의 진실한 조연자라고 맹세했습니다. (22) 그래서 그는 속임수로 그들의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그들이 나무의 열매를 맛보자 그들의 수치가 드러났고, 그들은 에덴동산의 잎사귀를 몸 위에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그 나무를 금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사탄이 너희에게 공언된 원수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23) 그들이 말했다. "우리 주여! 우리는 스스로의 영혼을 해쳤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24) [알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서로 적대감을 품고 땅으로 내려가라. 땅은 너희의 거처가 되고 너희의 생계 수단이 될 것이다." (25)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너희는 제거될 것이다. (26) 아담의 자손들이여, 우리는 너희에게 옷을 입혀 너희의 수치를 가리고 너희를 치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경건함의 옷이 가장 좋다." 이러한 것들은 알라의 징표 중 하나이니, 그들이 훈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두 인용문을 통해 우리는 아담의 타락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이 아담이 주님으로부터 "영감의 말씀"을 받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37절). 두 번째 해결책은 아담이 "경건의 옷"을 받는 것이었습니다(26절).

꾸란은 이 두 구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타락 후 여러 세기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뱀(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무슬림은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이로써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임을 확립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완전함을 믿습니다(수라 19:19 "흠 없는 아들"). 그들은 단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만 다릅니다.

십자가 처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창세기에 분명히 예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경건의 옷"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동물 희생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의 장래 역할을 암시합니다.

VII. 논쟁에서는 완벽한 예의를 지키십시오.

무슬림과 대화하려면 기술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접근 방식과 방법을 다양하게 바꿔야 합니다. 무슬림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눈여겨보세요. 그는 자신의 종교와 당신의 종교의 교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종교 문제에 대해 막연한 지식이라도 있나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는 예리한 지성인인가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무슬림들은 죄와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화해의 수단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중요성을 종종 간과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토론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계속해서 주님께 여쭙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이 말과 생각이 막힐 때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무슬림이 신앙 문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무슬림들이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리처드 토마스가 지적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무슬림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는 W. 세인트 클레어 티스달 목사보다 더 나은 지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 전에 쓰인 그의 조언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타당합니다.

1. "이기기" 위해 논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표는 반대자들을 침묵시키거나 단순히 논리적인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논쟁에서 우리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회심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회심은 성령의 사역이며, 성령의 도우심은 모든 단계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경, 특히 신약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성경의 결점을 찾거나 어려움을 발견하는 데 만족하지 말라고 권고하십시오.

2. 집중하세요.

각 기회에 토론을 하나 또는 두 개의 확실한 요점으로 제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는 사전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질문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논쟁을 확실한 결론으로 이끌어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는 토론의 진행 방향을 최대한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목표를 꾸준히 염두에 두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예의바른 태도로 모범을 보이세요.

주장을 펼칠 때는 공정성과 예의를 갖추도록 주의하세요.

논쟁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만큼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논쟁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태도가 예의 바르고 친절하다면, 무슬림은 일반적으로, 심지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의범절을 지키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그를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셨고, 당신이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형제로 여기십시오. 그에게 예의를 보이고, 당신의 태도를 통해 당신도 그에게 같은 행동을 기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의 무례함을 일반적으로 억누를 수 있습니다. 논쟁이 다툼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4. 결코 화내지 마세요.

무슬림이 당신을 화나게 하려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가 참석하신 사람들에게 당신이 화가 났다고 상상하게 만드는데 성공한다면, 그들의 관점에서 그는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논쟁 중에 의도치 않게 화를 낸다면, 상대방은 잠시 멈춰 서서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시선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을 드러내며, 의도치 않게 당신을 화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그 라운드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을 화나게 했거나,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척하며,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믿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노는 패배의식을 보여줍니다.

5. 신앙과 죄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세요.

무슬림이 가볍게 다루는 문제들에 대한 깊은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세요. 당신이 그것들을 생사의 문제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아무리 경솔하더라도, 그는 대개 공감할 것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기꺼이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위기를 조성하십시오. 무슬림들은 죄의 심각성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성만이 아니라 마음에 다가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 복음을 통해 당신에게 전달하라고 명하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호소하십시오.

6.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삼가하세요.

(토론 중에) "무함마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거나 그를 직접 공격하도록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청중을 불쾌하게 하고 엄청난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무함마드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견을 당신의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 스스로 매우 확고한 의견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무함마드에 대한 제 의견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청중에게 매우 분명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당신의 예의는 높이 평가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7. 무함마드에 대해 적절한 존경심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기독교인은 무함마드에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아파 무슬림들 사이에서) 알리와 파티마, 또는 무슬림들이 존경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 호칭을 붙여야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무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인도에서는 "무함마드 사히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고, 페르시아에서는 "하즈라트-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에게 더 높은 호칭을 줄 수 없지만, 무슬림들은 우리가 그에게 이러한 호칭을 주면 만족합니다. 이집트와 중동 국가에서는 그를 단순히 "무함마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분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의를 차려 "나베 이요쿰"("당신의 예언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우리의 구세주" 또는 "주님"이라는 호칭을 덧붙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슬림들은 항상 그에게 어떤 종류의 존경의 호칭을 붙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면 불쾌해합니다.

8. 신학적인 기술적 내용은 피하세요.

신학 용어를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국어로 직접 그 용어들을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국어 성경에 사용된 "거룩함, 속죄, 죄, 천국, 평화"와 같은 단어들은 무슬림에게 첫눈에 기독교적 신학적 의미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가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능한 한 그의 신학 용어를 사용하고, 먼저 그 용어들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세요.

9. 성경 본문에 대한 기초 토론.

무슬림이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인용하고 어떤 주장을 발견할 때마다, 그 구절을 직접 찾아보고 문맥을 통해 정확히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확인하십시오. 기억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문맥 속에서 구절을 소리 내어 읽으면 앞서 논의된 어려움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맥 속에서 인용해야 하는 구란에 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10.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아십시오.

논쟁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주요 기독교 교리의 진실성을 온전히 확신해야 하며, 타락, 조 건부 불멸, 영원한 소망, 속죄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지 않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1. 서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따뜻하게 긍정해 주세요.

기독교와 이슬람에 공통된 모든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러한 합의점에서 출발하여 그들의 신조 중 일부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깊은지를 보여주십시오. 성경이 그들의 신조에 있는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그들의 신학보다 더 깊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꾸란에 대해 말할 때는 매우 존중심을 가지고 인용해야 하며, 신중하게 인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종교가 공유하는 위대한 진리를 다룰 때,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진심을 담아 말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듣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은 여러분이 독특한 기독교 교리에 관해 말하려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12. 강의하지 말고, 시간을 들여서 말하세요.

무슬림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최대한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잘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이 답을 찾도록 유도하여, 당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진실임을 스스로 확신하게 하는 소크라테스식 방법은 제대로 활용한다면 아마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기도 전에 왜 재계(洗戒)를 하는 걸까요? 단지 신체적 청결을 위한 것일까요?" 또는 "신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13. 무슬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정통 무슬림이 무엇을 기꺼이 인정하고 무엇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주장에서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고, 씨앗을 심을 자리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a. 그는 (당신이 보기에는 논쟁을 위한 것일 뿐) 꾸란이 신의 책이며, 원본에 있는 모든 단어와 글자가 신의 저작이라는 가정 하에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해야 하며, 그는 이를 타협할 의사가 없습니다.

b. 그는 (1) 하나님의 일체성, 전능하신 능력, 지혜, 영원성, 불변성, 그리고 그분이 모든 선한 속성의 결합이라는 위대한 교리들을 받아들인다. (2) 그분의 우주 창조와 그분의 신성한 통치와 섭리, (3)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와 같은 모든 선지자들의 신성한 사명, (4)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 사이의 영원한 구별, (5)

세상의 존재와 인간 성격, 인간 정신, 사후 세계의 존재, 미래의 보상과 처벌, 부활, 믿음의 필요성, 선과 악의 영의 존재; (6)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7) 원래 주어진 성경은 신의 계시였으며 (8) 우상 숭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수라 4:48,116).

반면에 그는 죄의 죄책감, 즉 영원한 도덕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 정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는 사실상 하나님의 전능함이 그분의 다른 모든 속성을 능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속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부인합니다. 그는 성경이 변조되었다고 믿거나, 적어도 "꾸란이 무함마드에게 내려진" 일로 성경이 무효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슬림들이 제기하는 반대 의견의 90%는 모든 것을 육적인 시각으로 보고 해석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문이나 교리의 영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에도 영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면, 무언가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 전에 우리가 재계(才戒)를 하지 않는다는 이의를 제기할 때, 반대하는 사람은 재계를 단순한 형식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며, 재계에서 도출될 수 있는 영적인 가르침은 그에게 큰 계시였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와 유사한 이의에 대한 저의 입장은 반대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본질과 우리가 창조주께 나아갈 때 필요한 준비에 대해 한 걸음 물러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영과 콧수염의 모양이나 옷의 종류, 특정 조건 하에서 머리 장식과 신발을 벗거나 벗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대 의견은 모두 토론을 진정한 종교의 근본적인 동기와 내적 본질로 되돌려 놓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니아트"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상기시켜 주면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외적인 요소보다는 마음의 준비를 강조합니다.

14. 기도하세요!

전도자는 벵겔의 조언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지식 없이, 사랑 없이, 필요 없이 논쟁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 없이 말입니다.

리차드 토마스의 저서 『이슬람, 측면과 전망』 (오스트리아 빌라흐: Light of Life, nd), 187-190쪽 참조 .

ii Ibn Hanbal, Musnad 26216, 31062.

iii 무슬림, 사히흐, 4791.

iv Mishkat al-Masabih, Vol.3, p.107.

v 이 섹션의 요점은 W. St. Clair Tisdall의 저서 A Manual of Leading Mohammadanian Objections to Christianity (SPCK., 런던, 1904), pp. 13-23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무함마드 3

I. 이슬람 이전 아라비아

거저한 기독교인이 있었다면 그것은 냉정한 생각입니다. 6세기 아랍 반도의 복음 전도자였던 무함마드는 세계 최초의 기독교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무함마드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당시 아랍 반도에서 활동하던 여러 다른 종파들, 즉 유대교, 사바교, 하니피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 유대교

유대교는 서기 70년에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파괴하자 유대인들이 도망쳐 아랍 반도에 전파되었습니다.

예멘 야스리브를 비롯한 여러 곳에 부유한 유대인 가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의 부는 농업, 대금업, 그리고 갑옷과 보석 거래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랍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성서"가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일부 아랍인들은 유대교를 받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무함마드는 유대교 경전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꾸란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수라 3은 알 임란 (모세의 아버지 임란의 가문)으로, 수라 10은 유니스 (요나)로, 수라 12는 유수프 (요셉)로, 수라 14는 이브라힘 (아브라함)으로, 수라 71은 누흐 (노아)로 불립니다. 꾸란은 출애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수라 2:49, 50). 무함마드는 유대인들에게 신이 모세에게 내린 계시를 자주 상기시켰습니다. 꾸란은 또한 "우리는 ...에게 ...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이스라엘 자손에게 책과 계명과 예언의 직분을 주셨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모든 민족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셨다”(수라 45:16).

아랍인들은 유대인들이 동정녀 탄생, 삼위일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속죄의 죽음에 대한 기독교 교리를 거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꾸란은 이스라엘의 몰락을 “... 그들이 계약을 어기고 알라의 계시를 믿지 아니하며, 선지자들을 부당하게 살해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졌다’고 말한 것”에 기인한다고 비난합니다. 오히려 알라께서 그들의 불신앙에 봉인을 하셨기에, 소수를 제외하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마리아를 비방한 일로 인해 엄청난 중상이 자행되었습니다.”(수라 4:155, 156)

2세기 아라비아의 주목할 만한 유대교 분파 중 하나는 에비온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다윗의 아들, 그리고 위대한 율법 제정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단순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모세는 메시아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성령과 연합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는 에비온파가 마치 "다윗의 아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치는 눈먼 사람과 같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2. 기독교

적어도 그의 사명을 시작할 당시 무함마드는 기독교인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5장 69,82절

[무슬림을] 믿는 자들과 유대인, 사바인, 기독교인, 그리고 알라와 최후의 날을 믿고 옳은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며,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는 유대인과 우상 숭배자라고 믿는 자들에게 인류 중 가장 격렬한 적대감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 중 가장 가까운 자들이 '우리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애정을 느끼는 것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사제와 수도사들이 있고, 그들이 거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랍 반도에 도달한 기독교 교리는 대부분 이단적이었습니다. 아랍 반도는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서는 많은 이단이 억압되었습니다.

제국은 그곳에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무함마드가 접하게 된 기독교는 정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a) 단성론자

로마 제국의 종교적 갈등으로 단성론자들은 알 히라로 도피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본성이 신성하지만 인간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와서 자신들의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가산 부족은 단성론 신앙으로 개종했습니다. 서기 518년에는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오만에서는 서기 424년, 바레인에서는 서기 575년에 주교가 기록되었습니다.

(b) 네스토리우스파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는 서기 410년에 수도원이 세워진 알 히라에 일찍 전파되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파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두 개의 뚜렷한 인격, 즉 하나는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이고 분리될 수 없다는 정통 교리에 위배됩니다.

네스토리우스파는 서기 525년경 에티오피아에서 예멘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복음 전파보다는 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아랍 반도 남부에 정착했습니다. 무함마드 시대에 가장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네스토리우스파 인물 중 한 명은 메카의 목사이자 무함마드의 첫 번째 아내 카디자의 사촌이었던 와라카 이븐 나우 팔이었습니다. 와라카는 마태복음 1장부터 25장까지 아랍어로 번역했는데,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세 장은 생략했습니다.

(c) 마리아미족

이 이단의 추종자들은 비너스를 숭배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후, 그들은 대신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며 성령 대신 마리아를 삼위일체로 추대했습니다. 이는 무함마드가 특별히 비난했던 이단입니다.

5장 116절

알라께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네가 사람들에게 ‘알라 외에 나와 내 어머니를 두 신으로 모시라’고 말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가 할 말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d) 도케타주의

이 이단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이 이단의 명칭은 그리스어 '도케인 (dokein, "보인다")'에서 유래했습니다. 가현설주의자들은 물질을 영보다 열등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가 완전한 의미에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가 인간처럼 보였다는 것만 인정했습니다. 이는 예수가 출생 시 인성을 취했다가 십자가에서 벗어났거나, 예수의 인간 본성이 단지 천상적이거나 영적인 종류였음을 암시했습니다. 가현설주의자들은 성육신, 속죄, 부활 교리를 부인했는데, 아마도 이것이 무함마드가 예수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한 이유 일 것입니다(수라 4:157 참조).

(e) 아리우스주의

이 이단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초월성을 강조하며, 그리스도를 성부에게 종속된 피조된 인격체로 간주했습니다. 아리우스 이단은 니케아 공의회(서기 325년 5월)에서 정죄받았는데, 이 공의회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지만 창조되지는 않았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지녔다"고 확인했습니다.

3. 사바에인들

꾸란은 사바족을 무슬림, 유대교인, 기독교인과 함께 세 번이나 매우 긍정적인 표현으로 언급합니다. "그들의 보상은 그들의 주님께 있으니,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다"(수라 2:62, 5:69, 22:17). 이 이름은 아마도 "침수시키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스바'에서 유래했을 것이며, 메소포타미아에서 세례를 행하던 유대-기독교 분파를 지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이교도 종파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집단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에게 주어지는 관용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이름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숭배했으며, 행성을 "아버지", 원소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카바 신전을 향해 하루에 일곱 번씩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지 않고 장례 기도를 드렸고, 일 년에 한 달 동안 금식했으며, 할례를 행했고, 메카 순례를 했습니다. 또한 중훈과 돼지고기, 죽은 고기, 피를 먹는 것을 금지했고, 판사의 판결이 있을 때만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이슬람은 그들의 가르침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4. 하니피테스

하니피테라는 이름은 "자신을 보존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거짓 종교로 이탈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참 종교를 따랐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유일신을 경배했습니다.”ⁱⁱ

하니피파는 우상 숭배, 유대교, 기독교를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신의 단일성, 사후 세계, 그리고 심판의 날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재세례와 할례를 행했고, 동굴에 숨어 기도하고 명상했습니다. 간통, 대출금 이자, 술과 돼지고기 섭취, 그리고 갓 태어난 여자아이를 죽이는 관습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도둑에게는 손을 자르고, 간통한 자에게는 돌을 던지고,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하니피파는 무함마드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많은 관습이 이슬람의 사상과 설교에 스며들었습니다.

II. 무함마드의 생애

무함마드(아랍어: مُحَمَّدٌ)는 570년경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 이슬람의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이슬람은 "신의 뜻에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무함마드의 아버지는 압둘 무탈립의 아들 압둘라였고, 어머니는 아미나였습니다.

홍해의 제다 항에서 내륙으로 약 85km 떨어진 메카는 무함마드 시대 아라비아의 가장 중요한 상업 및 영적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메카 사람들은 예멘에서 시리아로 향하는 대상(caravan)의 자금 지원을 통해 서방 지역에 식품 보존용 향신료와 비단, 기타 사치품을 공급했습니다. 아덴에서 인도 선박으로부터 이러한 물품을 구매한 상인들은 북쪽 메카로 운반했고, 그곳에서 다시 시리아와 이집트로 이동했습니다. 메카는 동방 무역로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인근 여러 지역에서 온 순례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메카로 향했습니다. 메카에 있는 유명한 검은 돌, 카바는 수백 년 동안 이교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지역 전승에 따르면,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아라파트 평원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쪽으로 걸어가 메카가 자리할 계곡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아담은 그곳에 네 벽으로 된 작은 구조물을 짓고, 한쪽 모서리에 검은 돌을 세웠습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노아의 대홍수 이후, 이 건물은 모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폐허를 파헤쳐 재건했습니다.

꾸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집의 기초를 쌓을 때, [아브라함은] '주님, 저희의 [이 의무를] 받아주소서. 당신만이 듣고 아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수라 2:127) 무슬림들은 카바가 지상에 세워진 최초의 신의 집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아라비아 반도에는 약 20개의 카바가 다양한 시대와 장소에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명하고 꾸준히 가장 깊은 존경을 받는 곳은 메카에 있는 카바입니다.

무함마드 시대에는 카바 주변에 예배와 중보를 위해 음력 1년의 각 요일을 상징하는 360개의 서로 다른 우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1. 무함마드의 어린 시절

무함마드는 태어나자마자 메카를 떠났습니다. 메카 사람들의 관습에 따라 그는 베두인족 어머니에게 젖을 먹여지기 위해 사막으로 갔습니다. 무함마드는 유모 할리마와 그녀의 부족 베니 사드와 함께 생애 첫 5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는 두 가지 이점을 얻었습니다. 건강한 체질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순수하고" 유창하다고 여긴 사막 부족 방언입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무함마드가 세 살이 되기 전에 "흰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배를 갈라 장기를 만졌다고 합니다.

할리마는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 발작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악령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미나는 할리마를 설득하여 무함마드를 다시 데려오게 했지만,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자 할리마는 무함마드가 다섯 살이 되었을 때 아이를 어머니에게 완전히 돌려보냈습니다.

무슬림들은 이 초기 경험을 두 천사가 무함마드를 정화하고 그의 메시지를 위해 준비시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장 94:1-3

우리가 당신의 가슴을 넓혀주고, 당신의 등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덜어주지 않았나요?

무함마드의 아버지 압둘라는 무함마드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여섯 살이었을 때, 어머니는 그를 11일 동안 데리고 갔습니다.

보로네즈

사라토프

무함마드

키에프

악튜빈스크 볼

리비우

향 아르카르까지 북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카자흐스탄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의 80세 할아버지인 몰도바 출신 압둘 무탈리브가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프룬제에서 2년 만에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무함마드는 그의 삼촌인 아부 탈리브에게 맡겨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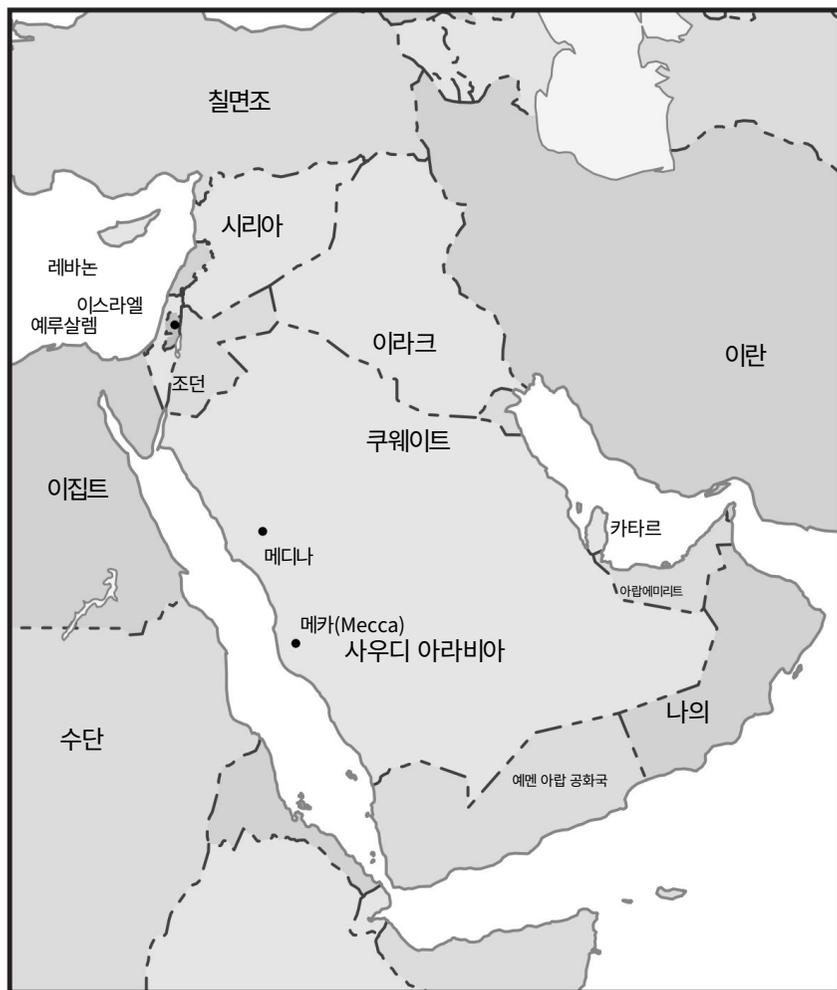
아랄해

크라스노다르

코소바차리아 여행 무함마드의 초기

생애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부분 전통적이며 그루지야

우즈베키스탄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람

양치류

와우

에티오피아

우간다

캄팔라

케냐

모가디슈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가 열두 살 때 삼촌 아부 탈리브와 함께 시리아로 가는 대상 여행에 동행했으며, 그 여행은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시리아 기독교인들과 처음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꾸란에 나타난 기독교의 모습은 이 여행에서 형성된 인상에서 유래했을 것입니다. 무함마드가 초기 진리 탐구의 진지함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충실히 따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전승에 따르면, 그는 기독교 수도사와 친분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구자 윌리엄 뮤어 경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인류를 자신과 화해시키신다는 계시라는 복음의 단순한 메시지 대신, 삼위일체라는 신성한 교리가 여행자에게... 공격적인 열정으로 강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숭배는 너무나 노골적인 형태로 드러났기에, 마호메트의 마음속에는 그녀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은 아니더라도 여신으로 여겨졌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ⁱⁱⁱ

3. 숨겨진 세월

무함마드의 열두 번째 생일에서 스물다섯 번째 생일까지의 기간은 "숨겨진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메카 인근 언덕에서 양과 염소를 몰았을 것이고, 그 지역의 다른 소년들도 그랬을 것이며, 아마도 다른 대상 여행도 떠났을 것입니다. 당국자들은 이웃과 친구들이 그를 내성적이고 절제된 사람으로 여겼다는 데 동의합니다. 윌리엄 뮤어 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마호메트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는 메카에서 사흘 거리에 있는 한 장소에서 매년 열리는 박람회(에)에 참석하곤 했는데, 그곳에서 아랍 풍습의 특징인 시와 수사학의 허영심 넘치는 경연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이 박람회(에)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만나 그들의 견해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훗날 그는 나즈란의 주교 코스를 만나 그의 입에서 "아브라함의 가톨릭 신앙에 대한 설교"를 들었던 것을 만족스럽게 회상하곤 했습니다.

세련된 정신과 섬세한 취향을 타고났으며, 절제적이고 명상적인 그는 많은 것을 자기 자신 안에서 살았고,

그의 마음속 깊은 생각들은 분명 저급한 사람들이 야한 스포츠와 방탕에 쏟는 여가 시간을 채워주었을 것이다. 이 겸손한 젊은이의 훌륭한 인품과 명예로운 태도는 동료 시민들의 찬사를 받았고, 만인의 동의를 얻어 그는 알-아민, 즉 "충실한 자"라는 칭호를 얻었다.

4.

4. 첫 번째 아내, 카디자

무함마드는 25세 때 카디자라는 부유한 과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에 충실했고, 그녀의 대상(隊商)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자격으로 그는 다시 북쪽 땅을 방문했는데, 적어도 다마스쿠스와 알레포까지는 갔습니다. 카디자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아 여동생을 보내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무함마드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카디자의 아버지는 승낙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카디자는 잔치를 준비하고, 아버지가 술에 취하자 소 한 마리를 도살하여 카디자의 사촌이자 메카의 목사인 와라카 이븐 나우팔에게 결혼식을 올리게 했습니다. 카디자는 무함마드보다 열다섯 살 많았고, 이전 결혼에서 딸 하나와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무함마드에게 아들 둘과 딸 넷을 두었습니다.

딸들은 살아남았지만, 아들들은 유아기에 죽었습니다.

5. 첫 번째 계시록

결혼으로 얻은 부와 명예 덕분에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열리는 시민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고, 사색할 여유도 있었습니다. 깊은 명상에 잠긴 그는 종종 며칠씩 외딴 사막 언덕 동굴에 은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카에서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하라 산의 한 동굴에 머물던 그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무함마드의 첫 전기 작가인 이븐 이샤크의 기록에 따르면, 미래의 예언자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천사 지브릴(가브리엘)이 나타나 "암송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놀라고 두려웠던 무함마드는 "무엇을 암송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천사가 그의 목을 잡아 질식시키는 듯 목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사는 다시 "암송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무함마드는 다시 천사의 손아귀에 안겼다. "암송해라!" 천사가 말했다.

십자가와 초승달

세 번째로 명령했다. "피의 응고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님의 이름으로 낭송하라! 낭송하라! 그대의 주님은 가장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을 펜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수라 96:1-5)

무함마드는 이 경험을 후에 참신 알라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이름은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히브리어 엘로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반쯤 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주변을 둘러보며 아내에게 돌아왔습니다. "내 안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아." 그는 외쳤습니다. "찬물을 좀 가져다주게. 어쩌면 그 뜨거운 불길을 꺼뜨릴지도 몰라." 카디자와 하인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남편에게 부었습니다. 그의 몸속의 이상한 열기를 식히려면 여러 개의 양동이도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카디자는 두꺼운 망토로 그를 감싸 안아 침대에 눕혔습니다.

6. 무함마드의 계시의 본질

무함마드의 동시대인들은 그가 계시를 받은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븐 사드

영감이 떠오르는 순간, 예언자는 불안감에 휩싸여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술주정뱅이나 잠에 깬 사람처럼 땅에 쓰러졌고, 가장 추운 날에는 이마에 땀방울이 굽게 맺혔습니다. 심지어 암낙타를 타고 있을 때 영감을 얻는다면, 그는 걱정적인 흥분에 휩싸여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다리를 뻗뻗하게 뻗었다가 마치 떨어질 것처럼 이리저리 휘젓곤 했습니다. 겉보기에 영감은 예언자에게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갑자기 내려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영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옵니다. 때로는 지브릴이 마치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듯 저에게 계시를 전해주는데, 이는 쉽습니다. 또 다른 때는 마치 종소리처럼 제 가슴을 꿰뚫고 저를 찢어발기는 듯합니다. 이것이 저를 가장 괴롭힙니다."

무함마드는 자신의 흰머리가 "무서운 수라"가 그에게 준 시들게 하는 효과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타바리

계시가 그에게 찾아오면, 그는 격렬한 동요 상태에 빠지곤 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서 담요를 덮고 있다가 나중에 땀을 뻘뻘 흘리며 나오곤 했습니다.vi

이븐 한발

이 과정은 때때로 코골이와 얼굴 붉어짐을 동반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영감의 형태로 인식되었고, 아무런 준비 없이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식사 중에 받은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으로 신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한 후, 방해받을 때 손에 들고 있던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또는 설교단에 서 있을 때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계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매우 초기의 것으로 보이는 계시에서 무함마드는 "담요 속의 남자" 또는 "포위된 남자"로 불립니다.7

오바다 이븐 아스-사미트

영감이 선지자에게 내려오자 그는 그 때문에 괴로워했고 그의 얼굴은 어두운 색으로 변했습니다.

또 다른 출처에서는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는 동안 머리를 숙였고 그러자 그의 동료들도 따라 했으며, 계시가 그치자 다시 머리를 들었다고 설명합니다.

무함마드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아이샤는 알-하리스 이븐 하삼이 예언자에게 "신의 사자여, 영감은 어떻게 오는가?"라고 물었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이에 무함마드는 "종소리처럼 가끔씩 영감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제게 가장 가혹한 형태입니다. 그런 다음 영감은 사라지고, 천사가 한 말을 제게 남습니다. 때때로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말을 건네는데, 저는 그 말을 기억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샤는 몹시 추운 날 영감이 그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영감이 사라질 때 그의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고 말했습니다.

7. 계시의 중단

무함마드는 첫 계시 이후 한동안 더 이상의 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알-부하리는 아이샤의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알라의 사도에게 신의 영감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디자는 그를 따라 (그녀의 사촌에게)

와라카 이븐 나우팔은 그녀의 부모 삼촌의 아들로, 이슬람 이전 시대에 기독교로 개종하여 알라가 원하는 대로 아랍어로 복음서를 썼습니다.

카디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 나의 사촌이여, 당신의 조카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예언자는 자신이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와라카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알라께서 모세에게 보내셨던 바로 그 나무스입니다. 제가 젊어서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쫓아낼 때까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라의 사도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낼까요?" 와라카가 긍정하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왔다가 적대적인 대우를 받은 사람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이 쫓겨나는 날까지 제가 살아 있다면, 저는 당신을 강력히 지지하겠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와라카가 죽자 신의 영감도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예언자께서는 우리가 들은 대로 매우 슬퍼하셔서 여러 번 높은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릴 때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오, 무함마드여, 당신은 진실로 알라의 사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시의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그는 예전처럼 행동했습니다.

무함마드 수베이는 그의 책에서 무함마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시의 중단은 섭리의 지혜에 근거했습니다. 그에 따른 압력은 이미 예언자의 육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육신은 그렇게 빠른 반복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 그 간격은 필요했습니다.

해설가들은 이 공백이 6개월에서 3년까지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다양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두 번째 계시가 내려졌는데, 이는 쿠란에 수라 74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라에 관하여, 알-수유티는 그의 책 아스바브 알-누줄에서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무함마드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걸어가던 중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눈을 들어 보니 하라에서 제게 온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의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땅에 쓰러졌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옷을 두른 네[무함마드]야, 일어나 경고하라! 네 주를 찬양하라! 네 옷을 깨끗이 하고 모든 더러움을 멀리하라."

다른 자료에 따르면, 무함마드는 이후 가족에게 가서 "저를 감싸 주세요, 감싸 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 카디자는 그의 부름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믿고 격려했으며, 그의 첫 번째 개종자가 되었습니다.

무함마드 자신도 때때로 자신의 계시의 출처를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카디자는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영의 특성을 시험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녀는 무함마드를 먼저 자신의 오른쪽 무릎에 앉히고, 그다음 왼쪽 무릎에 앉혔는데, 두 자세 모두에서 환영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를 무릎에 앉히고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영은 즉시 사라져 겸손함과 덕을 증명했습니다. "기뻐하렴, 나의 사촌이여." 카디자는 외쳤습니다. "주님께 맹세하건대, 그는 천사이자 악마가 아니니라."^{xii}

8. 추종자가 늘어나고 박해가 시작됩니다.

무함마드의 초기 추종자들은 그의 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카디자, 자이드 이븐 하리타(카디자가 무함마드에게 준 기독교 가문 출신 노예로, 무함마드는 카디자를 해방시키고 입양했습니다), 움 아이만(무함마드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노예), 그리고 무함마드의 사촌 알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후 아부 바크르, 우마르, 우스만과 같은 사람들이 이 운동의 미래 지도자들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교 신앙을 버리기를 꺼려했던 무함마드의 부족원들은 새로운 종파를 박해했습니다. 그 결과 무함마드의 추종자 15명이 홍해를 건너 에티오피아로 갔는데, 그중에는 무함마드의 딸 로카야와 그녀의 남편 우스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티오피아 왕의 환영을 받고 3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놀랍게도 곧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십자가 와 초승달

그들은 메카가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믿었습니다.

극심한 압박에 시달리던 무함마드는 메카인들과 타협을 본 듯합니다. 그는 세 명의 지역 여신, 즉 "라트, 우타, 마나트, 그리고 세 번째 여신"(수라 53:19, 20)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계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지극히 고귀한 두 루미들이여! 진실로 그들의 중재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는 몸을 굽혔고, 메카인들도 모두 몸을 굽혀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전에는 우리 신에 대해 좋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라는 곧 예언자를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대 이전에 사자나 예언자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욕망을 품자 사탄이 그의 욕망에 어떤 일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알라는 사탄이 넣은 것을 무효화하십니다. 그러면 알라는 당신의 징조(계시)를 확립하시니, 알라는 전지전능하시며 지혜로우십니다." (수라 22:52)

무함마드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속게 되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함마드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그가 여신들의 중재에 대한 언급을 철회하자 메카인들은 분개하여 무슬림과의 통혼과 상업 관계를 금지하는 등 박해를 심화시켰습니다. 무함마드의 권고에 따라 더 많은 추종자들, 총 100여 명이 에티오피아로 도피했고, 그 후 2~3년 동안 메카인들은 예언자를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욕의 대부분은 꾸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무함마드가 "모든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믿으려 한다"(수라 9:61)고 말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악령에 사로잡혔다"(수라 15:6)고, "사기꾼"(수라 16:101)이며, "미친 시인"(수라 37:36)이고 "마법에 걸렸다"(수라 17:47)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예언을 "그가 꾸며낸 헛된 꿈"이라고 일축하며 "그는 시인일 뿐이다. 옛 시인들처럼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 주도록 하자"(수라 21:5)고 비난했습니다. 꾸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도왔다"(수라 25:4)고 불평했습니다.

9. 무함마드는 격려를 받았다

메카 금지령은 무함마드가 선교 활동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마침내 해제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디자가 사망했고, 무함마드의 삼촌인 아부 탈리브도 곧 사망했습니다. 궁핍한 상황 속에서 무함마드는 양아들 자이드와 함께 메카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타이프르 가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타이프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가와서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다치게 했습니다.

메카로 돌아가는 길에 무함마드는 진(초인적 영적 존재)들이 그를 에워싸고 계시를 듣는 환상을 보았고,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수라 46:29, 72:1,2 참조).

이 어려운 시기에 무함마드는 가장 극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부 라크 (알 타바 리) 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야간 여행 (이스라) 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부라 크는 노새보다 작고 당나귀보다 크며, 여자의 머리와 공작의 꼬리를 가진 날개 달린 동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함마드는 아브라함, 모세, 예수를 인도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로써 자신이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립한 후, 하늘로 승천 (미 라즈)했습니다.

대부분의 무슬림 신학자들은 부 라크(Buraq)가 영혼이 아닌 육체를 운반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스라 (Israa, "밤의 여정")와 미라즈 (Mirraaj, "하늘로의 승천")가 육체적 경험이었다는 정통 적인 견해를 취합니다. 무함마드는 천사 지브릴(가브리엘)의 호위를 받아 하늘로 올라갔고, 각 하늘에서 그들은 초기 신의 사자 중 한 명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는 아담, 두 번째 하늘에서는 예수와 세레 요한, 세 번째 하늘에서는 요셉, 네 번째 하늘에서는 이드리스(에녹), 다섯 번째 하늘에서는 아론, 여섯 번째 하늘에서는 모세, 일곱 번째 하늘에서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마침내 무함마드는 가장 높은 하늘, 신의 면전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어떤 하디스에 따르면 그는 신을 직접 보고 7만 번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절

밤에 성지 (메카) 에서 가장 먼 성전(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하여 그분의 종을 인도하신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성전의 주변을 축복하여 우리의 경이로운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10. 히즈라

서기 622년, 메카에서 13년간 설교했지만 실패한 후 무함마드는 이미 여러 추종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야스리브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카라반(caravan)을 타고 약 400km를 10일에서 12일 정도 이동했습니다. 이 여정은 히즈라 (Hijra, "도피")라고 불리게 되었고,

십자가 와 초승달

이슬람 시대의 시작으로, 이슬람력에서는 각 해를 "AH" 즉 "히즈라 이후"로 지정합니다.

야스리브에서 새로운 신앙이 너무나 빨리 퍼져나가자 무함마드는 나중에 그곳의 이름을 메디나(예언자의 도시)로 바꾸었습니다.

메디나에 도착하기 전, 무함마드는 알라의 유일성을 설파하고 심판의 날을 경고하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새로운 신앙의 영적 수장일 뿐만 아니라 입법가이자 군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쿠란의 수라(sura)에 분명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 만남의 장소는 무함마드 자택의 넓은 안뜰이었습니다. 이 안뜰 주변에는 햇볕에 그늘린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있었고, 무함마드의 아내들은 각각 크기가 똑같은 방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그의 추종자들을 위한 다른 집들이 지어졌습니다.

11. 무함마드의 아내들

카디자가 사망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무함마드는 두 명의 다른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가정에는 더 많은 아내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이나브는 그의 양아들 자이드의 아내였습니다. 또 다른 아내 사피야는 유대인이었고, 또 다른 아내 마리아는 콥트교 신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함마드가 성경과 유대-기독교에 더욱 깊이 접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신은 무함마드의 일부다처제를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허락하셨습니다.

33장 50절

오 예언자여! 네가 지참금을 지불한 아내들과 알라께서 전리품으로 주신 아내들 중 네 오른손이 소유한 아내들, 그리고 아버지 쪽 삼촌의 딸들과 아버지 쪽 고모의 딸들, 어머니 쪽 삼촌의 딸들과 너와 함께 이주한 어머니 쪽 고모의 딸들, 그리고 예언자에게 자신을 바치고 예언자가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신앙을 가진 여성도 허락하노라. 이는 오직 너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지 다른 신앙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노라.

내가 굵게 표시한 문구를 주목해야 합니다. 무함마드는 이 라이선스를 완전히 준수합니다. 그의 아내들의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디자 빈트 쿠와일리드. 무함마드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아내로, 약 25년간 그와 함께 지냈다.
- 사우다 빈트 자마. 이슬람을 받아들인 최초의 여성 중 한 명. 무함마드는 카디자가 죽은 지 한 달 후인 서기 620년경에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젊지 않았고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찼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와 이혼했지만, 그녀는 거리에서 그를 멈춰 세우고 다시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소망은 심판의 날에 그의 아내로 부활하는 것이라며 간청했습니다. 무함마드는 동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라 4장 12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자가 남편의 학대나 버림을 두려워한다면, 그들 사이에 평화를 맺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평화가 더 낫습니다."

무함마드는 사우다를 "가장 긴 팔을 가진" 아내라고 부르곤 했는데, 이는 그의 아내들 중 가장 자선적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 아이샤 빈트 아부 바크르. 무함마드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녀는 아홉 살 무렵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부인의 집에 갔습니다. 무함마드가 죽었을 때 그녀는 열여덟 살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디스 서술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녀는 무함마드의 입에서 직접 전해진 하디스가 1,210개에 달합니다.

그가 죽은 뒤, 그녀는 종종 신학과 법학 문제에 관해 자문을 구했다.

- 하프사 빈트 우마르. 무함마드는 서기 625년경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무슬림의 미덕으로 유명합니다.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하프사는 다른 아내들에 맞서 아이샤 편을 들었습니다.
- 자이나브 빈트 쿠자이마. 두 번이나 과부가 된 그녀는 무함마드가 하프사와 결혼한 해에 무함마드와 결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대했기 때문에 움 알-마사킨("가난한 이들의 어머니")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 움 살라마. 무함마드는 남편이 죽은 후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와 아내가 되어 달라고 청했는데, 아마도 서기 628년경이었을 것이다.
- 자이나브 빈트 자흐쉬. 그녀는 무함마드에게 청혼했지만, 무함마드는 그녀를 해방 노예이자 양아들인 자이드 이븐 하리타에게 주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자이드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서기 625년, 자이드는

그녀를 무함마드의 아내로 삼기 위해 이혼했다.

이에 대한 신의 허락을 얻기 위해 무함마드는 수라 33장 36-39절의 구절을 받았습니다. 자이나브는 예언자와 결혼했을 당시 약 35세였고, 약 5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 주와이리에 빈트 알-하리스. 유대인 부족 베니 무스탈라크 출신. 유대인 남편 사프완 이븐 말리크가 무슬림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자 무함마드는 그녀를 해방하고 결혼했습니다.
- 사피아 빈트 후야이. 유대인 부족 카이베르 출신. 그녀의 아버지, 오빠, 남편은 살해당했고, 그녀는 무슬림들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녀를 해방시켜 결혼했습니다.
- 음 하비바. 전통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왕은 그녀를 무함마드에게.
- 콥트교도 마리아. 이집트 총독은 마리아와 그녀의 여동생 세린을 무함마드에게 선물로 메디나로 보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서기 629년경 아들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무함마드는 그녀를 해방하고 합법적인 아내로 삼았습니다.
- 라이하나 빈트 자이드. 베니 쿠라이자 부족 출신의 유대인 여성. 사피아처럼 그녀의 남편은 전투에서 전사했고, 그녀는 포로로 잡혔습니다.
- 마이무나 빈트 알-하리스. 하와진 부족 출신. 첫 남편과 이혼했고, 두 번째 남편이 사망하여 무함마드의 마지막 아내가 되었습니다.

12. 초기 이슬람 전쟁

(a) 바드르 전투

메디나에는 5개 부족이 있었는데, 아랍 부족이 2개, 유대인 부족이 3개였습니다. 도시 주변의 물을 준 정원은 모든 사람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농경지에 물을 덜 물이 부족해졌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함마드는 도시 근처를 지나가는 메카 대상들을 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시리아에서 메카로 향하던 약 천 마리의 낙타 행렬을 매복 공격했습니다.

바드르 전투로 알려진 이 공격에서 무함마드의 군대는 훨씬 더 큰 규모의 메카 군대를 기습 공격하여 압도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데리고 귀국했습니다.

전리품과 수많은 포로들. 무함마드의 계시는 이미 이 상황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다.

8장 41절

너희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무엇이든 그 중 5분의 1은 알라와 사자를 위한 것이다.

포로들은 수갑을 채웠고, 두 명은 처형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명이 왜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지 묻자, 무함마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라와 그의 예언자에 대한 당신의 적대감 때문입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제 눈을 위로해 주신 신께 감사드립니다."

(b) 우후드 전투

이에 대응하여 메카인들은 군대를 모아 625년 우후드에서 무슬림에게 큰 패배를 안겼습니다.

많은 무슬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함마드 자신도 헬멧 고리가 뺨에 맞아 입술이 찢어지고 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함마드의 전기 작가 이븐 히삼은 무함마드의 얼굴에서 피가 씻겨 나가자 그가 이렇게 외쳤다고 기록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예언자를 이렇게 대하는 백성이 어떻게 번영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분노가 그분의 사도의 얼굴에 자신의 피를 뿌린 자들에게 타오르기를!"

그러나 메카 군대가 승리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이러한 좌절은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갈등의 양상이 형성되었고, 새로운 종교의 군대가 성장함에 따라 주변 부족들은 정복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함마드는 적군이 연합하여 이슬람을 무너뜨리기 전에 적군을 분산시키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추종자들과 그들의 공통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칼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의 제자들은 걸보기에는 모두 전멸되었을 것이고, 그의 종교는 요람에서 질식사했을 것이며, 그 자신도 그의 저명한 전임자와 같은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꾸란의 여러 구절은 침략을 옹호합니다.

2장 190, 191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되, 범법하지 말라. 하나님은 범법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을 발견하는 곳마다 죽이고, 있는 곳에서 쫓아내어라.

십자가 와 초승달

그들은 너희를 쫓아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은 살인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9장 36절

모든 일에서 신을 신과 합치는 자들을 공격하라. 그러나 신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라.

무함마드 수베이는 예언자의 군사 작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무함마드의 전기 작가들은 그가 참전한 총 전투 횟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이 전투들이 20회에서 27회 사이였다고 주장합니다. 우후드 전투에서 그는 우바이 벤 칼라프를 직접 죽였습니다. 그가 전투에 파견한 사리아는 47명이었습니다. 사리아는 50명에서 400명 사이의 병사로 구성되었습니다.

(c) 디치 전투

서기 627년, 우세한 메카 군대가 메디나를 포위했습니다. 페르시아 동료 살만의 제안에 따라 무함마드는 도시의 무방비 지역 앞에 큰 참호를 팠습니다. 그리하여 이 오랜 전투는 "해자 전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자 또는 참호의 전문 용어가 아랍어가 아닌 페르시아어라는 사실은 이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합니다.

(d) 이후의 탐험

그중에는 쿠라이자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700명의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 살해당했고,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카압의 학살에 대해 불평하자, 무함마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카압은 그의 선동적인 언행과 악한 시로 나를 불쾌하게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 누구라도 같은 짓을 한다면, 진실로 칼이 다시 풀려날 것입니다."xix

(e) 메카를 극복하다

히즈라 이후 7년째까지 여러 부족과의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해 무함마드는 메카의 카바 신전 순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의 야망을 이루기까지는 1년이 더 걸렸고, 후다이비에에서 평화 협상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메카인들이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고, 무함마드는 고향 도시를 점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그의 만 명의 군대가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반대 없이 카바 신전의 우상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무함마드는 그 유명한 검은 돌을 보존했고, 이 돌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무슬림 순례의 중심지로 메카에 남아 있습니다.

메카를 점령한 직후, 무함마드는 어린 아들 이브라힘을 잃는 깊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이브라힘의 어머니는 콥트교 노예 마리아였고, 이브라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랍과 유대 민족의 조상으로 여겨지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세 유일신교에서 "신앙의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13. 새로운 키블라

메카 함락은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슬람 초창기에는 무슬림들이 매일 기도를 드리 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메카 함락 후, 그들은 카바 신전을 향해 기도했고, 그 모습은 지금까지도 그대로입니다.

꾸란의 세 구절은 기블라 (기도의 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2장 125절

동쪽과 서쪽은 모두 알라께 속합니다. 어느 쪽으로 향하든 알라의 얼굴이 거기에 있습니다.

2장 142절

아브라함이 서 있던 곳을 예배의 장소로 채택하세요.

2장 144절

우리는 당신이 하늘을 향해 얼굴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쁘게 할 키블라를 향해 당신을 돌릴 것입니다. 불가침의 성소를 향해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얼굴을 그곳으로 돌리십시오.

무슬림 신학자들은 세 번째 구절이 앞의 두 구절을 폐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무함마드 자신의 사고방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종교를 받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기독교인 모두를 "아흘 알 키تاب(Ahl al-Kitab,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증명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실제로 꾸란은 무함마드에게 그들에게 양보하라고 지시합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10장 95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여러분보다 먼저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무함마드는 처음에는 자신의 사명을 단순히 개혁 운동이자 유대-기독교 종교의 연장선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그의 태도는 완고해졌습니다. 무함마드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자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들이 무력으로 저항하자 실망은 적대감으로 변했습니다. 쿠란의 후반부 수라들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에 대한 이슬람의 적대 정책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14. 무함마드의 죽음

메카가 함락된 다음 해, 여러 부족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이슬람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했습니다. 대부분의 부족은 이슬람을 자신들의 종교로, 무함마드를 정치적 지도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쿠란의 수라(sura)들은 계속해서 제시되었고, 무함마드는 새롭게 정복한 메카로 성대한 순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예수를 넘긴 나이였고, 사막 군사 캠프의 혼란과 고된 생활은 그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병이 났고, 메디나로 돌아온 후에도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병중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 하심 왕조의 요르단 왕국이 있는 지역에 십자군을 파견하고, 모스크 설교단에 올라 추종자들에게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그 후, 그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아이샤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낙원에서 영원을! 용서하소서!"라고 중얼거린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망 추정일은 서기 632년 6월 8일입니다.

처음에 그의 추종자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우마르 이븐 알카타브가 그들의 지도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최면 상태에 있다는 메시지로 군중을 진정시키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부 바크르는 이 말을 듣고 방에서 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함마드를 숭배하는 자는 무함마드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알라를 숭배하는 자에게는 알라가 살아 계시고 죽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비평가들이 무함마드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세상에 그와 같은 수준의 종교 지도자가 거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수억 명의 추종자들의 헌신으로 입증된 그의 지속적인 영향력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임을 확증합니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랍인이자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III. 무함마드는 성경에 예언되었는가?

꾸란은 ~~무함마드의~~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7장 157절

그들은 문명한 선지자인 사도를 따르며, 그들이 자신의 [성서] 인 토라와 복음서에서 언급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수의 입에서 나온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인용합니다.

61장 6절

오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나는 너희에게 보낸 알라의 사자이다. 나는 토라에서 내 앞에 계시된 것을 확증하고, 나 뒤에 올 사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의 이름은 아흐마드이다.

또한 아랍인 이븐 사리야(Ibn Sariya)는 선지자의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책에 마지막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시작을 너에게 말하겠습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르심, 예수께서 나에게 대해 하신 예언,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본 환상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어머니들은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어머니에게서 빛이 나와 시리아의 궁궐들을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xx

무슬림 학자들은 무함마드의 도래에 대한 예언을 찾기 위해 성경을 탐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인용하는 가장 중요한 두 구절, 즉 신명기 18장 18절과 요한복음 14장 16, 17,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사도행전 1장 4, 5절에 나오는 파라클레토스 에 대한 신약성서의 언급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1. 구약성경에 근거한 주장들

문제의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18:18

내가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키리니, 내 말을 그의 입에 넣어 주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무슬림들은 여기에 묘사된 예언자가 바로 무함마드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들은 세 가지 주장을 제시합니다.

- 꾸란은 무함마드의 입에 담긴 신의 말씀입니다.
- 무함마드는 이스마엘의 후손이었으므로 유대인의 형제.
- 무함마드는 모세와 같았습니다.

첫 번째 요점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넣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예레미야 1: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저는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요한복음 17: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8장 18절은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된 선지자에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요점은 무함마드가 유대인의 형제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함마드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면, 그는 유대인의 형제가 아니라 사촌이라고 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너희 위에 왕으로 삼을 것이요, 너희 형제가 아닌 이방인을 너희 위에 세우지 말라”(신명기 17:15)고 말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유다 왕족 출신이셨기 때문에, 신명기 18장 18절에 예언된 선지자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 번째 요점은 무함마드와 모세 사이의 강한 유사성을 강조합니다. 무슬림들은 모세와 무함마드가 모두 인간 부모에게서 태어나 땅에 묻혔지만, 예수는 기적적으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 승천했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모세와 무함마드는 입법자, 군사 지도자, 그리고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배척당하고 망명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종교적, 세속적 지도자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우마르가 팔레스타인을 즉각적이고 성공적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슬림들은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도 예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렸습니다. 성경은 종종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마태복음 13:57 참조).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하늘에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과 모세의 관계는 매우 강합니다.

또한, 모세와 예수 사이에는 무함마드에게는 없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는 유대인이었고, 무함마드는 이스마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예수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이집트를 떠났지만, 무함마드는 이집트에 간 적이 없습니다. 특히 신명기의 후기 구절을 살펴보면 모세와 예수가 연결되는 세 가지 주요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4:10-12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아시고,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것과 같은 선지자가 없었으며, 모든 위대한 권능과 모든 크고 두려운 일을 모세가 온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모세에 관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공감되는 세 가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a)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직접적인 중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보고 말씀하였다"(출애굽기 33:11). 심지어 쿠란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수라 4:164 참조).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선지자가 이 중보 사역에서 모세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습니다. "보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출애굽기 24:8).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모세가 제물의 피로 첫 언약을 확정했듯이, 예수님께서도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언약을 확정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고린도전서 11:25).

신명기 18장 18절에 예언된 선지자는

십자가와 초승달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이 새로운 언약을 중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히브리서 9:15).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아노니,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습니다"(요한복음 7:29).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마태복음 11:27). 그리고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습니다"(요한복음 6:46).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6, 9) 이와 대조적으로, 꾸란의 계시는 천사 지브릴(가브리엘)을 통해 무함마드에게 내려졌다고 합니다. 신은 결코 직접 계시를 전달하지 않으셨습니다. 무함마드도 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중재한 적이 없습니다.

(b)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여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둘 다 중보 사역을 확증하기 위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출애굽기 14:21). 예수님은 폭풍을 가라앉히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마태복음 8:27)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거센 폭풍을 단 한 번의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마가복음 4:39).

꾸란에 따르면 무함마드는 기적을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까. 수라 6장 37절에서 무함마드의 적들이 "어째서 그의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징조도 그에게 내려오지 않았는가?"라고 말했을 때, 무함마드는 신께서 원하시면 징조를 보내실 수 있지만, 아직 보내지 않으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언자는 "너희가 조급해하는 것은 내게 없다"(수라 6:57)고 시인했습니다. 이는 모세의 기적을 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록 모세의 기적이 그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유용했을지라도 말입니다. 메카에 있는 무함마드의 적들은 한때 그에게 "모세에게 보내졌던 것과 같은 징조가 왜 그에게는 보내지지 않는가?"(수라 28:48)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꾸란의 답은 징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징조를 거부했다면, 무함마드에게서 징조를 기대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c)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선지자임을 확증합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요한복음 5:46)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명기 18장 18절에 언급된 선지자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 스테반은 신명기 18장 18절을 인용하여 모세가 “의로우신 이의 오심을 미리 전한”(사도행전 7:37) 자들 중 하나임을 증명했습니다.

꾸란은 예언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어진 특권임을 인정합니다. 꾸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합니다.

6장 85절

우리는 그에게 이삭과 야곱을 주었고, 그들 각자를 인도했습니다. 노아도 우리가 인도했고, 그의 씨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과 욥과 요셉과 모세와 아론도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한 것에 보답합니다.

이 구절에는 이스마엘이나 그의 후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꾸란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49절

아브라함이 그들과 그들이 알라 외에 섬기던 자들에게서 돌아섰을 때, 우리는 그에게 이삭과 야곱을 주었고, 그들 각자를 예언자로 삼았다.

같은 내용이 수라 29장 27절과 21장 72절에도 나타납니다. 만약 이스마엘이 선택되었다면, 그의 이름은 분명 야곱의 이름 앞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꾸란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입니다.

2장 47절

오 이스라엘 자손아,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모든 세상보다 더 사랑하였음을 기억하라.

성경에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나 “택함받은”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 38:45-48

그리고 우리의 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하라. 그들은 능력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참으로 우리는 순수한 생각과 [내세의] 분향에 대한 기억으로 그들을 정화시켰다.

보라!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진실로 택함받은 자, 탁월한 자들이다. 이스마엘과 돌키플을 언급하여라. 모두 택함받은 자들이다.

십자가와 초승달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함란 암브리는 이 사건에 대한 유용한 요약물을 제공합니다. 그는 이전에 신명기 18장 18절을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예언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이 말씀[신명기 18:18]을 천천히, 그리고 진지하게 읽어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제 영혼에 속삭이셨습니다. "만약 무함마드와 모세의 유사점이 둘 다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라면, 그들은 다른 인류와만 유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예언의 진실성을 가리키는 단서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무함마드가 결혼했기 때문에 모세와 같았다면, 두 사람 모두 세상의 다른 대부분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무함마드가 예언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무함마드가 후손이 있다는 이유로 모세와 동일시된다면, 이 사실은 예언을 확정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함마드는 모세처럼 노년에 죽어 묻혔습니다. 만약 이 예가 예언의 의미를 증명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이 점 역시 유사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어 묻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 모세의 예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킨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실제로 저는 예수님과 모세 사이에 다른 사람들과는 공유되지 않는 몇 가지 두드러진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모세의 어린 시절에 파라오가 그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헤롯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유아기에 살해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파라오는 격노하여 모든 어린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 헤롯은 매우 화가 나서 어린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이 두 사람만이 이처럼 극심한 증오와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에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파라오의 딸이었던 요셉은 어린 시절 예수님을 보호했습니다. 어린 시절, 생명이 위협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보호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 모세는 고향을 떠나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 이집트에서 유배 생활을 하셨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어린 시절 이집트처럼 먼 나라로 피난을 가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신성한 사자로 봉사했을 때, 그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았습니다. 마치 살아 계신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진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지만, 예수께서는 그의 백성을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증거들을 통해 저는 신명기 18장의 독특한 예언이 무함마드가 예언된 선지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2. 신약성경에 근거한 주장들

무슬림들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여러 구절을 무함마드에 대한 예언으로 여긴다.

요한복음 14:16,17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을 수 없나니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26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곧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5:26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7

그러나 내가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사도행전 1:4,5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모이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내게서 그것을 들었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며칠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슬림들은 그리스어 단어 paracletos (“위로자”) 가 “상담자”, “옹호자”는 예수께서 원래 사용하신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페리클루토스(periklutos)로, "칭찬받는 자"를 뜻하는 아흐마드(Ahmad)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무함마드의 출현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수백 개의 신약 성경 사본에서 사용된 단어가 분명히 '페리클루토스'가 아니라 '파라클레토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주의 깊게 연구한다면, 파라클레토스에 대한 언급이 무함마드에 대한 예언이 될 수 없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보혜사(paracletos)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보혜사가 무함마드라면, 예수님께서 무함마드를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무슬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 파라클레토스는 영입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무함마드는 분명히 육신을 지녔고,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 예수께서는 보혜사의 오심을 예언하셨지만, 제자들에게도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함마드는 제자들보다 5세기 이상 뒤에 살았습니다.
-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승님께 순종하여 보혜사가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열흘을 기다렸고,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사도행전 2:4) 되었습니다. 무함마드가 오순절에 나타났다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예수님은 보혜사 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실 것이라 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무함마드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강림을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결하여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 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에 높이시매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32-33)

메카 대모스크 안뜰에 있는 작은 건물 로, 유명한 검은 돌이 있습니다. 카바는 순례와 예배의 중심지이며, 모든 무슬림이 기도할 때 향하는 곳입니다.

ii Gibb, HAR 및 Kramers, JH(편), 이슬람 소백과사전 (Leiden: EJ Brill, 1974), 하니피테스 주제.

iii 윌리엄 뮌어, 마호메트와 이슬람 (런던: 종교 소책자 협회, nd), 9쪽.

iv 윌리엄 뮌어, 앞의 책, 6, 7쪽.

v Ibn Sa'ad, Tabaqat, p. 131f.

vi Tabarī, 주석, xii, 9 및 xxviii, 4.

vii Ibn Hanbal, Musnad, iv, 222; 또한 56; iii, 21.

viii Ibn Hanbal, op.cit., vi, 163.

ix Mishkat al-Masabeeh, p. 1254.

x Bukhari, Sahih, Kitab al-Ta'abir Vol. 9, 하디스 111호.

xi Muhammad Subeih, Muhammad (카이로: Dar al-Thaqafa Al-Amma, 1957), p. 35.

xii Muhammad Subeih, op.cit., p.37.

xiii Al-Suyuti, Sura의 Asbab al-Nuzul 22:52.

xiv 타바리, I, 165.

xv 부하리, II, 147.

xvi Ibn Hanbal, Musnad, iv, 66.

xvii Kiddawi, Muhammad, pp.180f.

xviii Muhammad Subeih, op.cit., p.150.

19 Ibn Kathir, al-Bidaya wal Nihaya, vol. 4, 카압 살해 장.

xx 알-부카리, vol. 6, 키타브 알-마나키브. 이븐 한발, Musnad, vol. 4, 하디스 우트바.

xxi 함란 암브리, 신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택해 주셨다 (리론, 오스트리아: 좋은 길, nd), 11-15쪽.

확장 4 이슬람

1. 이슬람은 왜 그렇게 빨리 퍼졌을까?

이슬람의 급속한 확산을 가능하게 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
다양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대교는 무함마드 시대에 선교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유대인들은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유대 신화와 구약 역사를 혼 합하여 적용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 기독교 복음주의는 아라비아를 소홀히 했고, 이슬람이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 열려 있습니다.
- 유대교와 기독교는 전통 아랍 종교를 약화시켰고, 희석된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을 접목시켰는데, 무함마드는 이 중 많은 부분을 나중 에 자신의 가르침에 포함시켰습니다.
- 특히 기독교는 이슬람 신앙에 효과적으로 대항하는 데 실패했습니 다.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이단과 종파가 서로 경쟁하고 있었기 때 문입니다.
- 수도원 생활은 신자들을 사회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효과적인 그리스도인 의 존재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 무슬림 통치 하의 기독교인들은 차별적인 세금, 열악한 사회적 지 위, 그리고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압력으로 인해 그들은 신앙 을 버리고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 무함마드는 "아랍 반도에는 두 종교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로 인해 많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아라비아에서 추방되었다.
- 이슬람은 무함마드와 그의 후계자들의 우월한 군사력 덕분에 확산되었습니다. 사치와 내부 분열로 약화된 페르시아와 로마 제국은 무함마드 시대 이전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결하고 신앙에 자부심을 느끼며 고난에 익숙한 아랍인들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슬람의 군사적 승리를 목격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의 은총이 무슬림과 함께한다고 결론짓고 신앙을 버렸습니다.
- 이후 이슬람은 군사적 확장이 아닌 무슬림 무역로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아랍 상인들은 인도와 중국으로 이동하며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했습니다.

II. 네 명의 칼리프

1. 아부 바크르, 초대 칼리프

무함마드가 사망할 무렵 아라비아 반도는 사실상 이슬람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초대 칼리프, 즉 "예언자의 후계자"인 아부 바크르는 2년(서기 632-634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아랍 반도의 부족들은 메디나의 정치 중앙집권화에 항의하며 봉기했습니다. 아부 바크르는 바레인, 오만, 예멘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고, 패배자들에게 대한 그의 자비로운 처우는 지속적인 평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부 바크르는 633년 6월에 알히라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격파하고, 1년 후에는 아즈나다인 전투에서 팔레스타인을 격파했습니다.

2. 우마르, 두 번째 칼리프

서기 634년, 우마르가 칼리프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10년간 통치하며 인도 국경에서 북 아프리카까지 무슬림 제국을 확장했습니다. 우마르의 공정함과 충실한 의무 이행은 정복당한 많은 민족의 찬사를 받을 만했습니다.

칼리프가 된 첫해, 우마르는 야르무크 전투에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어 두 지역을 무슬림의 지배 하에 두었습니다. 이듬해 다마스쿠스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이 함락되었고, 곧이어 알레포와 안티오크도 함락되었습니다. 결국

서기 636년,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전체가 아라비아 정복자들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우마르는 636년에 이라크를 침공하여 2년 후 알카디시야 전투가 일어날 때까지 격렬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서기 637년 무렵, 이라크는 고대 니네베 유적지 건너편 강 건너편에 있는 모술까지 북쪽으로 점령당했습니다. 이듬해, 이라크에 바스라와 쿠파라는 도시가 건설되었고 아랍인들이 정착했습니다.

걸프 지역에서는 공세가 계속되어 서기 640년 이란 남부의 고대 도시 수스를 점령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대군은 서기 642년 네하완드 전투에서 마침내 패배했고, 이듬해에는 오늘날 테헤란 인근의 수도 바이가 함락되었습니다. 우마르는 일련의 추가 원정을 통해 이란의 외곽 지역도 정복하여, 천 년 전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제국을 사막 전사들이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마르는 서기 641년 이집트를 침공하여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했지만, 그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이집트 전역이 정복당했습니다. 북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영토를 확보한 것은 50년 만에 북아프리카 해안 전체를 집어삼킬 진격의 시작이었습니다.

3. 우스만, 세 번째 칼리프

이러한 대승을 거둔 후, 우마르는 노예에게 치욕적으로 살해당했고, 우스만이 그의 후계자로 선택되었습니다. 우스만은 12년간 통치했지만, 국고 관리에 소홀했고, 자신의 씨족 구성원을 국가 관리로 임명하는 데 편애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반란이 일어나 결국 그는 82세의 나이로 살해당했습니다.

우스만의 칼리프 통치 기간인 서기 651년에 무슬림 대표단이 중국 당나라 궁정에 파견되었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많은 상인들은 육로와 해로를 통해 이 광활한 땅에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4. 알리, 네 번째 칼리프

알리는 656년부터 661년까지 5년간 통치하면서 이슬람의 오랜 분열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우스만의 소유였던 무아위아를 임명했습니다.

십자가 와 초승달

시리아 총독으로 재임하던 알리는 무아위아에게 우스만의 암살자들을 기소하지 않아 통치 자격이 없다고 비난받았습니다. 알리는 수도를 메디나에서 이라크 쿠파로 옮겼습니다. 무아위아의 반란군은 무함마드의 미망인 아이샤를 낙타에 태워 군대 한가운데에 배치했습니다. 알리는 낙타 전투라고 불리는 전투에서 그들을 격파했습니다.

아이샤가 공개적으로 알리에게 반대했지만, 알리는 그녀를 존중하며 메디나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곧 무아위아는 다시 군대를 보내 알리를 공격했고, 이번에는 알리가 전사했다.

무슬림들은 분열되었습니다. 대다수는 무아위아를 따랐고, 이들은 카리지야 ("분리파")라고 불렸습니다. 다른 이들은 알리를 따랐고, 알리의 장남 하산을 칼리프의 합법적 후계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시아파 알리 ("알리의 당")라고 불렸습니다. 이후 무아위아는 하산에게 메디나 국고의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를 설득하여 물러나게 했습니다. 하산이 퇴위한 지 6개월 후, 그의 아내 중 한 명이 그에게 독약을 먹였고, 그는 사망했습니다.

시아파는 칼리프 지위가 무함마드의 가문에 남아야 한다고 믿었고, 하산의 동생인 후세인을 칼리프로 쿠파에 초대했습니다. 후세인은 가족과 소규모 군대를 이끌고 쿠파로 향했지만, 현재 바그다드 근처 카르발라에서 시리아에서 온 무아위아의 아들 야지드에게 발각되어 전사했습니다. 시아파와 후에 수니파로 알려진 하리지야파 사이의 분열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III. 이슬람 왕조

1. 우마이야 왕조

알리의 두 아들의 죽음으로 무아위아는 이슬람 정치의 유일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이라크, 이집트의 무슬림 군대가 정복을 계속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무아위아의 칼리프 왕조는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제 무아위아는 사실상 무슬림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달은 그는 아들 야지드를 후계자로 지명하여 왕조의 원칙을 이슬람에 도입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서기 661년부터 750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확장은 계속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1세기 동안 무슬림 제국은 로마 제국이 전성기 때 차지했던 영토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서기 711년, 무슬림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스페인으로 건너가 스페인을 거의 정복한 후, 720년 피레네 산맥을 넘어 프랑스로 진출했습니다. 서기 732년 투르 전투에서야 이슬람 군대는 샤를 마르텔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고, 이로 인해 이슬람의 북유럽 진출은 좌절되었습니다. 투르 전투는 무함마드가 사망한 지 불과 100년 후에 벌어졌습니다.

2. 아바스 왕조

시아파는 지도력을 되찾겠다는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서기 750년에 마지막 우마이야 왕조의 칼리프를 두 차례의 전투에서 물리친 후, 무함마드의 삼촌인 알-아바스의 후손을 쿠파의 칼리프로 세웠습니다. 새로운 아바스 왕조는 500년 이상(서기 750년부터 1258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서기 755년,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무슬림 병사들이 중국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받고 정착하여 종교를 확립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모든 성(省)에는 무슬림이 살고 있지만, 가장 많은 수는 북서부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무슬림은 일반 주민과 비슷하지만, 특별한 모자 챙과 허리띠와 같은 독특한 복장과 무슬림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관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평화, 정의, 번영을 확립하여 대중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통치 초기 350년 동안 그리스의 고대 학문과 철학 및 의학의 발전을 융합하여 세계 문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8세기 초, 초창기에는 무슬림 원정대가 옥수스 강 너머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했습니다. 서기 658년에는 인도가 공격받았지만, 11세기 초 가즈니의 마흐무스가 광범위한 정복을 단행할 때까지 그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13세기 무렵에는 인더스 강 하구에서 갠지스 강 삼각주까지 북인도 전역이 무슬림에게 함락되었고, 이슬람은 지구 둘레의 3분의 1에 달하는 광대한 영토를 장악했습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7세기 말엽, 이슬람 칼리프들은 기독교를 전국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나라인 아르메니아에 총독을 임명했습니다. 서쪽에서는 십자군 전쟁으로 이러한 패권이 잠시 위협받았습니다. 11세기에 지중해의 시칠리아와 몰타 섬들이 무슬림의 손에 넘어갔을 때, 유럽 기독교 세력은 이 섬들을 탈환했고, 서기 1099년에는 무슬림들을 예루살렘까지 몰아냈습니다. 기독교 유럽은 1187년 살라딘이 히틴 전투에서 승리할 때까지 성지를 지배했습니다. 그 후 동지중해 지역은 점진적이고 완전한 무슬림 세력으로의 회귀를 경험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은 기껏해야 일시적인 성공에 그쳤습니다. 더 나아가, 무슬림과 기독교인 사이의 적대감을 고착시키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상황은 두 종교의 대표자들이 결코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이슬람 국가들과 서방 국가들의 관계에도 여전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V. 주제 민족

이슬람의 "종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간주됩니다.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인도의 가장 먼 곳까지 확장해 나갔습니다. 15세기와 16세기에 이슬람은 자바 섬에 전파되어 곧 엄청난 수의 개종자를 확보했고, 이웃 섬인 수마트라 섬에서도 전파되어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동인도 제도의 다른 섬들로 퍼져 나갔습니다.

히즈라 8년째에 무함마드는 "피지배 민족"의 원칙을 도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원칙에 따라, 다른 종교의 특정 공동체는 무슬림 통치에 대한 복종을 나타내는 규정된 세금을 납부하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을 뜻하는 아랍어 단어는 지자(jizia)입니다. 이는 "처벌"을 뜻하는 어근 자자아 (jaza'a) 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은 불신앙에 대한 처벌이자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이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슬람이 지아라를 통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 유대교였습니다.

마기안, 사마리아, 사바에아. 이러한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 디미 ("보호하는 사람들") 라고 불렸습니다. 일부 유대교와 조로아스터교 집단은 이러한 지위를 받아들였지만, 가장 큰 집단은 동방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온갖 장애와 제약 속에서도 수 세기 동안 기독교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이슬람 정부 하에서 비무슬림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세금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칼리프 통치 하에서 무슬림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적 삶과 사적 삶 모두에서 제약을 받았습니다. 수라 9장 29절은 이러한 제약을 정당화하며 "그들이 공물을 거저 바치고 겸손해질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우마르 계약서는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이 무슬림 당국에 제출해야 했던 서한에 이러한 제한 사항 중 일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초안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우리의 목숨, 가족, 재산, 그리고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안전을 당신에게 요청했습니다. 굴욕을 감수하고라도 조공을 바치고, 밤낮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무슬림을 방해하지 말고, 3일 동안 그곳에서 그를 대접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문을 열어주고, 교회 안에서 나쿠스 [종] 를 가볍게 두드리고, 찬송가를 부를 때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그곳이나 우리 집에 숨어서 적의 스파이가 되지 말고, 교회, 수도원, 은둔처, 쉼을 짓지 말고, 낡은 것을 수리하지 말고, 무슬림 구역에 있는 어떤 곳에도 모이지 말고, 무슬림이 있는 곳 앞에서도 모이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초대하지 말고, 우리 교회나 무슬림의 길이나 시장에 십자가를 표시하지 말고, 꾸란을 배우지 말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지 말고, 우리 친척이 원한다면 무슬림이 되는 것을 막지 말고, 우리 앞에서 머리를 자르지 말고, 허리에 주나르를 두르십시오. 우리의 종교를 지키십시오. 복장, 외모, 안장, 인장에 새겨진 내용(아랍어로 새겨야 함)에서 무슬림과 닮지 마십시오. 그들의 쿠냐 (칭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우리가 만날 때 그들을 위해 일어서십시오. 그들의 길과 행보를 안내하십시오. 우리 집을 그들의 집보다 높게 짓지 마십시오. 무기나 칼을 소지하지 말고, 마을이나 여행 중에 착용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와 초승달

무슬림 땅에서; 와인을 판매하거나 전시하지 말 것; 무슬림들이 사는 길에서 우리의 시신으로 불을 피우지 말 것; 장례식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무슬림에게 가까이 데려오지 말 것; 무슬림을 때리지 말 것; 무슬림의 소유였던 노예를 소유하지 말 것. 우리는 이러한 조건들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동료 종교인들에게 강요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자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ii

이러한 종류의 법규는 일반적으로 장기간 또는 광범위한 영토에 걸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초창기에는 많은 공무원, 교사, 의료인이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집트의 콥트교, 터키의 아르메니아교, 이라크와 이란의 네스토리우스교를 포함하여 무슬림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존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었습니다.

V. 현대의 확장

1. 15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이슬람은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 퍼져 나갔는데, 처음에는 노예상인들에 의해, 후에는 평신도 선교사이기도 했던 상인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최근 선교 활동은 신앙 전파에서 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종교와 문화는 선택이든 강요든 엄청난 규모의 인류를 집어삼켜 인구 증가만으로도 매년 수백만 명의 이슬람 신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힘에 기여하는 또 다른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이슬람의 현대주의 분파는 소수이지만 적극적으로 개종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둘째, 무슬림 언론은 이슬람의 확산과 신도 교육 모두에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부유한 아랍 산유국들의 지원과 고(故) 아야톨라 호메이니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 아래 이슬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랍 정부들은 석유 달러를 활용하여 이슬람을 장려합니다. 이슬람 자체가 하나의 정부 체제이기 때문에, 무슬림 광신자들은 이슬람 샤리아 ("율법")가 엄격하게 시행되는 호메이니식 종교와 국가의 융합을 추구합니다.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처럼 이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시기 상조의 죽음을 맞기도 했습니다.

2. 미국 내 이슬람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 있는 새뮤얼 즈웨머 무슬림 연구소의 제임스 로메인은 한 기사에서 미국에서 이슬람이 매년 7~10%의 비율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약 50만 명의 무슬림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ⁱⁱⁱ 수십 년 만에 이슬람의 수는 수십만 명에서 거의 8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슬람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종교가 되었습니다. 많은 무슬림이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유학하며,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는 무슬림 학생회가 있어 전국적인 조직과 인터넷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은 도시 지역이지만, 미국 거의 모든 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도심 교회들을 매입하여 모스크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미국인들에게 그토록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임스 로메인은 다섯 가지 제안을 제시합니다.

- 무슬림들은 서구 사회가 파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믿는다. 이는 기독교가 실패한 종교이며 신의 진정한 종교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 무슬림들은 기독교가 인류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만 전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슬림들은 원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 무슬림들은 이슬람이 유일하고 참되며 보편적인 신의 종교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은 다른 모든 종교보다 우월하며 신의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 무슬림들은 이슬람이 순수함과 평화의 종교라고 믿습니다. 이슬람은 가족 중심적이며 여성과 어린이를 부도덕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슬람이 진출한 지역을 정화해 왔습니다. 이슬람은 개인과 가족을 부양하고 지원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 무슬림은 종교와 국가 간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이슬람 정부가 종교법을 제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슬람은 미국의 교육 및 정치 시스템을 통해 작용합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이슬람 학교를 열고 지방 및 국가 공무원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로메인은 동포들에게 이슬람에 대해 더 잘 알도록 권합니다. 그는 무슬림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무슬림을 더 사랑하라고 당부합니다. 기독교와 달리 이슬람은 무슬림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무슬림들 사이에서 사역을 장려하고, 교회가 무슬림 선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며, 기독교 증거를 지원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격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을 회심시키고 계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븐 하삼, 무함마드의 삶, 압둘 마시흐가 개정 및 확장함, 빌라흐, 생명의 빛, 1999, 2권, 305쪽.

ii 트리톤, AS, 칼리프와 그들의 비이슬람 신민(런던: Frank Cass & Co. Ltd.)
1974) 5-8쪽

iii 제임스 로메인, Missionary Monthly, 그랜드래피즈, 1999년 1월.

5 무슬림들은 민나

I. 이슬람 교리와 법률의 출처

우리가 나중에 다룰 이슬람 교리와 법률에 대해 세 가지 근원을 살펴본다.

- 하디스 (전통의 본체).
- 키아스 (법률 문제에 대한 비유로, 수니파에서는 꾸란과 하디스에 근거하고, 시아파에서는 이성에 근거함).
- 이즈마 (모든 이슬람 학자들의 합의).

1. 하디스

하디스는 이슬람의 두 번째 권위 있는 경전으로, 꾸란에 이어 두 번째로 권위 있는 경전입니다. 무함마드가 행한 일, 그가 허락한 일, 그리고 그가 명령한 일에 대한 전통적인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디스들은 집합적으로 행동 규범이자 법의 근거를 형성합니다.

하디스는 이슬람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수니파는 "꾸란의 구절이 하디스와 모순될 경우, 꾸란의 구절은 폐기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슬림의 사고방식에서 하디스는 (a) 이슬람 "전통"의 본질을 뒷받침하고 (b) 신뢰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체계를 통해 전승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슬은 종종 길다. 더 나쁜 것은 이슬람이 성장하고 분열됨에 따라 경쟁 세력의 관습이나 신념을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전통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슬람 3세기 중반에 이르러 전통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 수니파는 알곡과 겨를 가려내기로 결정했다.

십자가와 초승달

알부하리는 16년 동안 60만 건의 하디스를 경청했지만, 그중 7,275건만 신뢰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부 다우드는 50만 건 중 4,800건만 받아들였습니다. 1,000건이 넘는 하디스 모음집 중 수니파는 현재 단 6권만을 받아들이는데, 이 6권은 모두 무함마드 사후 3세기에 쓰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하리(870년 사망)의 컬렉션입니다. 무슬림(870년 사망) AD 875; 아부 다우드; (d. AD 888); 알-티르미디(d. AD 892); Al-Nasa'i (d. AD 915) 및 Ibn Maja (d. AD 886).

시아파는 예언자의 하디스뿐만 아니라 열두 이맘("지도자")의 언행 기록을 담은 다섯 권의 별도 경전을 받아들인다. 시아파는 자체적인 하디스 모음집을 만들었다. 그들은 수니파의 하디스를 권위자들의 사슬에서 단 하나라도 알리파에 속하지 않으면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 시아파에서 가장 중요한 하디스 모음집은 알 칼리니의 <알 카피 피 우술 알 딘>이다. 인용문은 널리 복사되고 있으며, 쿠란의 구절과 함께 건축 장식과 기념비 장식에 사용된다.

2. 케이스

논리학에서 유추란 다음과 같이 말하는 논증을 말합니다. A가 X에 대해 B와 유사하기 때문에 Y에 대해 B와도 유사할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이 원칙을 사용하여 꾸란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까지 꾸란의 가르침을 확장합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은 "마약 사용은 합법적이고 허용되는 것이니까, 아니면 금지되고 금지되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꾸란은 수라 5장 90절에서 '술을 마시는 것, 도박, 돌멩이, 점치는 화살은 사탄의 소행일 뿐이다. 성공하려면 이것들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며,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마약은 술이기 때문에 금지되고 금지되는 것입니다."

3. 이즈마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슬림들이 예언자의 동료들 사이에서 합의를 모색합니다. 합의란 더 엄밀하게는 2세기와 3세기 이슬람의 율법학자들과 울라마("신학자")들의 합의를 의미하며, 이들은 공동체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4. 무슬림 법 해석

이슬람 법 해석은 이즈티 하드(Ijtihad), 즉 구속력 있는 규칙을 확정하기 위해 인간 이성을 행사 하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네 개의 사법 관행 학파를 만들어냈습니다. 수니파는 이 학파의 창시자만을 권위 있는 존재로 인정하며, 네 번째 학파인 이븐 한발(Ibn Hanbal)의 사망 이후 개인의 재해석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네 명의 스콜라 학자들은 서기 750년에서 850년까지 활동했으며, 샤리아 ("율법") 발전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었습니다. 말리크는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에서 번성했고, 아부 하니파는 터키와 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샤피는 인도네시아와 동아프리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이븐 한발은 네 명 중 가장 관용적이지 않은 인물로 아라비아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5세기 동안 이 학파들은 만장일치로 동등한 정통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몇 가지 사소한 차이점이 있는데, 아부 하니파는 때때로 덜 엄격한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즉, 네 학파 모두 이슬람 국가 내에서 유대인이나 기독교인 모두 새로운 예배 장소를 건립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는 반면, 아부 하니파는 도시 외벽에서 최소 1마일(약 1.6km) 떨어진 곳에 그러한 건물을 건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는 또한 비아랍인들이 자신의 언어로 쿠란을 낭송하는 것을 허용하며, 실수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금식을 어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II. 무슬림의 신앙

수니파는 다섯 가지 신앙의 원칙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무슬림 이것들은 꾸란(주로 두 번째 수라)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1. 하나님

무함마드 시대에 아랍 반도의 최고신의 이름은 알라(Allah)였는데, 이는 히브리어 이름 엘로힘(Elohim)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는 이슬람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무함마드의 아버지 이름(압둘라, 문자 그대로는 "알라의 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바 신전은 바이트 알라 ("알라의 집")라고 불렸는데, 이 이름은 무함마드보다 수백 년 앞선 초기 아랍 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일신 숭배는

십자가 와 초승달

- 유대인, 기독교인 및 기타 아랍인에 의해 - 아랍 반도에는 무함마드 시대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무함마드는 아랍 반도에 유일신교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아니었고, 아랍인들에게 새로운 신을 소개했다고 주장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숭배하는 동일한 신만을 숭배하도록 동포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꾸란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에게 "우리의 신과 너희의 신은 동일하다"(수라 29:46)라고 선포합니다.

무함마드는 모든 거짓 신, 우상, 형상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알라가 유일하다고 가르쳤고, 아랍인들을 우상 숭배에서 해방시켰습니다.

112장 1-4절

일러 가로되, 그는 알라이시요, 영원하신 알라이시라. 그는 낱지도 아니하셨고, 낱아지지도 아니하셨으니, 그와 비견될 만한 이가 없느니라.

꾸란은 알라에 대한 철학적 정의를 어디에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라의 속성, 자질, 그리고 활동을 표현하는 이름, 묘사, 그리고 형용사구가 풍부합니다.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알라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 99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보다 더 많은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명칭들은 모두 꾸란이나 유효한 전통에서 사용됨으로써 공인되고 확립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라를 알-샤피("치유자")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알-타비브("의사")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꾸란이나 무함마드가 알라를 알-타비브라고 부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 신의 99가지 이름

1. 자비로운 분 (알-라흐만); 2. 자비로운 분 (알-라힘); 3. 왕 (알-말리크); 4. 가장 거룩한 분 (알-쿠두스); 5. 평화의 분 (알-살람); 6. 충실한 분 (알-무민); 7. 보호자 (알-무하이민); 8. 강력한 분 (알-아지즈); 9. 가장 강한 분 (알-자바르); 10. 거만한 분 (알-무타카비르); 11. 창조하는 분 (알-칼리크); 12. 만드는 분(알-바리); 13. 만드는 분 (알-무사위르); 14. 용서하는 분 (알-가파르); 15. 지배하는 분 (알-카하르); 16. 베푸는 분 (알-와하브); 17. 제 공하는 분 (알-라자크); 18. 여는 자 (알-파타흐); 19. 아는 자 (알-알림); 20. 제지하는 자 (알-카비드); 21. 퍼뜨리는 자 (알-바시트); 22. 억압하는 자 (알-카피드); 23. 높이는 자 (알-라피); 24. 높이는 자 (알-무이즈); 25. 굴욕시키는 자 (알-무질); 26. 듣는 자 (알-사미); 27. 모든 것을 보는 자 (알-바시르); 28.

통치자 (알-하킴); 29. 정의로운 자 (알-아들); 30. 미묘한 자 (알-라티프); 31. 깨달은 자 (알-카비르); 32. 인내하는 자 (알-할림); 33. 위대한 자 (알-아짐); 34. 용서하는 자 (알-가푸르); 35. 감사하는 자 (알-샤쿠르); 36. 고귀한 자 (알-알리); 37. 위대한 자 (알-카비르); 38. 수호자 (알-하피즈); 39. 제공하는 자 (알-무키투); 40. 계산하는 자 (알-하시브); 41. 위엄 있는 자 (알-잘릴);

42. 관대한 자 (알-카림); 43. 감시하는 자 (알-라키브); 44. 응답하는 자 (알-무집); 45. 포괄적인 자 (알-와시); 46. 현명한 자 (알-하킴); 47. 공감하는 자 (알-와두드); 48. 영광스러운 자 (알-마지드); 49. 일으키는 자 (알-바이스); 50. 증인 (알-샤히드); 51. 진실 (알-하크); 52. 옹호자 (알-와킬); 53. 강한 자 (알-카위); 54. 확고한 자 (알-마틴); 55. 보호자 (알-왈리); 56. 칭찬받는 자 (알-하미드); 57. 대응자 (알-무흐시); 58. 초심자 (al-Mubdi'); 59. 회복자 (al-Mueid); 60. 촉진자 (al-Muhyi); 61. 살해자 (al-Mumit); 62. 살아 있는 자 (al-Hayy); 63. 존속하는 자 (al-Qaiyum); 64. 발견하는 자 (al-Wajid); 65. 영광스러운 자 (al-Majid); 66. 유일하신 자 (al-Wahid); 67. 영원한 자 (al-Samad); 68. 강력한 자 (al-Qadir); 69. 지배하는 자 (al-Muqtadir); 70. 앞으로 가져오는 자 (al-Muqaddim); 71. 지연시키는 자 (al-Mua'khir); 72. 처음 (al-Awwal); 73. 마지막 (al-Akhir); 74. 명백한 자 (알-자히르); 75. 숨겨진 자 (알-바틴); 76. 통치자 (알-왈리); 77. 고귀한 자 (알-무탈리); 78. 의로운 자 (알-바르); 79. 회개하는 자 (알-타우와브); 80. 복수하는 자 (알-문타킴); 81. 용서하는 자 (알-아푸); 82. 친절한 자 (알-라우프); 83. 왕국의 통치자 (말리쿨 물크); 84. 모든 위엄과 명예의 주님 (줄-잘랄 왈-이크람); 85. 공평한 자 (알-무크시트); 86. 징수하는 자 (알-자미); 87. 부자 (알-가니); 88. 풍요롭게 하는 자 (알-무그니); 89. 베푸는 자 (알-무티); 90. 보류하는 자 (알-마니); 91. 괴롭히는 자 (알-다르); 92. 이익을 주는 자 (알-나피); 93. 빛 (알-누르); 94. 인도하는 자 (알-하디); 95. 비교할 수 없는 자 (알-바디); 96. 영속하는 자 (알-바키); 97. 상속자 (알-와리스); 98. 감독 (알-라시드); 99. 인내하는 자 (알-사부르).

무슬림들은 신앙 수련에서 알라의 99가지 이름을 암송합니다. 어떤 이들은 33개 또는 99개의 구슬로 된 묵주를 사용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b) 알라의 이름은 서로 모순됩니다.

99개의 이름에 묘사된 알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과는 거의 닮지 않았 습니다. 만약 무슬림이 기독교인에게 "당신의 신과 우리의 신은 같은 분이십니다"라고 말한 다면,

(수라 29:46) 그는 신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신에게 동반자, 동지, 또 는 동등한 존재가 있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 용서받지 못할 죄에 빠지게 됩니다(수라 4:48 참조). 이는 기독교에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마태복음 12:31 참조)와 유사합니다. 이슬람 신 앙고백은 알라의 유일성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알 가잘리는 신의 99가지 이름을 묵상하며 이 이름들이 모든 것을 의미할 수 도 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라의 한 이 름은 다른 이름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그분의 절대적인 위대함입니다. 베두인 부족들은 무함마드에게 "우리는 알라를 믿습니다."라고 말 했습니다. 그러자 무함마드는 "'우리는 복종했다!'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믿지 않은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수라 49:14).

(c) 알라의 자비

알라의 99가지 이름은 알라를 "자비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으로 부릅니다. 그는 자비로 우시고 인내하시며, 신실하시고 친절하십니다. 그는 관대하게 베푸시는 분이시며, 홀로 온 인 류를 돌보십니다. 그는 자신을 경배하는 모든 자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는 회개하는 자들을 알아보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는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알라는 또한 전지전능하시며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 고 보시며,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포괄하십니다. 그분의 힘은 무한합니다. 그분은 건설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강력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승고하고 높이 계시며,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시며, 장엄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분과 대적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신 분이시며, 영원하시고, 끝이 없으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습니다. 그분은 찬양받으실 만물의 참된 실체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며, 빛이시며 평화이십 니다. 그분은 만물의 참된 실체이시며, 만물의 근본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의 능력으로 무(無) 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우리 모두는 그분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시 고 죽음을 초래하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침내 우주를 하나로 만드실 것입니 다.

(d) 알라의 진노

하지만 알라의 이러한 전적인 권위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권자이시며 왕이신 그분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보호자이시며 파괴자이시고, 인도자이시며 유혹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정죄하기도 하십니다(수라 16:35, 76:30 참조). 그분은 가장 악랄한 사기꾼이자 음모자이십니다(수라 3:54, 8:30, 10:21, 13:42). 또한 그분은 심판의 날 증인으로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시는 복수자이십니다. 그분의 뜻 밖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그분은 중재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직접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을 포함한 그 누구도 알라께서 자신을 호의적으로 보살펴 주실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알라의 더 억압적인 속성들은 두려울 뿐입니다. 알라는 유일무이하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유일한 특권은 두려움 속에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13장 13절

천둥은 그분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천사들은 그분을 경외하며 찬양합니다. 그분은 천둥을 내리시고 원하시는 자를 치시지만, 그들은 분노가 크신 알라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장 14:4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꾸란은 알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7장 16절

우리가 어떤 도시를 멸망시키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도시에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불경건한 짓을 저지르면, 그 도시에 멸망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여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킨다.

(e) 무슬림 신학에서의 알라 무슬림 신학자

들은 알라를 본질, 속성, 행위라는 세 가지 범주로 설명합니다.

알라의 본질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아랍어 단어는 '다트(dhat)'로, 문자 그대로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알라의 본질을 탐구한 신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알 가잘리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알라의 창조에 대해 묵상하고, 알라의 존재에 대해서는 묵상하지 마라."

십자가와 초승달

이슬람에서 대부분의 신학적 논의는 알라의 속성 (sifat, "속성") 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쿠란은 알라의 유일성 (Allahu Ahad), 그분의 유일무이한 실체 (Huwa'l-Haqq), 그리고 그분의 직접적인 활동 (Huwa'l-Fa'il) 이라는 세 가지 속성을 강조합니다. 수니파 학자들은 "생명", "지식", "능력", "의지",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이라는 일곱 가지 속성을 필수적인 속성으로 인식했습니다. 시아파 학자들은 여기에 "영원"을 더합니다.

알라의 다른 모든 속성은 그분의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주의 모든 사건, 선과 악의 유일한 주체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오도합니다(수라 16:93). 그의 뜻은 최고이며 불변하며, 우주 창조 이래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라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십니다. 그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생물,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창조 활동에는 인간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마지막 믿음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만약 인간이 신의 행위를 행하도록 강요받는다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둘째,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알라에 의해 직접, 즉각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정해졌다면, 사회 진보를 위한 동기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은 현재 삶의 질보다는 다가올 삶에 대한 준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행복, 복종, 복종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신의 섭리에 따라 미리 결정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면, 왜 인과관계를 연구해야 할까요?

이슬람의 특징인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예정론은 호기심, 조사, 탐험, 실험, 연구를 억제합니다.

2. 천사들

꾸란은 천사의 이름을 극소수만 언급합니다. 더 낮은 계급의 천사들이 많다고 합니다(수라 89:22 참조). 그들은 밤낮으로 신을 찬양하고(수라 2:30; 21:19, 20), 신의 명령에 따라 일합니다(수라 21:27; 66:6). 그들 중에는 "진과 악마의 말을 듣는 자"(수라 37:8)로부터 하늘의 성벽을 지키는 천군들이 있습니다. 여덟 천사가 신의 보좌를 지닙니다(수라 69:17). 하디스는 천사들이 빛으로 창조되었으며,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슬람에서 식별되는 개별 천사 또는 천사 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브릴. 계시의 천사로, 꾸란(수라 2:97, 98; 66:4)에 세 번 언급됩니다. 그는 "충실한 영혼"(수라 26:193-195)과 "성령"(수라 16:102)으로 불립니다. 이는 이슬람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기독교와 다름을 시사합니다. 지브릴은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보내신 영혼(수라 19:17)이며, 예수를 돕기 위해 사용되신(수라 2:253, 5:110) 것입니다.
- 미하일. 지브릴과 동등한 지위의 두 번째 천사(수라 2:98).
- 이스라필. 심판의 날을 위해 나팔을 불 천사.
- 아즈라필. 죽음의 천사(수라 32:11).
- "폭격하는 돌격대"(알-자바니아). 지옥의 수호자들(수라 96:18).
- "알라께 가까이 나아온"(알-무카라분). 수라 4:172에 언급된 이들은 밤낮으로 끊임없이 그분을 찬양합니다. 같은 칭호(무카라브)가 예수님께도 사용되었는데(수라 3:45), 이는 그분을 알라께 가장 가까운 천사들과 연결시켜 줍니다. 이 천사들 중 일부는 두 날개, 세 날개, 또는 네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수라 35:1). 그들은 또한 인류의 수호자로서, 모든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고 기록합니다.
- 문카르와 나키르. 하디스 에는 언급 되지만 꾸란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죽은 사람의 매장 다음 날 밤 무덤을 방문하여 그의 신앙에 대해 질문합니다. 만약 그가 불신자라면 그의 무덤은 예비 지옥이 됩니다. 만약 그가 신자라면 그의 무덤은 마지막 날에 낙원으로 갈 수 있는 예비 연옥이 됩니다. 만약 그가 성인이라면 그의 무덤은 예비 낙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수알(Su'al)이라고 합니다.
- 샤이탄/이블리스. 사탄은 아담에게 절하라는 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천사의 순종의 법칙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수라 7:10-17).
- 하루트와 마루트. 꾸란에 따르면, 성적 유혹에 굴복하여 바빌론 근처 구덩이에 갇힌 두 타락한 천사(수라 2:102)입니다.

천사와 관련된 또 다른 종류의 초인적 존재가 있는데, 바로 진(Jinn, 단수는 Jinni . 영어로는 "genie"라고 함)입니다.

불로 창조된 진은 무함마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믿고 무슬림이 되었고, 다른 이들은 그를 거부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진(Jinn)에 대한 신앙은 대중 이슬람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이슬람에서도 받아들여졌으며, 오늘날에도 일부 집단에서 여전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일야화 이야기는 중세 유럽의 동화와 엄밀히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합리주의 이슬람 종파인 알 무타질라(al-Mu'tazilah)와 초기 무슬림 철학자들조차도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초기 무슬림 법학 서적들은 결혼이나 재산과 같은 문제에서 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진의 한 부류에는 영어에서 유래된 또 다른 단어인 굴(gul)이 있습니다.

3. 책

무슬림 신앙에 따르면, 계시의 책들이 선지자들에게 차례로 주어졌으며, 각 책에는 그 시대와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규칙과 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시가 이전 계시를 대체하고 개선하기 때문에 이전의 많은 계시들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는 알라의 사도 여덟 명이 인류에게 받은 백엽(100 Leaf)과 네 권의 책이 포함됩니다. 백엽 중 아담은 열 장을, 쿠란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셋은 오십 장을, 이드리스(혹은 에녹)는 서른 장을, 아브라함은 열 장을 받았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상된" 형태로 다음 순서로 제공됩니다.

1. 토라.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 많은 무슬림들은 구약성서, 즉 유대교의 경전을 거룩한 책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이 토라를 변질시켰다고도 믿습니다.
2. 자부르. 다윗에게 주어진 시편.
3. 인질(Injil). 복음 - 예수님께 주어진 것. 무슬림들은 신약성경 전체를 인질, 즉 예수님께 "내려온" 거룩한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진짜 인질을 가져 가셨고, 현재 기독교인들의 손에 있는 사본은 변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4. 꾸란. 무함마드에게 주어졌으며, 알려께서는 계시하신 마지막 책입니다. 영원 속에서 이 책은 단 하나의 진주인 보존판 (알라우 알마흐푸즈) 에 기록되었습니다. 알려께서는 라마단 마지막 열흘 동안 권능의 밤 (라일라트 알카드르) 에 천사 지브릴을 통해 가장 높은 하늘에서 우리 하늘로 이 책을 내려주셨습니다. 지브릴은 23년 동안 몇 절, 한 절, 심지어는 한 절의 일부로 이 책을 무함마드에게 "내려주었습니다." 무슬림의 관점에서 무함마드는 계시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지브릴이 가져온 내용을 청중에게 전하는 "경고자"일 뿐입니다.

무슬림들은 꾸란이 이전의 모든 계시를 대체하고 폐기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디스의 일부와 심지어 꾸란 자체조차도 본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여섯 가지 문제점이 언급됩니다.

(a) 꾸란의 신뢰성에 의심을 품게 하는 여섯 구절:

- 무함마드는 몇몇 계시를 잊었습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에게 [오, 무함마드] 읽게 하리니, 알려께서 뜻하신 것 외에는 네가 잊지 않도록 하리라"(수라 87:6,7). 알자마크샤리는 이 두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무함마드가 기도 중에 꾸란을 읽다가 구절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우바이는 그 구절이 삭제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함마드에게 물었고, 무함마드는 '잊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망각을 "알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즉시 제기됩니다. 수라 16장 101절("계시를 다른 계시로 대체할 때")에서처럼 망각된 구절이 대체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수라 13장 39절("알라는 당신의 뜻을 지우거나 확증하신다")에서처럼 생략되어야 할까요? "보존된 서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지워졌을까요, 아니면 무엇이 확증되었을까요?

- 무함마드는 일부 계시를 서두르셨습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무함마드여] 계시가 너희에게 완전해지기 전에는 꾸란을 서두르지 말고, '나의 주여, 제 지식을 더 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라."(수라 20:114)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오, 무함마드여] 그것을 서두르려고 허를 움직이지 말라.

우리의 몫은 그것을 모으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암송할 때는 암송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75장 16-19절)

알바이다위는 이 마지막 수락을 “허를 놀리지 말고, 그것이 너게서 빠져나가도록 기다리라.”라고 해석합니다. 이는 무함마드의 성급한 행동에 대한 질책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러한 성급함은 알려계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알수유티는 수라 20장 114 절의 『아스바브 알-누줄』에서 “무함마드가 스스로 한 일이었는가, 아니면 알려계서 그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인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어서 “물론 그는 스스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려계서 나중에 그것을 계시하셨습니다.”라고 덧붙입니다.

- 무함마드의 판단이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꾸란에서 알라는 예언자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우리가 너희에게 계시한 것에서 너희를 유혹하여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내게 대항하게 하려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너희를 친구로 여겼을 것이다. 우리가 너희를 확증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분명 그들에게 조금도 마음이 기울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너희를 친구로 여겼을 것이다."

(수라 17:73-75). 알-수유티는 그의 저서 『아스바브 알-누줄』에서 이 세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쿠라이시 사람들은 이슬람에 타협을 제안하며 무함마드에게 ‘우리 신들에 맞서 몸을 닦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교에 들어가겠소.’라고 말했습니다. 무함마드는 개종자를 원했기에 처음에는 그들의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 무함마드는 자신에게 계시된 내용 중 일부를 생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알라는 무함마드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네가 네게 계시된 것 중 어떤 것이라도 버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다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에게 보물이 내려지지 아니하였고, 천사가 그와 함께 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너는 단지 경고자에 불과하다"(수라 11:12).

알자마크샤리는 이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합니다. “그들은 지침을 구하는 대신 완고하게 구절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꾸란에 의지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함마드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그들이 무엇을 거부하거나 조롱할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려계서 그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롱과 반항에 대한 불안을 버리고 부름을 계속하도록 그를 자극했습니다."

- 무함마드는 꾸란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다른 구절로 바꿔치기할 때, 그리고 알라께서 무엇을 전달하시는지 잘 아시는 때에, 그들은 '너는 단지 위조자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수라 16:101) 알 와히디는 그의 저서 『아스바브 알-누줄』에서 이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무함마드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무함마드가 추종자들에게 특정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다음 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금지된 일을 쉽게 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무함마드가 스스로 말하는 것을 지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는 꾸란과 알라우 알마흐푸즈(알라우 알마흐푸즈, 즉 원래 꾸란이 태초부터 하늘에 기록되어 온 "보존된 서판" 사이의 상응 관계에 있습니다. 대체된 텍스트와 새로운 텍스트가 모두 보존된 서판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무효화와 변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지혜와 예언자의 무오성과 양립할 수 있을까요?

- 무함마드는 사탄의 개입에 취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라 16장 98절은 "꾸란을 낭송할 때, 추방된 사탄으로부터 알라께 피난처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알라의 말씀이 악마를 몰아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꾸란 자체도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합니다. 메카 부족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적대감에 직면하여 무함마드는 수라 53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알-라트와 알-우자, 그리고 세 번째이자 또 다른 하나인 마나트에 대해 생각해 보았나?"라고 묻자, 악마는 그의 혀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가장 높은 학들이여!

진실로 그들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알라에게 겉으로는 복종하는 듯 무릎을 꿇었지만, 무함마드는 분명히 중대한 양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구절이 밝혀졌습니다.

22장 52절

우리는 당신들 이전에 사자나 예언자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욕망을 품었을 때, 사탄은 그의 욕망에 어떤 일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알라께서는 사탄이 넣은 것을 무효화하십니다. 그러므로 알라께서는

그는 자신의 표징(계시)을 확립 [또는 완성] 하시며, 알라는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하지만 사탄이 이 “사건”을 계시 과정에 개입시켰고, 알라께서 거짓 진술을 폐기함으로써 그 피해를 복구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함마드의 계시의 권위를 암묵적으로 훼손합니다. 수라 22장 52절은 사탄이 무함마드의 꾸란 낭송에 개입했음을 보여줍니다. 알와히디의 아스바브 알누줄은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평합니다. “무함마드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브릴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무함마드는 그에게 수라 53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브릴이 ‘내가 이 두 구절을 가져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무함마드는 ‘나는 알라의 입에 말씀을 담아두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슬림들이 꾸란을 읽기 전에 추방된 악마 (이스티아자)로부터 알라의 피난처를 찾으라는 명령을 반복해서 받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례는 수라 81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왕좌의 주님 앞에서 강력하게 선포된 존경받는 사자의 말씀이다." 이 구절들을 해설하며 알라지는 알카진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 아비아드, 즉 하얀 악마가 지브릴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악한 제안으로 무함마드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브릴은 알 아비아드를 따라잡아 인도의 가장 외딴 지역으로 밀어냈습니다."

또한, 수라 22장 53절은 “그분께서 악마가 제안하는 것을 마음에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유혹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알바이다위는 이렇게 평합니다. “이 구절은 예언자들에 대한 악마적인 암시뿐만 아니라 부주의의 가능성도 암시합니다.”

(b) 하디스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곱 가지 논평
꾸란 본문의 신뢰성:

- 무슬림은 그의 사히흐에서 야나스 이븐 말리크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무함마드를 위해 꾸란을 썼다고 밝힙니다.
이 기독교인은 "무함마드는 내가 쓴 것만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 수라 6:93은 “하나님께 거짓을 꾸며 대는 자나 ‘나에게 계시되었다’고 말하는 자보다 더 큰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알수유티는 아스바브 알누줄에서 이 구절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압둘라 이븐 사드 이븐 아부 사르흐는 계시록을 쓰고 있었습니다.

무함마드에게. 무함마드가 "아지준 하킴" (azizun hakim, 강력하고 지혜로운)이라고 말했을 때, 압둘라는 "가푸룬 라힘" (ghafurun rahim, 용서하고 자비로운)이라고 썼습니다. 이 말을 듣고 무함마드는 "둘은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압둘라는 이슬람을 거부하고 자신의 이교도인 쿠라이시 부족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무함마드를 제 마음대로 조종했습니다. 그가 '아지준 하킴' 이라고 했고, 저는 '알리문 하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함마드는 '그래, 둘 다 옳다. 원하는 대로 쓰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압둘라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것이라면 나에게도 계시된 것입니다. 알라께서 꾸란에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알라께서 하신 그대로 계시한 것입니다."

- 알-수유티는 그의 저서 『알-이트칸』 에서 압둘라 이븐 마수드가 쿠란 필사자 중 한 명이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함마드가 그에게 한 구절을 받아쓰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날, 이븐 마수드는 그 구절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루마리는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함마드에게 이에 대해 물었을 때, 무함마드는 "그것은 그날 밤에 폐지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부하리, 무슬림, 알-다리미, 이븐 한발의 하디스 는 모두 우마르 이븐 알-카타브의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에 대해 주님과 동의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알라의 사도여,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위해 서 있던 곳을 예배 장소로 삼는다면.’ 그러자 계시가 내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위해 서 있던 곳을 예배 장소로 삼으라.’(수라 2:125) 저는 또한 말했습니다. ‘알라의 사도여, 의로운 자와 방탕한 자가 당신의 여자들을 만나리라.’

그들에게 베일을 쓰라고 명령만 해 주신다면!' 그러자 베일의 구절이 계시되었습니다. '그들[무함마드의 아내들]에게 무엇이든지 묻거든, 휘장 뒤에서 그들에게 묻도록 하라.' 무함마드의 아내들이 질투심에 그에게 등을 돌렸을 때,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너희와 이혼한다면, 그의 주님께서 너희 대신 너희보다 더 나은 아내들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구절이 계시되었습니다. [수라 66:5]

- 알-수유티, 알-니사부리, 아부 다우드 는 모두 무함마드가 수라 2:284("너희가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거나 숨기든 알라께서 너희에게 책임을 묻게 하실 것이다")를 선포했을 때 초기 추종자들이 이것이 너무 힘들다고 느꼈다고 아부 후라이라가 말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무함마드 앞에 무릎을 꿇고 "알라께서 당신에게 이 구절을 계시 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구절은 즉시 폐지되었고, "알라는 영혼에게 그 범위를 넘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시며, 그 영혼이 얻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또 다른 구절이 밝혀졌습니다.

(수라 2:286)

- 수라 33:50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여자가 예언자에게 자신을 바치고 예언자가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믿는 자들과는 별도로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설명하며, 알-수유티는 움 슈라이크 알-다우시야가 무함마드에게 자신을 바쳤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너무 아름답어서 무함마드는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이샤는 "여자가 남자에게 자신을 바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함마드에게 "알라는 당신의 열정을 위해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 알 수유티는 또한 압두라흐만 이븐 아우프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성전을 치르라'는 계시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구절들과 함께 꾸란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븐 우마르는 "누구도 내가 꾸란 전체를 이해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전체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내가 꾸란에서 나타난 것을 이해했다고 말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4. 선지자들

모든 사자는 예언자였지만, 모든 예언자가 사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하디스에 따르면 예언자의 수는 12만 4천 명, 22만 4천 명, 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슬람에 따르면 옳고 그름은 특정 행동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알라의 뜻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인류에게 무엇이 합법적이고 허용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예언자들이 전하지 못한 피조물들은 그들만의 낙원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알라는 아담의 후손과 맺은 계약(수라 2:27, 3:81)으로, 불순종하는 모든 자를 불지옥에 던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꾸란에는 28명의 예언자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중 3명(무함마드, 살리흐, 슈아이브)이 아랍인입니다.

다음 구절에는 선지자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3장 33절

알라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의 가족, 임란의 가족을 그의 모든 피조물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4장 163절

[오, 무함마드] 우리는 노아와 그 이후의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 그 지파들, 예수, 욥, 요나, 아론, 솔로몬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다윗에게 시편을 전수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6장 84-87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자들을 지혜의 단계로 높인다. 우리는 그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지혜를 부여하였고, 그들 각자를 인도하였다. 노아도 우리가 이전에 인도하였고, 그의 후손들 중에서는 다윗, 솔로몬, 욥, 요셉, 모세, 아론을 인도하였다. 우리는 선한 자들에게 이와 같이 보상하며, 사가랴, 세례자, 예수, 엘리야도 마찬가지다. 그들 각자는 의로운 자들이다. 이스마엘, 엘리사, 요나, 룻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들 각자를 우리의 피조물들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이 세 목록은 오로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중 다수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니다. 쿠란에 따르면, 예언자들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만 나타났습니다. 무함마드는 메디나에 도착하기 전까지 자신을 나비 ("예언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니다.

이슬람의 계산에 따르면, 여섯 명의 저명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보통 그들을 지칭하는 경칭과 함께 등장합니다.

- 아담은 알라의 선택받은 자, 사피 알라.
- 알라의 설교자, 나비 알라, 노아.
- 알라의 친구 아브라함, 칼릴 알라;
- 알라의 말씀자 모세, 칼림 알라;
- 예수, 알라의 말씀, 알라의 말씀.
- 무함마드, 알라의 사도, 라술 알라.

이슬람에서는 다른 예언자들도 인정받고 존경받지만, 관심은 "예언자들의 인장"(수라 33:40)이라 불리는 무함마드에게 집중되어 왔습니다. 무슬림들은 그를 "시대의 영광", "세계의 평화" 등 약 200가지의 다른 칭호와 이름으로 부릅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무함마드는 하디스 와 그의 삶에 대한 후속 기록들을 통해 영광을 누렸는데, 그 대부분은 그의 사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결과, 쿠란 자체의 증거와는 달리, 그는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 세상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반천사적 존재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쿠란에서 그가 자신의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수라 40:55, 48:2, 110:3 참조), 그의 인격은 이상적이고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삶에 대한 후기 기록에서 더 널리 언급되는 기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는 손 안에 있는 자갈들이 말을 하게 만들었다.
- 그의 몸에는 그림자가 없었다.
- 그는 손가락으로 달을 둘로 나누었다.
- 그가 지나갈 때 나무들이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숙일 것이다.
- 그는 일곱 번째 하늘(어떤 기록에 따르면 아홉 번째 하늘)로 야간 여행을 했습니다.

무함마드의 계시 중 일부는 예언자의 행동을 그가 설파한 종교적 규범과 조화시켜 겉으로 보이는 성격적 결함을 미덕으로 바꾸는 것 이상의 더 높은 목적을 갖지 않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디스는 무함마드를 궁극적인 도덕적 권위자, 삶의 유일한 인도자, 그리고 심판의 날에 유일한 효과적인 중재자의 지위로 격상시켰습니다.

하디스 와 쿠란 에 제시된 무함마드의 언행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슬림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엄격한 종교 규범의 근간을 이룹니다. 세수와 정화부터 식단, 신체 및 의복 관리에 이르기까지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대한 규정된 양식이 있습니다.

또한 시아파 무슬림들은 또한

알리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데,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증인의 말씀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알리는 알라의 대리인이다.

하디스는 무함마드보다 훨씬 더 환상적인 알리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열두 명의 이맘, 즉 신앙의 지도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행했는지에 대한 장황한 기록도 있습니다.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무함마드가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타락했던 본래의 참된 종교를 부활시켰다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수라 41장 43절은 알라께서 무함마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인용합니다. “[오, 무함마드여] 그대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대 이전의 사도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그대의 주님은 용서와 고통스러운 응징의 주님이시다.”

5. 심판의 날

무슬림은 심판을 위한 부활과 그 후 자나 (Janna, 낙원의 정원) 또는 자하남(Jahannam, 불의 정원)에서 영생을 믿어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신자들에게 불은 일시적인 연옥이지만, 전쟁에서 죽은 지하디스트, 전염병 희생자, 산고로 사망한 여성들은 모두 심판의 날의 시련을 겪지 않고 바로 낙원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믿음에 따르면, 심판이 임할 때 무함마드에게 중재의 유일한 권한이 주어질 것입니다. 무슬림 종말론에서 사건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말의 도래를 알리는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거의 모든 인류를 그릇된 길로 인도할 다잘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잘을 죽이시고 평화의 시기가 올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평화와 이슬람을 확립하실 것입니다.

둘째, 심판의 부름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모든 생명체가 죽을 것입니다. 잠시 후,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모든 생명체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수라 39:68 참조). 그리고 그들을 마샤르 ("모임의 장소")에 모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알라 앞에서 오랫동안 그곳에 서서 땀을 흘릴 것입니다.

셋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알라께서 모든 사람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기록된 책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자들의 행위는 저울에 달아질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짐승 사이의 적대감을 조정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넷째, 모든 사람은 지옥을 건너 낙원으로 가는 다리인 알-시라트를 건널 것이다. 알-시라트는 실보다 가늘고 칼보다 날카롭다. 구원받은 자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지만, 공로가 없는 자는 불길에 떨어진다. 불은 불타는 턱을 가진 거대한 괴물로, 저주받은 자들을 집어삼킬 준비가 되어 있다. 불길에는 일곱 개의 문(수라 15:44 참조)과 일곱 층이 있다고 묘사되어 있으며, 그 중 가장 낮은 층인 자쿰(Zaqqum)에는 악마의 머리가 꽃처럼 피어난 끓고 악취 나는 역청이 있다(수라 37:62 참조). 탈출구는 없다. "불행한 자들은 불길 속에 있을 것이니, 거기서 신음하고 한숨을 쉬 것이다.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한, 주님께서 달리 명하지 않는 한 영원히 불길 속에 있을 것이다"(수라 11:106, 107).

Janna (“낙원의 정원”)는 축복받았습니다. 쿠란은 이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장 47:15

의로운 자들에게 약속된 그 정원은 오염되지 않은 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맛이 변하지 않은 젓이 강물처럼 흐르고, 마시는 이들에게 맛있는 포도주가 강물처럼 흐르고, 맑고 순수한 꿀이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이곳에서 축복받은 자들은 “두꺼운 비단으로 안감을 댄 침대에 누워, 두 정원의 열매를 가까이에서 맛볼 수 있으리라... 그 안에는 겸손한 눈빛의 처녀들이 있는데, 이전에는 남자도 진(jinni)도 만져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루비와 산호와 같으리라.”(수라 55:54-58)

장 56:15-24

안감을 깬 침대에 얼굴을 맞대고 누워 있다. 불멸의 젊은이들이 그릇과 물병,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거나 이성을 앗아가지 않을 맑은 샘물 한 잔을 들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좋아하는 과일과 그들이 원하는 새들의 고기, 그리고 숨겨진 진주처럼 크고 아름다운 눈을 가진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요약하자면, 무슬림의 천국은 감각적 쾌락의 정원입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여인들, 두꺼운 비단으로 덮인 침대들, 그리고 맛있는 과일들이 가득 담긴 잔들이 있습니다. 쿠란의 낙원 묘사에는 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출신 무슬림 작가 아피프 타바라는 천국의 행복은 지상의 쾌락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은 쿠란의 증거로 뒷받침되지는 않지만, 부하리가 전한 하디스를 인용하는데, 그 하디스에서 신은 "나는 나의 의로운 예배자들을 위해 아무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품지 못한 것을 예비하였노라"(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명백히 인용한 것)라고 말씀합니다. 타바라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언급합니다.

(아랍어: liqa'; 프랑스어: revoir) 수라 10장 7, 11절과 18장 110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이는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에게 친숙한 지복의 비전과 같은 영적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날 얼굴들이 빛나며 주님을 쳐다볼 것이다"(수라 75장 22, 23절)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이러한 믿음을 뒷받침하며, "보이지 않는 신이 보이지 않는 신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을 볼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합니다.

6. 카다 와 카다르 (선과 악의 법령)

이 교리를 더 줄여서 "운명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카다(Qada)는 "결정하다", "명령하다", "판단하다", "결정되도록 하다"를 의미합니다. 이는 판사의 직책이자 기능입니다. 카다르(Qadar)는 "금액을 측정하다, 추산하다", 그리고 "무언가를 측정하여 할당하다"를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는 알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카다'는 알라의 지식과 뜻을 의미합니다. '카다르'는 알아께서 그분의 지식과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심(카다르)을 의미합니다. 무슬림 교리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알라의 불변하는 섭리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알라가 악의 근원임을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무슬림 신학자들이 견지하는 입장입니다. 많은 학파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시아파 이슬람 사상가들을 포함한 다른 학파들은 인간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타협안을 시도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알라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뜻은 꾸란에서 확고하게 주장됩니다.

17장 16절

우리가 어떤 도시를 멸망시키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도시에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불경건한 짓을 저지르면, 그 도시에 멸망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여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킨다.

십자가 와 초승달

장 14:4

하느님께서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이 교리에서 비롯된 운명론적 삶의 철학은 전 세계 무슬림들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최악의 재난은 종종 냉정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받아들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교리는 여러 무슬림 국가의 정체된 사회 상황과 더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i Ibn Hanbal, Musnad, 26216, 31062.

ii Bukhari, Salat 32 참조 ; 무슬림, Fad'ail al-Sahaba 24; al-Darimi, Manasik 33; 이븐 한발, 무나드 1.23,24,26.

iii al-Suyuti, Asbab al-Nuzul, Sura 2:284,286 및 Abu Dawud, Zakat 32 참조.

iv 알-수유티, 알-이트칸, 폐기된 것과 폐기된 것에 관한 장.

v Afif Tabbara, Ruh al-Din al-Islami (다마스쿠스, 1972).

의무 무슬림의

나. 슬람은 추종자들에게 5가지 종교적, 시민적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남녀 모두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모든 성인에게 부과됩니다. 위험한 여행과 같은 불리한 상황과 질병 및 빈곤과 같은 정당한 개인적 사유에 대해서는 편의가 제공됩니다.

I. 샤하다("신조")

기본적인 무슬림 신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께는 하느님이시다
신의 사자, 무함마드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입니다.

이것은 샤하다 ("증언의 말씀")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낭송은 모든 무슬림의 주요 의무입니다. 무아딘 (예배 시작을 알리는 자)이 의식적으로 낭송할 때, 듣는 모든 신자는 소리 내어 또는 속삭임으로 이를 반복해야 합니다. 갓난아기의 귀에 대고 낭송하고, 임종하는 이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이는 개별 신자가 가장 흔히 하는 낭송입니다. 다르위시(이슬람교 신도)들은 교단의 모임에서 샤하다를 낭송하며,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전 세계 무슬림에게 이 짧은 신조의 심리적, 종교적 의미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큼니다.

샤하다(Shahada)는 이슬람 신학을 요약합니다. 샤리아는 관찰 가능한 행위만을 다루기 때문에 신조의 선포만이 이슬람법의 영역에 속합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샤하다의 해석, 확장, 그리고 해석은 모두 이슬람 신학자들과 학자들에게 맡겨져 있다.

II. 알-살라트("기도")

무슬림의 두 번째 의무는 알-살라트("기도")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살라트라는 단어는 "의식적인 예배 또는 기도문"을 의미하는 아랍어 어근에서 유래했습니다. 느슨한 영어 동의어와는 달리, 살라트는 일련의 특정 행동과 발언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무슬림이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다음의 5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 반드시 규정된 세수를 한 후에 시행해야 합니다.
- 기도하는 장소는 모든 더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 몸과 옷은 깨끗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 얼굴은 카바 방향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메카.
- 기도는 절제된 자세로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말하거나, 웃거나, 놀거나, 음식을 먹으면 기도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알-살라트를 행하려면 무슬림은 의식적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무슬림 율법은 두 가지 형태의 세수(洗水)를 허용합니다. 가벼운 세수(우두)는 머리, 수염, 손(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 그리고 발(발가락에서 발목까지)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세수(洗水)인 굴(ghusl)은 온전한 목욕입니다. 이 때문에 무슬림 국가에서는 공중목욕탕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막의 베두인족은 자주 찾는 우물에 몸을 담그곤 합니다. 때로는 비소가 함유된 제모제를 사용하여 더욱 깨끗하게 씻기도 합니다. 물을 구할 수 없을 때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하여 상징적인 세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타이암뭉(Taiammum)이라고 합니다. 유대교의 탈무드(Talmud)도 물 대신 모래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한 기독교 역사가는 사막을 여행하는 동안 모래로 행해진 세례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율법의 네 학파는 세수 방법에 14가지 변형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모든 학파는 예배자가 자신의 몸을 가려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깨끗한 곳에 서십시오. 그래서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기도용 깔개"를 흔히 사용합니다. 전체 세수 의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손 씻기.
- 입 안을 헹구는 것.
- 코 안쪽을 씻습니다.
- 얼굴을 씻다.
- 팔뚝을 씻습니다.
- 머리카락을 손으로 쓰다듬는다.
- 귀를 씻는다.
- 발을 씻는 것.

1. 예시 - 아침기도의 세부 사항

매일 예배는 다섯 번 정해진 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새벽 직전, 정오 후, 오후 중반, 일몰 직후, 그리고 늦은 저녁입니다. 이러한 예배 행위는 정해진 시간 이전에는 행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기도는 관례적으로 라카스(rak'as) "순환 또는 주기"로 나뉘며, 각 기도 시간에는 정해진 횟수가 요구됩니다.

- 아침기도 2차 기도회
- 정오기도 • 오후기도 4번의 기도회
- 4회 기도회
- 일몰기도 • 저녁 3번의 기도회
- 기도 4회 기도회
- 매일 총 17번의 기도회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정작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무슬림의 아침 기도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슬림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세수를 한 후 메카 방향으로 서서 기도하고, 손을 귀까지 올리고 "알라후 아크바르" 라고 말합니다.

("알라는 더 위대하시다!")

- 그런 다음 그는 조용히 알-파티하 (꾸란의 첫 번째 수라)를 낭송합니다. 여기에는 "자비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찬양은 주 알라께 드립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비로우시며, 심판의 날의 주인이신 분. 우리는 오직 당신만을 섬깁니다. 당신께만 구원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당신께서 축복하신 자들의 길이요, 당신께서 분노하시는 자들의 길이 아니며, 길을 잃은 자들의 길이 아닙니다.

- 무슬림은 또한 짧은 수라, 일반적으로 수라 112를 낭송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비롭고 자비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말하라. 알라께서는 유일신이시며 영원하시고 절대적이지 않다. 그분은 낡지도 않으셨고, 낡아지지도 않으셨다. 그분과 동등한 존재는 없다."
- 그런 다음 무슬림은 "알라후 아크바르" 라고 말하고, 절을 한 후 "나의 위대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를 세 번 반복합니다.
- 이어서 몸을 똑바로 세우고 "하느님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 그런 다음 그는 "알라후 아크바르"를 반복하며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을 때까지 엎드린 후 "지극히 높으신 나의 주님, 찬양받으소서"를 세 번 암송합니다.
- 그는 "알라후 아크바르" 라고 말하며 상체를 들어올리지만 무릎을 꿇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 그런 다음 그는 두 번째로 절을 하고 세 번 반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 그 후, 그는 "알라후 아크바르" 라고 외치며 일어서서 두 번째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다시 한 번 알-파티하(알-파티하), 즉 짧은 수라를 조용히 낭송합니다.
- 그 후 "알라후 아크바르" 라고 말하고, 머리를 숙인 후 이 자세를 유지한 채 "나의 위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를 세 번 반복합니다.
- 그러고 나서 그는 똑바로 서서 말한다. "알라는 자신을 찬양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
- 이어서 그는 "알라후 아크바르" 라고 말하고, 땅에 엎드려서 "지극히 높으신 나의 주님, 찬양받으소서"라고 세 번 반복합니다.
- 다시 한번 "알라후 아크바르"를 반복한 후, 무릎을 꿇은 채로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 그런 다음 그는 네 번째로 몸을 굽히고 세 번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 그런 다음 그는 일어나서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다음과 같은 고백문을 낭송합니다. "인사, 예물, 자선, 기도는 모두 알라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언자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알라의 자비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우리와 알라를 신실하게 섬기는 모든 자에게 평화가 있기를. 저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음을 증언합니다. 그분은 홀로 계시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저는 무함마드가 그분의 종이며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 마지막으로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말합니다. "알라의 평화와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이로써 아침 기도는 끝났습니다.

준비 단계가 완료되면 예배의 네 가지 도입 부분이 거행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블라(메카를 향한 틈새)를 향해 서 있습니다.
- 바스말라 ("자비롭고 자비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를 낭송합니다. 꾸란의 114장 중 9장(하나)을 제외한 모든 장은 이 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든 이 기도문은 올바르게 낭송해야 합니다. 변형된 형태로는 고기를 할랄 (즉, 먹기에 의식적으로 적합한 것)로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 이스티아자 (Istia'za, "피난처를 찾는")라는 문구를 외워서 그 행사를 신성하고 사탄의 간섭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듭니다.
- 아단 ("예배로의 부름")의 발화. 이는 다른 종교에서 행하던 유사한 의식, 즉 이교도의 불쏘시개, 유대교의 나팔 소리, 기독교의 나쿠스(나무 판자 또는 삼각형) 사용을 거부한 후 메디나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아단

보통 일곱 문장으로 구성됩니다. 새벽 전 기도는 여덟 번째 문장을 더합니다. "기도는 잠보다 낫다."

기도 자체는 네 가지 행동과 네 가지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동작은 서기, 절하기, 엎드리기, 앉기입니다.

각 기도는 특별한 방식으로 거행됩니다. 기도에는 니야트(기도를 하겠다는 "의도") 선언, 꾸란 일부 낭송, 그리고 특별한 찬양 문구가 포함됩니다.

절하는 동안 개인적인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2. 회중 예배

금요일에는 회중 예배가 정오 기도를 대신합니다. 카티브(설교자)는 자리에 앉아 보통 운율이 맞춰진 산문으로 표준화된 설교를 낭송한 후, 일어섰다가 다시 앉아 통치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축복 기도를 낭송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간은 새로운 통치자에 대한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의식의 네 가지 자세는 라카(rak'ah), 즉 "순환"을 구성하여 매일 17번의 순환을 이룹니다.

자발적인 예배가 권장됩니다. 축제일이나 장례식, 가뭄, 일식과 월식 등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의식이 추가로 거행됩니다. 무슬림 법에 따르면, 전투 중에는 의식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동 중에는 두 의식을 합칠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모스크 예배에서는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모스크 운영 비용은 와 크프(이슬람의 종교 및 공공 기부금 수입)로 충당됩니다. 모스크는 예배 외에도 교육, 강연, 정부 선언, 그리고 가난한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 등 다른 공공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금요일 합동 예배는 사설 모스크가 아닌 공식적으로 지정된 모스크에서 거행되어야 하며, 예배가 유효하려면 최소 40명의 성인 남성이 참석해야 합니다.

3. 무슬림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에 바칩니까?

기도에 소요되는 시간은 매우 다양합니다. 한 정통한 무슬림은 최근 다음과 같이 추정했습니다.

- 일반 무슬림(무슬림 인구의 약 70%)은 정기적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하루에 약 80분이 소요됩니다.
- 비근본주의 종교를 믿는 무슬림(전체 무슬림 인구의 약 6-8%)은 기도 수라를 낭독하는데, 하루에 약 150분이 소요됩니다.
- 무슬림 근본주의자들(무슬림의 1% 미만)은 라마단 기간 동안만 종교적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야간 기도인 Qiam al-lail 기도를 추가합니다.

- 하루에 약 300분 정도 필요합니다.

다른 무슬림(약 21%)은 금요일 과 아드 하와 피트르 두 축제에만 기도합니다 .

III. 초대하다(금식)

세 번째 무슬림의 의무는 '단식'을 뜻하는 sawm 또는 siyam입니다.

꾸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장 183~185절

믿는 자들이여, 금식은 너희에게 이미 정해진 것이니, 너희보다 먼저 온 자들에게도 정해진 것이니, 너희가 스스로를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해진 날 동안 금식 하되, 너희 중 누구든지 병들었거나 여행 중이라면, 나중에 같은 날 동안 금식하라. 금식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속전이 있으니, 궁핍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잘하는 자는 그 자신에게 더 유익하지만, 너희에게는 금식하는 것이 더 유익하니, 너희가 알고 있다면 금식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인류를 위한 지침이자, 지침의 분명한 증거이자 기준인 꾸란이 계시된 라마단 달.

그러므로 너희 중 누구든지 그 달에 있는 자는 금식하라. 그러나 병들었거나 여행 중인 자는 그 후에 며칠 동안 금식하라. 알라는 너희에게 평안을 원하시지, 너희에게 고난을 원치 않으신다. 너희가 그 기간을 채우고, 너희에게 인도하신 알라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감사하게 될 것이다.

금식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종교적 행위인 모든 신체적 접촉을 삼가겠다는 의지 와 둘째, 라마단 기간 중 낮 시간 동안 실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꾸란이 라마단 달의 후반 3분의 1에 해당하는 "권능의 밤"에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건강한 성인 무슬림 남성은 정신이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여야 하며, 모든 무슬림 여성도 생리 기간을 제외하고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금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무효화됩니다.

- 식수나 기타 액체.
- 흡연.
- 식사.
- 침을 삼키다.

- 의도적인 구토.
- 성교.
- 성적 접촉으로 인한 의도적인 정액 방출.
- 중독.

단식은 새벽에 시작됩니다. 팔을 뻗은 거리에서 흰 실과 검은 실을 구별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되며, 어두워지면 같은 과정을 반대로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도시에서는 단식의 시작과 끝을 알리기 위해 대포를 발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낮의 단식은 많은 무슬림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는 밤에 열리는 사교 모임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라마단은 때때로 "잔치의 달"이라고 불립니다. 이슬람 율법은 무슬림들이 낮의 단식 시간 중 일부를 수면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음력이 태양력보다 짧기 때문에 라마단 단식은 어느 계절에나 지낼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단식을 할 필요가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단식을 하며, 매우 더운 날씨에는 음식이나 물 없이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금식에 대한 다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꾸란은 특정한 상황에서 하즈 (순례) 대신 금식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수라 2:196 참조).
- 신도를 실수로 죽인 경우, 죄를 속죄하기 위해 2개월 연속으로 금식을 해야 합니다(수라 4:92 참조).
- 사람이 맹세를 어기면 3일간 금식을 해야 합니다. 보상(수라 5:89 참조).

IV. 자카트(구호세)

네 번째 무슬림의 의무는 자카트라고 알려진 구호세 납부입니다. (문자 그대로 "순수하다"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꾸란의 다른 곳에서 미덕을 암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무함마드가 실천하고 장려했으며, 지금도 공덕의 행위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자선은 행운이 따르는 때, 여행에서 돌아올 때, 출산, 결혼, 축제일, 명절 등 언제든지 베풀어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전문적인 거지 계층을 형성하고, 궁핍하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식적인 돌봄 제공을 저해함으로써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비록

자발적인 자선 활동이 널리 퍼져 있지만, 많은 교육받은 무슬림들은 이러한 활동의 조정 부족으로 인해 빈곤과 필요의 상황이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불평합니다.

수라 9:60에 따르면, 자선을 베푸는 것은 의무입니다. 구호품을 주어야 합니다.

-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 기금 관리를 위해 고용된 사람들에게.
- “마음을 화해시킬” 이들에게.
- 포로와 채무자의 몸값을 위해.
- 알라의 길을 위하여.
- 여행자들을 위해.

얼마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스템은 복잡하다.

샤피 학파에서는 무슬림만이 자카트를 낸다고 주장합니다.

대추야자, 포도, 무화과 같은 과일을 포함한 식량 작물의 경우, 토지의 수분 공급이 비에 의존하는 한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개는 자카트를 5%로 줄입니다. 두 경우 모두 수확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가축은 1년 동안 자유롭게 방목되어야 하며 노동에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낙타 5마리, 소 20마리, 또는 양이나 염소 40마리를 지속적으로 소유하면 5%의 자카트를 납부해야 합니다. 화폐, 금 또는 은으로 지불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경우 2.5%만 납부해야 합니다.

유산, 증여, 기타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자선이 지급됩니다. 또한, 부유한 무슬림들은 종교 단체나 자선 단체, 그리고 종교 사당에 막대한 액수의 증여와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여러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러한 기관들이 정부에 인수되어 특별 부서가 공익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무슬림 신정 시대에는 구호품이 세금처럼 징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경우가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자 카트 기부는 개인에게 맡겨져 있으며, 개인은 이를 가난한 사람들이나 모스크, 또는 종교 단체에 원하는 대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V. 하즈(순례)

이슬람의 다섯 번째 기둥은 메카 순례, 즉 하지입니다. 이는 모든 독실한 무슬림이라면 평생 최소 한 번은 해야 할 일입니다.

십자가 와 초승달

신체적, 재정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수라 3:97 참조). 노예, 정신 질환자, 남편이나 친척이 없는 여성은 예외입니다.

하즈 기간은 음력으로 마지막 달인 쥘히자 월 1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

메카에서는 매월 7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특별한 의식이 거행됩니다. 하지(Hajj)는 다른 시기에 도 행해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만큼의 공로를 얻지 못합니다.

순례자는 메카에 도착하기 전, 의식적인 세수를 하고 두 개의 슬기 없는 튜닉으로 구성된 특별한 예복을 입습니다. 대모스크를 방문하고, 유명한 검은 돌에 입을 맞춘 후, 카바 신전을 일곱 바퀴 돌며, 세 바퀴는 빠르게, 네 바퀴는 천천히 돌게 됩니다.

특별한 기도를 드린 후, 순례자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드리던 곳을 방문하고, 쟈름의 성스러운 샘물을 마신 후 사파와 마르와 언덕 사이를 일곱 번 달립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메카에서 몇 마일 떨어진 아라파트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후 미나에서 첫 번째 기둥, 중간 기둥, 그리고 큰 악마로 알려진 세 개의 석조 기둥에 일곱 개의 조약돌을 던집니다. 이 의식은 희생의 축일인 이드 알 아드하 (희생의 축제) 에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 이후 대부분의 순례자는 메디나에 있는 무함마드의 무덤을 참배합니다.

무슬림은 움라(Umra) 또는 "작은 순례" 라고 알려진 메카를 더 짧게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 순례자는 먼저 카바로 갑니다. 그는 북쪽 문을 통해 모스크에 들어가 카바 벽에 세워진 검은 돌에 다가간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 일곱 바퀴를 돌며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기도를 위해서 있던 곳 뒤편으로 두 라카(rak'as) "바퀴 또는 주기"를 돌고, 쟈름(Zemzem)의 신성한 샘물을 마시고 작별의 의미로 검은 돌을 다시 만집니다. 그 후, 그는 알-사파(al-Safa) 문을 통해 모스크를 떠나 움라의 두 번째 필수 부분인 알-사파와 마르와(Marwa) 사이를 달리는 순례를 합니다. 그는 이 두 언덕 사이를 일곱 번 돌며 매번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머리를 깎습니다.

하즈와 움라 의식은 이슬람 이전 시대로부터 이어졌습니다.

VI. 지하드(성전)

지하드는 이슬람의 전쟁입니다. 무슬림들은 세계를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다르 알 이슬람 ("이슬람의 집"), 다르 알 하르브 ("전쟁의 집"), 다르 알 솔흐 ("합의의 집")입니다.

"이슬람의 집"은 이미 무슬림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모든 이슬람 법령이 제정되고 무슬림 주권자가 통치하는 지역을 포함합니다. 주민들은 주로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의 지배에 복종하는 비무슬림은 국가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장받지만, 완전한 시민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무슬림은 우상 숭배자가 아닌 "성경의 백성"이라 불리는 유대인과 기독교인, 즉 아흘 알 키تاب(Ahl al-Kitab)가 되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무슬림 국가는 비무슬림 세계와 끊임없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집"이 아닌 땅은 "전쟁의 집"에 인접하지 않는 한 "전쟁의 집"이 되지 않습니다. 무슬림 국가가 "전쟁의 집"이 되면 모든 무슬림은 그 나라에서 철수해야 하며, 남편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아내는 이혼해야 합니다. 일부 교회법 학파는 비무슬림 국가가 이슬람에 조공을 바치는 관계에 있는 "합의의 집"이라는 세 번째 지위를 인정합니다. 이는 아마도 무함마드가 나즈란의 기독교인들과 맺은 조약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나즈란의 기독교인들은 지즈아라는 공물을 바치는 대가로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지하드는 일반적인 의무이며(비록 공동체의 몇몇 대표적 구성원에 의해 충분히 수행되긴 하지만), 전 세계가 무슬림이 될 때까지 의무로 남습니다.

신앙의 수호자인 칼리프는 매년 군대를 동원하고, 승리가 확실하다면 비무슬림 국가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과거 의무였습니다. 칼리프가 이웃 국가들과 맺은 조약은 기한이 있는 휴전이었습니다.

세속적인 터키 공화국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영구적인 조약 체결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은 적을 무자비하게 대한다.

5장 33절

알라와 그의 사자를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고 그 땅에서 부패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손에 죽임을 당할 뿐이니라

그리고 발은 서로 반대편에서 잘리거나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타락할 것이고, 내세에서는 엄중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꾸란은 무슬림들에게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을 친구로 삼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비무슬림에 대한 이러한 불신은 꾸란 전반에 걸쳐 강조되어 있습니다(수라 3:118, 5:51 참조). 지하드 촉구라는 배경 속에서, 이러한 불관용은 무슬림이 무슬림 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교류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일부 현대 사상가들은 꾸란의 다른 구절에서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에 대해 호의적인 내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통 무슬림들은 더 적대적인 후대의 구절들(위의 수라 5:33 포함)이 이전 구절들을 삭제, 폐기, 대체했다고 믿습니다.

이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신의 최종 계시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신앙의 유일한 수호자인 무슬림은 신으로부터 꾸란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하드는 이러한 믿음의 논리적 표현입니다.

7 이슬람 종파

이 책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니파 이슬람을 다루었습니다.

수니파는 세계 무슬림의 다수파입니다. 순나(Sunna)라는 단어는 "하디스를 통해 전승된, 특히 무함마드의 삶의 방식과 관습"을 의미합니다. 수니파 무슬림은 순나와 칼리프의 역사적 계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유사한 뿌리를 가진 중요한 전통이 적어도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시아파와 수피파입니다.

I. 시아파 무슬림

시아파는 몇 가지 분명한 측면에서 시아파와 다릅니다. 시아파는 다섯 가지 하디스를 인정하고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와 그녀의 아들 후세인을 신앙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파 간에는 상당한 의견 일치가 있습니다. 두 종파 모두 신앙과 실천에 있어 쿠란을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두 종파 모두 동일한 관습과 전통을 중시하며, 궁극적인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존경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역사적 분리는 무함마드의 아내들 사이의 시기와 악의에서 비롯됩니다(수라 33:28-34 참조). 무함마드는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에게 깊은 애정을 품었고, 알리는 이슬람의 대의를 위해 충성과 용기로 빛을 갠했습니다. 어느 날 무함마드는 알리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리를 바라보는 것은 헌신입니다. 나는 도시이고 알리는 문입니다."

무함마드가 죽은 후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무슬림들이 습격했습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이교도의 영토를 침략하고 이슬람의 급속한 확장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내부 분열로 분열되었습니다. 네 명의 칼리프 중 세 명이 암살당했습니다. 무함마드가 가장 아끼던 아내 아이샤는 먼저 우스만을, 그리고 그다음에는 알리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었습니다. 알리가 추종자들에게 지하드를 지지하라고 촉구했을 때 ("나는 너희를 밤낮으로, 은밀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군대와 싸우라고 불렀다. 그들이 너희를 공격하기 전에 공격하라."), 그는 그들의 공격을 이교도가 아닌 동료 무슬림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알리의 본거지는 이라크 쿠파였습니다. 이후 쿠파는 시아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서기 661년 알리가 전사하자 그의 아들 후세인은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메카에서 쿠파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쿠파는 이를 거부했고, 후세인은 소규모 병력을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변 카르발라에서 전사했습니다. 이 전투는 서기 680년 무하람 월 10일로, 시아파에게 금식과 애도의 날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치적 의미가 크지 않았지만, 후세인의 죽음은 그의 대의를 위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 대의는 적어도 세 가지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할 알 바이트 (무함마드 가문의 당), 이마미스 ("지도자"), 그리고 십이이르파(시아파가 숭배하는 이맘의 수를 나타냄)입니다. 시아파를 다수파인 수니파와 구분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지배권, 인종, 비밀주의, 메시아주의, 그리고 교리입니다.

1. 도미니언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갈등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슬람 국가를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

칼리프는 세습으로 임명되어야 했는가? 계승은 저명한 메카인들에게만 국한되었는가, 아니면 경건한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그 특권을 추구할 수 있었는가?

시아파의 관점에서는 영적, 세속적 지도력 모두 알리 가문에 당연히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함마드가 알리에게, 그리고 그 후 알리의 후손들에게 계승권을 물려주었다고 추정합니다. 알리의 아들들은 그의 딸 파티마를 통해 예언자의 손자들이었습니다. 신성한 햇불은 무함마드에게서 물려받아 알리의 후손인 이맘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알 가질리는 무함마드가 "알리, 너는 나에게 모세에게 아론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했다고 인용합니다. 사실 이 하디스는 세습 원칙을 제시하지 않지만, 그러한 믿음은 시아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시아파는 알리가 최초의 시아파로 여겨지기 때문에 12파라고 불립니다.

정통 이맘 계열에는 열두 명의 이맘이 있었다. 그의 장남 하산은 아내 중 한 명에게 독살당하여 두 번째 이맘이 되었고, 그 다음 아들 후세인은 카르 발라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이 운동 최초의 순교 성인을 배출했으며, 세 번째 이맘이 되었다. 이후 후세인의 아들 알리(네 번째 이맘)와 그의 손자 무함마드(다섯 번째 이맘)를 거쳐 이 계통은 아무런 이의 없이 계승되어야 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맘 무함마드는 알리의 둘째 아들이었고, 그의 형 자이드는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함마드가 이맘에 오르자, 계승은 오직 장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던 시아파가 분열하여 자이드파, 즉 파이버파를 형성했습니다. 자이드는 자식이 없었기에 파이버파는 자이드가 진정한 다섯 번째 이맘이자 마지막 이맘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세대 후, 비슷한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맘 자파르(무함마드의 후계자)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경쟁 세력이 분열하여 죽은 아들 이스마일을 일곱 번째 이맘으로 인정하고 스스로를 이스마일파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주류 시아파 운동에서는 자파르의 아들 무사(일곱 번째 이맘)가 살아남았고, 리다(여덟 번째 이맘)가 메시드에서 순교했는데, 이곳은 후에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알 자와드, 알 나키, 알 아스카리, 이렇게 각각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이맘이 등장했습니다. 이 이맘들은 거의 모두 수니파 적대자들에게 살해되거나 독살당했습니다. 하지만 열두 번째 이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맘 계통을 완성한 인물은 무함마드 알 마흐디였습니다. 그는 서기 880년경에 자취를 감추었고, 이로써 기대되는 자, 알 문타자르의 전설이 탄생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종말에 돌아올 것이며, 이맘 알 자만 ("시간의 지도자")과 후자틀라 ("신의 징조 또는 증거")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2. 인종

초창기 시아파의 대부분은 아랍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비아랍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이들은 마왈리 ("피신탁인")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예배 언어는 아랍어였지만, 아람인, 칼데아인, 페르시아인이라는 인종적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아랍인들은 정복한 땅의 경제를 장악하고 인두세를 부과했습니다. 부패한 세무 관리들은 희생자들에게서 돈을 착취했고, 피지배 지역의 주지사들은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들. 많은 마알리족이 이러한 불평등에 항의하며 시아파에 합류했습니다. 이것이 시아파가 점차 페르시아와 이라크 남부의 국교가 된 한 가지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정통 수니파 이슬람이 페르시아인들의 기질에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예술적이고 신비주의적이며 비밀스러운 성향을 보입니다. 순교자와 성인으로 치장된 시아파는 무슬림 신앙에서 이러한 불만을 품은 계층을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대규모 시아파 인구는 레바논(아랍계가 아닌 것으로 추정됨)과 인도, 파키스탄에도 있습니다.

3. 비밀 유지

시아파 이슬람은 오직 선택된 내부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비밀 지식"을 자랑합니다. 시아파 무슬림들은 신이 예언자의 딸이자 알리의 아내인 파티마에게 특별한 계시를 내렸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이맘이 모든 것을 보고 우주의 신비를 밝혀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이맘들이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란의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알라와 그의 예언자들의 마음을 대중에게 해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끊어진 계승 계통에서 일종의 무오류 교황이었던 것입니다.

시아파 이슬람은 알리와 그의 가문의 위상을 높이는 구절들을 꾸란 본문에 추가합니다. 수라 4장 166절은 "알라는 그분의 지식으로 너희에게 계시하신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시아파는 "알리에 관하여"라는 구절을 추가합니다. 수라 5장 67절은 "오 사도여, 주께서 너희에게 계시하신 것을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시아파는 여기에 "알리에 관하여"라는 구절을 추가합니다. 수라 3장 110절은 "너희는 세워진 가장 훌륭한 민족이었다. 너희는 선을 명령하고 악을 금한다"라고 말합니다. 시아파는 "민족" (움마) 을 "이맘" (아임마)으로 바꿉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스마일파와 드루즈파가 더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시아파 내부의 비밀스러운 종파의 명백한 예입니다.

이스마일파는 이란의 은총 이념에 영지주의적 사상, 그리고 엘리트에게 유리한 마니교적 종교를 결합합니다. 숫자 7은 신성한 의미를 지녔는데, 이스마일파는 일곱 명의 입법 예언자(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 무함마드 알탐)와 하강하는 우주 체계의 일곱 단계(신, 우주의 정신, 우주의 영혼, 원초적 물질, 공간, 시간)를 인정합니다.

세계). 카르마티아인들은 이와 유사한 종파로서 사랑의 잔치를 열었고, 일곱 가지 입문 단계를 제안했습니다.

드루즈족은 파티마 왕조의 통치자였던 하킴에게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미쳐서 스스로를 알라라고 선포했습니다. 드루즈족은 공동체를 두 계층으로 나눕니다. 우칼 (신비의 의식을 가진 자)과 주할(신비의 의식을 가진 자)입니다.

("무지한") - 전형적으로 난해한 계층 구분.

4. 메시아주의

기독교인들에게 이는 종종 시아파 종교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입니다. 시아파 메시아, 때로는 마흐디라고도 불리는 그는 이맘직, 특히 초대 이맘, 세 번째 이맘, 그리고 마지막 이맘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 이맘은 받아들여진 메시아의 특징을 반영합니다. 순교자 마흐디는 그 자체로 생생하고, 이상화되고, 낭만적이며, 숭배에 버금가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민족을 위해 희생된 희생자로서 고통과 시련, 그리고 죽음을 견뎌냅니다. 결국 그는 중재자, 중재자, 또는 심지어 구세주로서 이 땅에 돌아올 것입니다.

일부 시아파는 자신들의 이맘이 신적 본성에 참여한다고 여깁니다. 열두 번째 이맘의 기이한 실종(이를 "숨김"이라고 함)은 수 세기에 걸쳐 이맘직에 얽힌 신비를 더욱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더욱 극단적인 시아파 집단 중 일부는 알리, 파티마, 후세인이 아담보다 먼저 창조되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선재와 준신성이라는 개념은 신의 인도를 받는 메시아라는 개념과 잘 들어맞습니다.

희생 제물이자 순교자로서의 메시아라는 관념은 후세인에게 가장 강하게 뿌리내렸으며, 이는 시아파의 아슈라라는 놀라운 관습을 낳았습니다. 무슬림력의 첫 달인 무하람 (Muharram) 이 시작되면 시아파는 카르발라에서 순교한 후세인을 기리며 10일간의 애도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막에서의 그의 시련, 그의 용기, 그리고 그의 잔혹한 최후를 극화하여 그의 죽음을 재연합니다. 많은 "축하객"들이 자신의 몸을 베고 피가 흐르는 거리를 행진합니다. 이 날은 죄를 위한 속죄일이지만, 원수에 대한 용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후세인의 수난극에서 발췌한 내용은 시아파의 강렬한 감정을 보여줍니다. 후세인은 "나는..."라고 외쳤습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고통의 화살에 겨누려라. 그들은 아무 죄나 죄책감 없이 나를 죽이려 한다. 내가 예언자의 손자라는 사실만 빼면. 우리의 처지를 동정하는 이가 있을까? 내가 원한다면 달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내 백성의 죄를 위해 제물을 바치며 죽는다. 그들이 진노에서 구원받도록. 부활 때 나는 그들의 증보자다."

그래서 후세인은 자신에게 닥칠 영광의 운명적인 순간을 알지 못한 채 속죄자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어떻게든 충족되어야 합니다. 카르발라의 전설 속에서도, 골고다의 역사 속에서도 말입니다.

부하리는 무함마드가 어느 날 "마흐디가 내 후손이 되어 7일 동안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약속했다고 전합니다. 마지막 이맘인 알-문타자르 ("기대되는 자")는 바그다드 근처 우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아파는 그가 아직 살아 있으며 최후의 날에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븐 할둔은 그의 세대에 독실한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 부재중인 이맘에게 나타나 달라고 간청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시아파 전통에 따르면, 주요 신비주의가 끝나면 순수한 존재인 마흐디와 예수가 적그리스도를 파괴하고 세상이 진정한 종교의 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5. 독단주의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에는 세 가지 주요 교리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 이맘의 역할. 수니파에게 이맘은 회중 기도의 인도자입니다. 하디스에 따르면, "신의 경전에 가장 정통한 자가 백성을 대표하여 이맘으로 행동해야 한다." 시아파에서 이맘은 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반신격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모든 이맘은 선재하는 빛으로 창조되었으며, 죄 없고 오류 없이 보존되었다는 것이 시아파의 신앙입니다. 수니파에게 새로운 진리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시아파는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믿었던 것처럼) 이맘의 대리인에게 새로운 진리가 전달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경건한 기만. 시아파는 종교적 위장의 원칙인 타키야(Taqiyyah, "경건한 허위")를 인정합니다.

시아파는 박해나 압력을 받을 때 피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타협하거나 신조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 무타 결혼 ("즐거운 결혼"). 수니파와 시아파의 결혼법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시아파가 남녀 간의 임시 계약을 수락한다는 점인데, 계약의 효력 발생에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타(Mut'a)는 "즐거움"을 의미하며, 이것이 이 관계의 유일한 목적인 듯합니다. 무함마드가 무타를 허용했다고 전해지지만, 수니파는 그 주장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본문은 모호합니다. "모든 기혼 여성은 너희에게 금지되어 있다. 다만 너희 오른손이 소유한 포로들만 허용된다. 이는 알라께서 너희에게 내리신 명령이다. 23절에 언급된 여성들 외에는 모두 너희에게 허용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재산을 가지고 정직한 결혼 생활을 하며 그들을 구해야지, 방탕하게 구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무로서 그들의 몫을 주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한 후에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알라는 전지전능하시다."

(수라 4:24) 무타(Mut'a)는 당사자들이 정한 기간을 요구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그 연결은 끊어집니다. 이러한 편의 결혼은 이란 시골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학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여성을 비하하며, 특히 널리 알려진 간통녀 처형은 위선적인 행위로 여겨집니다.

II. 수피즘

수피즘은 신에 대한 지식을 통해 모든 것을 이해하며, 신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지식으로는 갈급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형식적인 신조나 이성적인 담론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는 "신비의 길"이라는 탐구를 시작합니다.

바다에 떨어지는 소금알처럼, 신비가는 자신이 다양한 이름을 가진 존재의 광활함 속에 녹아들기를 기대합니다. 그는 자신의 개별적인 존재가 모든 것을 포용하는 통일체로, 자아의 삶이 통합적인 사랑으로 녹아드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내면에는 수많은 신비의 길이 있으며,

이슬람을 넘어, 다른 신앙의 신비주의자들과 함께 수피파는 하나됨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을 추구합니다.

1. 수피즘의 기원과 영향

정통적인 무슬림 가르침이 수피즘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기독교가 수피즘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명사 수피(Sufi)는 아마도 아랍어 suf 에서 유래했을 것입니다. ("양모")는 초기 수피 수도사들이 입었던 거친 모직 옷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어원들도 제시되었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safa "(순수함), "suffah" (메디나 최초의 모스크에 모인 신도들을 일렬로 세운 것을 지칭), 심지어 그리스어 "sophos "(지혜) 등이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도 초기 수피즘은 기독교 수도원주의를 모델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무슬림 전통에서 "이슬람에는 수도원주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피교도들은 호칭 기도문 낭송을 맡았고, 수도원의 관습에 가까운 것을 채택했으며, 독신 생활을 지켰다. 알바스리는 "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바라신다면, 그가 가족과 자녀 때문에 바쁘게 지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썼다.

하지만 수피즘은 다양한 형태를 띠었고, 음식을 삼가고, 신 앞에서 침묵하며, 외부 공동체로부터 도피하는 자히드 ("금욕")와는 다른 길을 추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수피들은 파키르 ("빈민")의 가난을 받아들이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되지 않기를 추구합니다. 다른 수피들은 이 두 가지 길을 모두 받아들이지만, 수피즘의 본질은 금욕과 가난이 시작일 뿐인 다른 무언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2. 수피즘의 선구자들

서기 700년경부터 무슬림 전통에는 참회와 신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기 위해 거친 양모 옷을 입는 독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세기 후, 이라크에는 수피야(sufiyyah)라고 불리는 수도사 집단이 있었습니다. 서기 900년 경에는 위대한 수피파인 알주나이드(al-Junayd)를 포함한 신비주의자들의 길드가 바그다드에서 번성했습니다.

수피즘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했습니다. 수도원주의가 지배적이었던 초기 단계에서 수피들은 마음과 애정을 미래에 대한 희망에 두었습니다. 후기 단계에서는

범신론적 신비주의로 나아가면서, 그들은 신과의 현재적 결합에서 얻을 수 있는 황홀경을 추구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전환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일신교도 중 한 명인 다라니는 "관상은 자기 고행의 결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범신론자 알 루미는 후에 "네 몸은 고행하고, 네 육신은 고통으로 타들어 가도... 너는 신의 하나됨이 네게 유익함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두 수피스트 신비가 적어도 한 가지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수피즘은 대체로 이슬람 정통파에 대한 반발을 나타냅니다. 정통 무슬림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체계를 발전시키면서, 그들의 신 개념은 점점 더 추상적이고 비인격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정통 이슬람은 알라에게 적용되는 인격성 개념을 싫어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원시 수피즘은 주님과 따듯하고 친밀한 관계를 갈망했으며, 이러한 희망에 대한 근거를 꾸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믿는 자는 알라를 더욱 열렬히 사랑한다"(수라 2:165)와 "알라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을 인도하시리니, 그들은 믿는 자에게는 겸손하고, 불신자에게는 엄격하며, 알라의 길을 따라 노력한다"(수라 5:54)와 같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또한, 무슬림 시대 2세기와 3세기에 아랍인들은 성공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칼리프들은 사치스럽게 살았고, 풍요와 지위 추구에 몰두하여 사색할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무슬림 동방의 여러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나 사람들을 만연한 부패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3.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포기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신의 사랑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수피파 신봉자들 중 몇몇은 신의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바스라의 라비아 알-아다위아(801년 사망)의 경험은 주목할 만합니다. 예루살렘에 무덤이 있고, 후에 순례자들이 자주 찾게 된 그녀는 수피 여성 성인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로, 하느님에 대한 운율함과 열렬한 사랑으로 유명합니다. 화상하기 전에는 인기 있는 음악가, 즉 사랑 노래를 부르는 가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세상에서 벗어나 하느님께로 향했습니다. 그 사랑은 정화되어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느님, 제가 두려움으로 당신을 경배한다면,

십자가와 초승달

지옥이며, 저를 지옥에서 불태워 주소서. 제가 천국을 바라며 당신을 경배한다면, 저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나 제가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을 경배한다면, 당신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누군가 그녀에게 "악마를 미워하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은 악마를 미워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꿈에서 예언자[무함마드]를 봤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오, 하나님의 사도여, 누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사랑도 마음속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4. 타리카 (Tariqa, "경로")와 그 단계

타리카는 수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길입니다. 수피교도들은 집단적 조직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동방 교회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셀(소)에 모여 쿠란을 낭송하고 종교적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예배 형식이 발전했고, 디크르 ("신을 기억하는")는 그들의 모임에서 정기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신께 용서를 구합니다. 신께 영광을."

신께서 우리 주인[무함마드]과 그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각 문구는 백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수피파는 디크르와 함께 사마(sama)라는 종교 공연을 도입했는데, 이는 황홀경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춤이나 옷을 찢는 행위가 특징이었습니다. 정통파 무슬림들은 이러한 열정적인 행위에 못마땅해했습니다. 디크르와 사마가 모스크에서의 공적 예배를 대체할까 봐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타리카 자체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알 가잘리는 사람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건너야 하는 일곱 바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회개, 금욕(때때로 쾌락을 멀리하는 것), 포기(모든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행위를 포기하는 것), 가난(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신에 대한 의존을 장려하는 것), 인내, 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만족입니다.

셰이크 ("지도자")는 일반적으로 구도자를 이러한 단계들을 통해 안내하며, 이 특별한 훈련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수피의 여정은 모든 단계를 완료하고 모든 적절한 감정을 경험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승격되며, 그곳에서 "구도자"는 "아는 자"가 되고, "아는 자"와 "알려진 자"는 하나가 됩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합일의 달성은

신은 어떤 이에게는 황홀경으로 나타나고, 어떤 이에게는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인도의 수피파는 불교의 열반(涅槃)에서 파나(Fana', 죽음)라는 개념을 차용했지만, 파나는 신 안에서 바카(Baqa', 생존)를 통해 보상받는다고 믿습니다. 바그다드의 위대한 수피파 주나이드가 표현했듯이, "신은 당신이 자아를 죽이고 신 안에서 살도록 하신다." 수피파에게 자아는 최후의 적이며, 무엇보다도 부정하고 억압해야 할 대상입니다.

5. 수피즘 비판

모든 신비주의와 마찬가지로 수피즘도 비판받기 쉽습니다. 일상의 복잡성으로부터 도피하는 도피주의적이며,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합니다. 주관적인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특히 중세 시대에는 사기꾼과 사기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피즘은 "황금기"에 많은 진실한 제자들을 끌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구도자들은 신과의 연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한 수피스트가 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슬람에서 이러한 것을 찾지 못했고, 배교의 벌을 받을까 봐 이슬람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의 속죄,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기독교 교리에서도 그는 이러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슬람이나 기독교에서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을 발견할 수 없었고, 수피즘에 눈을 돌렸습니다.

i 이 장은 Richard Thomas 박사 의 앞의 책, 118-155쪽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우월성 8 이슬람에서의 예수

꾸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높이 평가합니다. 가르침, 속성, 그리고 행적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꾸란에 93회 등장하거나 언급되며, 무슬림이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바로 이 구절들로 돌아갑니다.

수피파는 예수를 모든 예언자 중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분으로 여깁니다. 자와드 누르바카쉬는 그의 저서 『수피파의 눈에 비친 예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의 어떤 예언자도, 아무리 완벽한 미덕을 지녔다 하더라도, 결코 그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인간의 귀감이자 진정한 스승의 탁월한 본보기입니다... 수피파에게 예수는 궁극적 순수함의 본보기이자 모범입니다. 진정한 수피파는 예수처럼 순수해지기를 갈망합니다. 수피파인 아타르는 '주님, 이 더러운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그러면 제가 예수처럼 불멸의 순수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수피스트 전통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스승님, 우리는 각자 자기 집이 있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계속 집을 짓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내가 부지를 정하고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그들과 함께 다리를 건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장소를 정했어요." 그는 다리를 가리켰다.

"하지만 선생님," 그들은 소리쳤다. "이곳은 건물을 지을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사람들이 건너는 곳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와 초승달

다가올 삶을 위해서요.”

무함마드 자신도 예수를 만나고 싶어했습니다. "만약 제 나이가 더 길어진다면,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저를 재촉한다면, 그분을 만나는 사람은 제 따뜻한 안부를 전하게 해 주십시오."ii 다른 어떤 예언자도 그의 마음속에 그런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디스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들은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이지만, 그들의 종교는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 중에서 저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의 형제가 될 자격이 가장 있습니다. 저와 그분 사이에는 예언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iii

꾸란을 검토하고, 특히 꾸란이 예수에게 부여한 칭호를 살펴보면 이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탁월한 지위가 확인됩니다.

I.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수라 3:45에 따르면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그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빛나시며, 신께 가까이 있는 자들 중 한 분이시니라." 꾸란은 또한 "메시아,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신의 사자이며, 그분께서 마리아에게 맡기신 말씀이며, 그분으로부터 온 영혼이시니라."(수라 4:171)라고 말합니다. 꾸란에서 사도, 예언자, 경고자, 설교자보다 더 높은 칭호인 "신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약성서에서 "말씀"이라는 칭호는 적어도 세 가지 명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씀이 없으시거나 말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소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요한복음 1:1, 2).
-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은 말씀하시는 자의 권위를 지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모든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태복음 28: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사람의 말은 그의 인격을 드러내고 그가 누구 인지를 알려줍니다. 말을 통해 그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요한복음 14:9)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 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한복음 1:18).

알라지, 알잘랄란 등은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린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아담에게는 이 칭호가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아담을 존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둘째, 쿠란의 "메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분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말씀" 자체가 인격체임을 확증합니다. 아랍어 이스무후 ("그분의 이름")는 남성형으로, 칼리마 ("말씀") 를 지칭하는데, 칼리마는 아랍어로 여성형입니다. 셋째, 사물의 창조 방식을 따라 이름을 붙이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없습니다. 이 책은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되었지만, 우리는 이 책을 워드 프로세서라고 부르지 않고 책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명령의 말씀으로 예수를 창조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를 칼리마 ("말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명령 자체가 아니라 명령의 산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II.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꾸란에는 "그분에게서 온 영"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꾸란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별하기 위해 이 칭호를 사용하셨다고 명백히 말합니다.

"그분에게서 온 영"으로서 예수님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에 온전히 참여하십니다. 꾸란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진흙으로 새의 형상을 만들겠다 (아클루쿠). 그리고 내가 그것에 숨을 불어넣으리니, 그것은 새가 되리라. 이는 알라의 허락에 의한 것이다"(수라 3:49). 꾸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는 내 허락에 따라 진흙으로 새의 형상을 만들 것이다 (타클루쿠)." (수라 5:110)

대부분의 꾸란 영어 번역은 동사 아흐루쿠(akhluku) 를 "나는 형성한다", "나는 만든다", "나는 형상을 만든다"로 번역합니다. 정확하고 정직한 번역은 "나는 창조한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와 여자가 관대함, 정의,

십자가와 초승달

자비와 자애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당신의 예언자들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고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행위는 오직 당신께만 맡겨 두셨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으로 만든 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주장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기 위해 땅의 흙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필연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과 같아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우상 숭배자에 대한 꾸란의 조롱과 비교해 보세요.

22장 73절

분명 하느님을 떠나 당신이 부르는 자들은, 설령 그들이 함께 모여 파리를 만들더라도, 결코 파리 한 마리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리가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훔쳐 간다 해도, 그들은 결코 그것을 그에게서 구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찾는 자와 찾는 자는 모두 참으로 연약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창조적인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켰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요한복음 11장 참조). 또한 선천적으로 눈먼 사람을 고치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요한복음 9장 참조).

III. 예수님은 태중에서부터 인정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이 직할 구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태 유태인에서 자이십니다. 천사들은 스가랴에게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할 것이다"(수라 3:39)라고 말합니다. 알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예수(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선택한 것입니다."라고 확증합니다. 하지만 "확증"은 예수가 요르단 강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븐 카티르처럼 알라지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요한(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둘 다 임신 중이었는데, 한 명은 예수를, 다른 한 명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랴의 아내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제 안에 계신 분이 당신 안에 계신 분께 절하시기를 보았습니다.'"

알라지(al-Razi)에 따르면 무함마드의 사촌 이븐 아바스(Ibn Abbas)는 요한이 예수보다 6개월 나이가 많았으며 예수를 믿고 확증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말로 이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

무슬림들은 세례자 요한을 위대한 예언자로 여깁니다. 알 수유티는 수라 3장 39절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온 자가 요한을 불러 말하길, 요한 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 자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잘랄란은 같은 구절을 주석하며 세례자 요한을 "종교에서 권위와 모범으로 추앙받는 탁월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높은 소명을 받았고 연령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꾸란은 그가 태 중에서 예수에게 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큰 존경과 영예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 그 이상이 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IV. 예수님은 기적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꾸란 19장 19-21절에서 천사 지브릴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 이라크 학자 ¹는 아들', '흠 없는 아들')의 선물을 당신에게 알려려고 왔을 뿐입니다." 마리아가 대답 하되, "아무도 나를 만진 적이 없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니,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지브릴이 말했다. "그렇게 될 것이오. 그대의 주께서 말씀하시오. '그것은 내게 쉬운 일이 오. 우리는 그를 사람들에게 표징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비로 임명하고자 하오. 이는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꾸란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6장 12절

그리고 순결을 지킨 임란의 딸 마리아에게 우리는 우리의 영을 불어넣었고, 그녀는 주님의 말씀과 계시의 진실성을 증거했으며, 독실한 하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 알 수되는 이렇게 평합니다. "천사 지브릴이 마리아의 소매를 가져다가 그 안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숨결이 마리아의 가슴에 닿았고, 그녀는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꾸란은 또한 예수님이 "알라의 사자이며, 마리아에게 맡긴 말씀이며, 그분에게서 온 영혼이었다"(수라 4:171)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인간 아버지에 의해 잉태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적적인 잉태와 탄생을 축소하려는 무슬림들은 그를 아담과 비교합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닙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하와처럼 기적에 의해서만 창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한 필연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단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람들에게 표적과 우리에게서 오는 긍휼로 삼으려 함이로다."

(수라 19:21)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 동등한 이가 없습니다. 그는 가장 높은 지위에 계십니다.

알바이다위는 예수의 탄생이 기적적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러한 신성한 방식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하나님의 사자 가운데서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V.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모두 탁월하십니다.

꾸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어진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하 시니, 그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어 알라께 가까이 서게 될 것이다."(수라 3:45)

알라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천사들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큰 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묘사를 통해 예수님을 천사들과 동일한 지위와 등급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천사는 지브릴이었는데, 그는 하나님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천사이자 가장 위대한 천사였습니다. 지브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로 다음가는 천사였습니다. 무슬림들은 그를 성령으로 여긴다."

알-라지에 따르면, 지브릴은 신과 친밀한 관계를 누립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흠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우리의 영을 보냈습니다"(수라 19:17)의 의미를 설명하며, 알-라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께서는 지브릴을 자신의 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종교 생활의 원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영'이라고 말하듯, 그분에 대한 사랑과 친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지브릴과의 교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선물의 가치는 받는 사람의 가치를 가늠합니다. 성령과의 영원한 동행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랍어로 "저명한"은 와지 흐(wajih)이며, 그 어근은 와지 흐 (wajh, "얼굴")입니다. 수라 3장 45절에 대한 해설에서 알-라지(al-Razi)는 와지흐가

이슬람 에서 예수 의 우월성

얼굴이 신체에서 가장 존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도시의 가장 중요한 시민들은 워자(wojha'a, 와지흐 의 복수형)라고 불립니다. 몸에 얼굴이 하나뿐인 것처럼, 이 세상과 내세에서 구별되는 사람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의 탁월함은 영원토록 지속적이며 최종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와지흐 ("뛰어난, 뛰어난")이십니다. 그분의 요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와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내세에서도 와지흐 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당신의 참된 백성을 위해 중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중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중보 사역은 죽음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다가올 세상에서 그분의 중보는 지옥보다 더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신 탁월함은 다가올 세상에서 누리실 탁월함을 가능하게 하는 척도입니다.

알바이다위는 수라 3장 45절을 주석하며, 예수의 탁월함은 지상 생활과 내세 모두에서 비할 데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수라 2장 235절을 주석하며, "신께서는 예수의 기적을 그의 승천의 이유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분명한 표적이자 위대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기적들을 종합해 보면, 그 누구도 행하지 않은 기적들이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알자마크사리는 수라 3장 45절을 해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탁월함은 예언과 인간보다 앞서서 것을 의미하며, 저 세상에서는 중재와 낙원에서의 지위 향상을 의미합니다." 수라 39장 44절에서 꾸란은 중재할 권리를 오직 신에게만 부여합니다. 그러나 수라 3장 45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탁월하시기 때문에 중재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슬람 신학 (피크흐) 의 역사는 중재자의 절실한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수라 37장 107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아브라함의 아들]를 엄청난 희생으로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재와 속죄에 대한 이러한 자연스러운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사실, 꾸란은 무슬림들에게 "모세를 해친 자들처럼 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말을 그에게서 떠나게 하셨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높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수라 33:69). 그러나 모세의 탁월함은 필멸의 세상에 국한되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알라지에 따르면, 예수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십자가와 초승달

다음은 중재의 직무와 천국의 지위에 걸맞는 것입니다. 모든 고귀한 사람이 높은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계급과 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 무리로 나뉘고,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다. 그들이 가까이 오게 될 것이다.' (수라 56:7, 10, 11 참조)

성경도 "모세는 온 집안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으나 그리스도는 자기 집안의 아들로 충성하였느니라"(히브리서 3:5-6)라고 말씀하며 동일한 구분을 합니다. 중재에 있어서 꾸란은 예수를 무함마드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놓습니다.

그러므로 알라는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든지 말든지, 만일 너희가 그들을 위해 일흔 번 용서를 구하더라도 알라는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수라 9:80)

6. 예수님은 무오하십니다.

수라 19:19에는 마리아에게 말하는 천사인 예수님을 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이안(거룩한 아들이 없는 아들)은 불행과 죄악의 예수만이 죄 없는 분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알바이다위는 "거룩한 아들"은 "죄에서 깨끗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케이안이라는 단어는 수라 18장 74절에서도 어린 소년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며, 알잘랄란은 이를 "다른 영혼을 살해한 것으로부터 깨끗한"으로 번역합니다. 부하리에 따르면, 무함마드는 "아담의 모든 자식은 태어나자마자 사탄이 두 손가락으로 그의 몸 양쪽을 찌릅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예외인데, 사탄은 예수에게 손을 대려다 커튼을 건어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처럼 꾸란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아담(수라 20:121), 노아(수라 71:26-28), 아브라함(수라 37:89), 아론(수라 7:150-152), 모세(수라 28:15, 16), 그리고 다윗(수라 38:20-25)의 죄를 언급합니다. 또한 무함마드가 죄를 지었다고도 언급합니다. 어느 날 알라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네 가슴을 열어 네 등에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덜어주지 아니하였느냐?"(수라 94:1-3).

또 다른 때에 알라께서 말씀하셨다. "분명히 우리는 너희에게 확실한 승리를 주었으니, 알라께서 너희의 이전 죄와 이후 죄를 용서하시리라"(수라 48:2; 또한 수라 40:55, 4:106, 47:19 참조).

수라 9:43에서 무함마드는 "알라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왜

"너희는 그들 중 누가 진실을 말했는지, 그리고 너희가 거짓말쟁이를 알았는지 분명해질 때까지 그들에게 허락하겠느냐?" 수라 80:1-4에서 무함마드가 맹인을 무시한 후,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무함마드)는 눈먼 사람이 그에게 왔기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혹은 주의를 기울여 깨달음이 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외에 무엇이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겠는가?"

하디스에 따르면 무함마드는 “하루에 일흔 번 이상 용서를 구하고 알라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부하리는 무함마드의 다음과 같은 기도를 기록합니다.

오, 알라! 제 잘못과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제 행동이 정의의 한계를 넘었던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오, 알라!

농담이든 진지하게든 내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실수든 의도적이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 알라! 눈과 우박의 물로 제 죄를 씻어 주시고, 흰 옷이 더러움을 씻어내듯 제 마음에서 모든 죄를 씻어 주소서. 동서양을 멀리 하셨듯이 저와 제 죄 사이에도 먼 거리를 주소서.

부하리는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용서를 구했습니다."vi 꾸란은 인류 전체의 타락에 대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수라 2:36, 7:24, 11:9, 12:53, 100:6 참조).

하디스는 "사탄은 마치 피가 사람의 마음속을 돌듯이 사람의 마음속에 순환한다"라고 말합니다.7 그러나 꾸란이나 하디스는 예수님의 죄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경전 모두 예수님의 비할 데 없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증거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나 사도라도 스스로 무오류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망하겠느냐?"(요한복음 8:46)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 임금[사탄]이 오겠으나 그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요한복음 14:30)라고 선포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을 심문했을 때, 그분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요한복음 18:38, 19:4, 6 참조). 빌라도 자신은 재판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이 의인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라고 선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7:24)

VII. 예수님은 높고 높여지셨습니다.

꾸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장 253절

우리는 그 사도들 중 일부를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알려가서 직접 말씀하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높은 지위로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께 분명한 표징을 보여 드리고 성령으로 그분을 강하게 해 드렸습니다.

꾸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 승천하셨으며, 오늘날에도 살아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분을 죽인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그분[예수]을 당신께로 승천시키셨으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수라 4:157-158). 꾸란은 알려가서 "예수야, 내가 너를 내게로 승천시키리라"(수라 3:55)라고 말씀하셨다고 인용합니다.



무슬림들은 다른 예언자들도 승천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맥락은 항상 다릅니다. 꾸란에서 알라가 무함마드에게 "우리가 너의 명성을 높이지 않았느냐?"(수라 94:4)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용할 때, 그것은 무함마드 자신이 아니라 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 이드리스(에녹)가 “높은 곳으로 올려졌다”고(수라 19:57) 말할 때, 높은 곳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라지는 수라 19장 57절을 해설하면서, "올려지다"라는 말의 더 바람직한 의미는 "들어 올려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드리스를 들어올리는 것은 영적 지위가 아닌 신체적 위치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란에서 신은 예수에게 "내가 너를 내게로 들어 올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수는 신과 함께하기 위해 들어 올려졌습니다. 알라지는 수라 4장 158절에 대해 이렇게 평합니다. "예수께서 들어 올려지셨다는 것은... 이 구절과 수라 3장 55절에 있는 동일한 구절을 통해 확증됩니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높이는 상이 낙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육체적 쾌락보다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은 당신에게 영적인 기쁨에 대한 지식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는 “내가 너를 내게로 들어올리리라”는 말은 “내가 너를 내 영광의 면전으로 들어올리리라”는 뜻이라고 덧붙입니다. 수라 4장 157절에 대해 알라지는 “예수의 영은 거룩하고 높고 천상적이었으며, 신성한 빛으로 강렬하게 빛났고, 천사들의 영과 매우 가까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VIII. 예수님은 축복받으셨습니다.

꾸란에서 예수님은 유람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기도와 자선을 베풀어 주옵소서”(수라 19:31).

알타바리는 "나를 축복하셨다"라는 구절이 "그분께서 나를 모든 선의 스승으로 만드셨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또한 축복받으십니다. 그분의 완전함은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능동적입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시든"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알바이다위는 "축복받았다"는 말을 "다른 이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수라 3장 39절에 대한 주석에서 알라지는 "다른 이들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을 기만에서 살리셨는데, 마치 사람이 영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영이 육신에 주는 생명에 비유합니다. 알바이다위는 수라 3장 49절을 주석하며 예수님께서 "죽은 몸과 죽은 마음을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죄에서 자유로우신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사탄의 기만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꾸란에서 "축복받은" 분으로 묘사된 유일한 분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맥락에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축복받은 책으로 묘사된 꾸란 자체(수라 6:92)에 대해서도 사용됩니다.

십자가 와 초승달

"축복받은"이라고도 불리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들이 지은 메카의 첫 번째 성지(수라 3:96 참조).
- 라일라트 알카드르 (꾸란이 계시된 "권능의 밤" - 수라 44:3 참조).
- 올리브나무의 빛은 신의 빛에 비유되었습니다(수라 24:35 참조).

꾸란 어디에도 "축복받은"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대해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IX. 예수께서 성령으로 확증되고 힘을 얻으심.

꾸란에는 예수님께 강행되어 세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분으로 인정합니다. 이 말씀은 수라 2장 253절에 나와 있습니다. 꾸란에도 알라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10절

오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 내가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해 주소서. 내가 성령으로 당신을 얼마나 강하게 하였는지.

2장 87절

우리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께 분명한 표징을 보여 주었고, 성령으로 그분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수라 2장 87절에 대해 알-라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지브릴[성령]이 독점적으로 주어진 것은 매우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중 단 한 명의 선지자도 그렇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지브릴은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지브릴의 호환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어떤 상황에서든 양육했고, 예수가 가는 곳마다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수라 3장 52-55절을 해설하며 “지브릴은 예수를 한 시간도 떠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브릴은 무함마드만 방문했습니다. 계시가 끝나자 무함마드는 지브릴에게 “지금보다 더 자주 우리를 방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지브릴은 “우리 천사들은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라.”viii

아부 무슬림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불어넣어 탄생 당시 모든 사람과 구별되게 하신 순수한 영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븐 아바스는 “예수에게 불어넣으신 이 ‘영’은 하나님께서 그를 공경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알 수디에 따르면, “성령은 천사 지브릴로, 예수를 도왔고 예수가 그를 하늘로 들어 올릴 때까지 항상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븐 고바이르는 “성령은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신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덧붙입니다. 이븐 아바스는 성령이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신 이름이며, 이 영이 거룩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X.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꾸란에 따르면 예수는 유전된 사람만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메시아, 이사 [예수]라고 불리는 이에게서 온 말씀의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해 주신다.”

(수라 3:45)

알 카세미는 이 구절을 해설하며 “이사(Isa)라는 이름은 아랍어로,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구세주'를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Joshua)와 같은 의미입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지상의 어떤 언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언어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진실과 정의로 완전합니다. 아무도 그분의 말씀을 바꿀 수 없습니다.”(수라 6:116)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구세주”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세상을 다잡 (적그리스도)로부터 구원하실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라 3장 48절에 대한 주석에서 알 수유티는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어떤 마을에 왔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을의 죄인들을 찾으셨고, 세례자 요한은 그 마을의 선한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예수님께 '왜 죄인들을 찾으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사입니다. 오직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알-바이다위는 수라 4:171에 대해 “예수님은 죽은 몸과 죽은 마음을 살리셨기 때문에 영이라고 불렸습니다.”라고 말하며 주석합니다. 알-바이다위는 또한 수라 5:110에 대해 주석하며 성령을 단순히 지브릴이 아니라 “

종교가 살아가는 말씀” 또는 “인간의 영혼이 영원히 살아가는 말씀, [사람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말씀, 또는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장엄한 이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과 육신의 생명을 모두 주고, 사람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할 만큼 강력합니다. 이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속하며, 꾸란에서도 엄밀히 신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알라는 믿는 자들에게 강물이 흐르는 천국을 약속하셨으니, 그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수라 9:72).

수라 3:52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유대인들]의 불신을 깨닫고 말씀하셨다. '누가 알라의 길에서 나를 도울 것인가?' 제자들이 말했다. '우리는 알라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알라를 믿으며, 우리가 항복했음을 증언합니다.'" 알라지는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해설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열두 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부들의 무리를 만났는데, 그들 중에는 시몬, 야곱,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물고기를 잡지만,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기적을 구했습니다. 시몬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셨고,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근처 배에 도움을 요청했고, 두 배 모두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알바이다위는 같은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합니다. "예수께서는 영생을 주는 말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영생을 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신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한낱 인간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증명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선지자라는 증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알라지는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며, "지금은 물고기를 잡겠지만, 나를 따르면 사람들을 낚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늘로 올라가셔서 여전히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꾸란은 무함마드가 "알라의 뜻 외에는 나 자신을 해치거나 유익하게 할 힘이 없다"(수라 10:49)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용합니다.

XI.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정통 이슬람에 따르면 그것은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지구가 세상을 심판하고 다잘 (적그리스도)을 죽이기 위해. ix

하디스에서 알-힌디는 인용문에서 이를 확인합니다.

무함마드의 속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정의로 심판하러 내려올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의로운 재판관이자 정의로운 지도자로 내려올 때까지는 심판의 시간은 오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정의로운 재판관이자 지도자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제 무덤에 오셔서 저에게 인사하실 것이고, 저는 그분께 답례할 것입니다."

"신께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의 손으로 다잘을 죽이실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잘이 그분을 보면, 마치 밀랍이 녹듯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잘을 죽이실 것입니다." x

이븐 마자에 따르면, 무함마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잘은 지상 어느 곳도 떠나지 않고, 메카와 메디나를 제외하고는 그곳을 정복하고 발로 밟을 것입니다. 그가 들어가려고 하는 곳마다 천사들이 칼을 들고 그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는 붉은 언덕에 도착할 것이고, 도시는 세 번 진동할 것입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오, 하나님의 예언자여! 그날 아랍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아랍인들은 적습니다. 예수께서 다잘을 보시면 조금 이 물에 녹듯이 녹아 도망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죽이실 것입니다.'"

알힌디는 무함마드가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우리 민족의 정의로운 통치자이자 의로운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적대감과 증오는 사라지고, 마치 그릇에 물이 채워지듯 온 세상이 평화로 가득 찰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을 인용합니다.

전쟁이 그치고, 그의 통치 아래서 모든 독침이 없어질 것이니, 어린아이가 뱀을 만져도 다치지 아니하고 사자를 만져도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요, 이리가 양 떼 가운데서 개와 같고, 채소가 곡식을 맺고,

십자가 와 초승달

아담의 시대. 온 땅이 경작될 것이기 때문이다.”xii

그렇다면 예수는 정의로운 통치자이자 신성한 복수자입니다. 이와는 현저히 대조적으로, 무함마드 자신은 하디스 xiii 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해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는 다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
최고가 되다.

XII.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수라 3:45("그의 이름은 알-마시흐이다")에 대한 주석
꾸란에서 예수는 일반적으로 "알-마시흐"로 불리며, 이는 아다위,
알-마시흐(al-Masih, "그리스도") 라는 칭호가 히브리어 마시흐(Masih,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마리아의 어머니는 마리아를 낳은 후 “그녀와 그녀의 후손들을 사탄에게서 보
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수라 3:36) 알 수유티는 이 기도문에 대해 논평하며 이븐 압바스의 말을 인용합
니다. "태어난 이들 중 마리아의 아들 예수만이 사탄의 손길을 받지 않았고, 그에
게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무슬림 주석가들은 예수가 기름부음을 받았기 때문
에 사탄의 손길을 받지 않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알라지 역시 수라 3:45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며 제목에 대한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 예수님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기름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불리셨습니다.
- 예수는 지브릴의 날개로 기름부음을 받고 사탄의 손길로부터 보호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불렸습니다.
-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분이 지구를 둘러보셨기 때문입니
다. 다시 말해, 그분은 짧은 시간 안에 지구 전체를 여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
니다.
-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불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왕" 또는 "의로운 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셨을 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알-쿠르투비는 몇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 예수님은 누구를 치시든지 그리스도라고 불리셨습니다.
그의 손으로 그의 병이 고쳐져야만 합니다.
- 예수님은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불리셨습니다.

고아들의 머리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 예수님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기름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불리셨습니다.
- 예수께서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만 사용하는 순수하고 축복받은 기름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불리셨습니다.

수라 3:45에 대한 이러한 주석에 대해 알-카세미는 이렇게 덧붙인다: "'그리스도'라는 칭호의 원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대교의 계시된 법에 따르면, 종교 지도자가 성유를 바르는 사람은 정결해지고, 왕국과 지식과 높은 성인의 지위에 합당하게 되며, 축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칭호를 통해 예수께서 기름부음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그러한 기름부음의 결과로 지속적인 축복의 상태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에게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기름을 바르면, 둘 다 필멸의 상태로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으셨기에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 계십니다.

XIII. 예수의 메시지는 기적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꾸란에 따르면, 계몽을 선포한 다음, 따라서 꾸란은 알려계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우리는 분명한 표징을 주고 성령으로 그를 강하게 하였다”(수라 2:253)라고 말씀하셨다고 인용합니다.

알바이다위는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만 분명하고 위대한 기적을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예언자도 예수님처럼 다양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기적은 이슬람에서 기독교와 같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지상 사명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주어졌고, 이 능력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신체적 치유의 기적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디스는 예수가 연민이나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기적을 행했다고 보여줍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십자가와 초승달

현자는 이슬람의 메시지인 "알라는 위대하다"는 것이지 "알라는 사랑이다"라는 복음의 확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꾸란은 예수의 기적을 신의 권능에 대한 "명백한 표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모든 예언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수라 2장 252절과 253절은 신의 사자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자들을 다른 자들보다 더 귀하게 여겼으며... 마리아의 아들 예수께도 분명한 표징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 대해 알바이다위는 "신께서는 예수의 기적을 다른 예언자들보다 뛰어난다는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분명한 표징이자 위대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들은 다른 누구도 행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합니다.

두 개의 꾸란 구절은 기적을 직접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장 49절

나는 너희 주님으로부터 표징을 가져온다. 내가 진흙으로 너희를 위해 새의 형상을 만들겠다(아흐루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하에 그것에 숨을 불어넣으면 새가 될 것이다. 나는 날 때부터 눈먼 자와 나병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집에 쌓아 두는지 알려 주노라. 만일 너희가 믿었다면 분명히 너희에게 표적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알려给你们 대답하셨습니다.

5장 110절

오, 마리아의 아들 예수여, 내가 너와 네 어머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여라. 내가 성령으로 너를 강하게 하여 네가 어린 시절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말하게 한 것을 기억하여라. 내가 너에게 성경과 지혜와 토라와 복음을 가르친 것을 기억하여라. 내가 허락하여 네가 진흙으로 새의 모습을 만들고(타클루쿠) 그 위에 바람을 불어넣었더니, 내 허락으로 새가 되었고, 내가 허락하여 선천적으로 눈먼 자와 나병 환자를 고쳐 주었으며, 내가 허락하여 죽은 자를 살렸고, 네가 분명한 표징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을 때 내가 그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것은 명백한 마술일 뿐이다"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하여라.

무슬림들이 예수에게 돌린 많은 기적들은 외경, 특히 아부 이샤크 아흐마드 알-탈라비(서기 1035년 사망)의 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꾸란과 하디스에 언급된 구체적인 기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수께서는 요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꾸란에는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을 때 친척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들은 "아론의 누이여, 당신의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고, 당신의 어머니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었소."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가리키며 "요람에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걸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종이오.

그분께서는 제게 계시를 주시고, 저를 예언자로 삼으셨으며, 제가 어디에 있든 복을 주시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기도와 자선을 명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가 어머니에게 친절하도록 하셨고, 황포하거나 비참하게 대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태어나는 날, 죽는 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날에도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수라 19:28-33)

2. 예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나병환자와 눈먼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꾸란에 따르면 예수는 "나는 날 때부터 눈먼 자와 나병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수라 3:4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크레마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예수께서 이 구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그분의 예언자임을 증명하는 기적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죽은 자를 살리거나 날 때부터 눈먼 자나 나병환자를 고칠 수 없기에, 이는 그분의 말씀이 정확함을 보여줍니다."

하디스에는 예수가 시체가 부패한 후에도 부활시킨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슬림 주석가들은 이 능력이 오직 신께만 속한다고 동의합니다. 꾸란은 알라를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수라 36:78,79 씩

어가는 뼈를 누가 살려낼 수 있겠느냐?

말하노라,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이가 그들을 살리시리라.

알 수유티는 수라 3장 48-49절을 주석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친형제에 관한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노아의 아들 셈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묻혔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하여 그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그를 부르시자 셈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백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와 초승달

"짧어서 돌아가셨는데, 이 흰 머리카락은 뭐예요?" 샘이 소리쳤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한 번의 울음소리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는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살릴 외침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종말에 모든 것이 성숙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수라 73장 17절에도 같은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을 백발로 만들 날을 어떻게 대비하겠느냐?" 이처럼 이슬람은 죽음에 대한 예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꾸란에는 신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예언자가 죽은 자를 살렸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의 목소리에 담긴 힘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유대인이자 무슬림들에게 위대한 역사가로 여겨지는 와브 이븐 무나베(서기 732년 사망)는 예수가 때때로 5만 명의 병자들에 둘러싸여 고침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특히 와브는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소년이 다른 소년을 죽이는 싸움이 벌어지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시신을 예수의 무릎에 던졌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를 재판관에게 끌고 갔습니다. 예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피 묻은 옷을 본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했고, 예수는 그들에게 시신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유를 묻자, 예수는 자신을 죽인 죽은 소년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기도하시어 시체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시체는 살인자의 이름을 말하고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풀려나셨습니다.

알-칼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오, 살아 계신 하나님,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였던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에게도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하셨고, 샘은 살아 나왔습니다. 죽은 소년 옆을 지나가 시며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3. 예수께서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꾸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 당신의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꾸란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5장 115-118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먹고 마음을 만족시키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이 그 기적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말했다. "오, 하나님, 우리 주여,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처음이자 마지막 우리를 위해 엄숙한 축제와 당신의 표징이 있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소서. 당신은 가장 훌륭한 양식 제공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알라가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그러나 그 후에도 너희 중 누구라도 불신앙에 거역한다면, 나는 모든 민족 중 누구에게도 가하지 않은 형벌로 그를 처벌할 것이다."

이 구절들을 해설하며, 이븐 아바스는 예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30일 금식을 하라고 명하시고, 알라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30일 동안 금식하며 예수께 말했습니다. "우리는 30일 동안 금식했고 배가 고프니다. 당신의 신께 하늘에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는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 신께 기도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잔치를 베풀어 떡 일곱 개와 큰 물고기 일곱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사람들의 손에 쥐어 주었고, 모두 먹었습니다.

4. 예수께서는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꾸란은 예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너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집에 쌓아 두는지 너희에게 알려 주노니, 만일 너희가 믿는다면 분명히 너희를 위한 표징이 있을 것이다"(수라 3:49). 꾸란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지식을 신성한 속성으로 여깁니다. 수라 6:59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열쇠는 그분께 있으니, 그분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무함마드는 꾸란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았더라면, 나는 많은 선을 얻었을 것이고, 악은 나에게 닿지 않았을 것이다"(수라 7:188)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예수의 지고성을 드러냅니다.

무슬림 주석가들은 수라 3장 49절에 대해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 예수는 태어나실 때부터 미지의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어린 예수가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이웃들은 예수가 마법사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아이들을 한 집에 모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예수가 집에 와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자,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럼 집에서 누가 웃고 킁킁거리고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돼지들이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이들을 돼지로 변하게 했습니다.

무슬림 주석가들이 주장하는 두 번째 요점은 미지의 것을 아는 것이 기적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별의 패턴을 통해 지식을 추론하고 종종 잘못된 예측을 내리는 점성가들과 달리, 예수는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고, 질문도 하지 않았으며,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석가들은 이것이 신의 영감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5. 예수께서는 마지막 시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디스에는 최후의 시간의 여러 징조가 나열되어 있지만, 수라 43:61은 "그분은 시간의 지식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대다수의 무슬림 주석가들은 이 구절이 예수를 가리킨다는 데 동의합니다.

알-잘랄란은 이 구절에 대해 "이 마지막 시간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알려진다."라고 말합니다. 자막샤리와 바이다위는 "예수님은 시간의 징조 또는 표시, 즉 마지막 시간입니다. 혹은 그분은 그 시간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자 필수 조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알-라지는 "예수님은 그 시간을 알게 하는 조건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그분의 나타나심으로 알려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시간의 표징이십니다. 혹은 그분은 최후의 시간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자 필수 조건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께서 강력한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쇼카니는 같은 구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죽은 자의 부활은 최후의 부활이 진실임을 증명합니다."

이븐-카티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의 손을 통해 행하신 기적, 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일은 심판의 시간이 확실하다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그 구절은 예수를 지칭하는데, 그 구절의 맥락이 예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께서 부활일 전에 오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꾸란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인류의 증인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인용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때 나는 그들을 증거하였고, 당신이 나를 죽게 하셨을 때 (타와파이타니), 당신은 그들을 지켜보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의 증인이십니다." (수라 5:116, 117). 다시 한번, 무함마드와의 대조는 놀랍습니다. 꾸란에서 알라는 무함마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그들 가운데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도들이여, 나는 내일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수라 46:9)

i Nurbakhash, Jawad, 수피파의 눈에 비친 예수, Khaniqahi-Nimatullahi Publications, 런던, 1983, 25, 53쪽.

ii Ummal 총리, Hadith 1033.

iii Ummal 총리, Hadith 1033.

iv. Bukhari, Sahih, Vol.IV, 506.

v Bukhari, Sahih, VIII, 408, 379.

vi 부하리, 사히흐, V, 715.

vii 부하리, 사히흐, IV, 501.

부하리, 사히흐, VI, 255.

ix 무슬림, 사히흐, 23절, 116번.

x 알-힌디, Vol. 17, 1017호; Vol. 18, 1037호; Vol. 17, 1028호; Vol. 18호, 791호; Vol. 18, 812호.

xi 이븐 마자흐, 2세, 4077.

xii 알-힌디, Vol. 17, 919호.

13 알-부하리, IX, 244.

이슬람과 그리스도의 신성

꾸란과 한디야는 모두 저주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메카에서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최초의 꾸란 구절들은 기독교를 극찬하며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무함마드가 메디나에서 사역을 마칠 무렵, 두 종교 사이에는 화해할 수 없는 차이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무함마드는 기독교인들을 이슬람에 굴복시키도록 설득할 수 없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가 자신이 직접 전파한 신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꾸란에서 기독교에 대한 언급은 훨씬 더 적대적이며, 기독교인들을 다신교와 과장된 신앙으로 비난합니다.

I.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꾸란의 공격

여러 꾸란 구절에서 신성에 대한 공격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1. 꾸란에서는 예수가 아담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3장 59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아담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아담은 었다.

알-수디는 이 구절에 대해 논평하면서 니즈란에서 네 사람이 무함마드에게 와서 그의 의견을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예수. 무함마드가 말했다. "그분은 신의 종이며, 신의 영광과 신의 말씀의 종이십니다." 네 사람은 화가 나서 대답했다. "아니요, 그분은 신이십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함마드는 수라 3장 59절을 통해 예수가 아담처럼 흙으로 창조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이는 복음서와 일치하는 다른 꾸란 구절들과 모순됩니다(수라 3장 35-55절과 수라 19장 1-34절 참조).

2. 꾸란에서는 예수가 단지 사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4장 171절

오, 성서의 사람들이여, 너희 종교에서 과장하지 말고 알라에 대한 진실만을 말하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의 사도일 뿐이며,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과 그분에게서 온 영일 뿐이었다.

그러니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들을 믿으십시오. "셋"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은 아들이 없으시니 지극히 높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합니다. 그리고 알라는 보호자로서 충분하십니다.

이 구절에 대해 알타바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이여, 진실을 넘어서거나 과장하지 마십시오. 예수에 대한 진실 이상을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징벌에 스스로를 노출시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종이자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 신을 숭배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모든 영광은 그분께 돌아갑니다.

3. 꾸란에서는 인간 예수가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라 5:17 하나

님이 마리아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은 참으로 신성모독이다. 말하여라, 만일 하나님이 마리아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지상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자 하신다면, 누가 하나님께 대항할 힘이 가장 적겠는가?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의 지배권은 하나님께 속한다.

여기에는 실제로 모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와

신격의 성령.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확언합니다.

4. 꾸란은 예수가 신이 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말합니다.

5장 75,76절

마리아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사도였을 뿐입니다. 그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진리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표적을 분명히 보여 주시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지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 외에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도 유익을 끼치지도 못하는 것을 섬기느냐?"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절에 대해 알라지는 세 가지 요점을 언급합니다.

- 예수님께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되었으므로 신이 아닙니다.
- 예수님과 그분의 어머니는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방귀를 끼고 화장실에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무슬림들은 창조된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유익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도 유익을 줄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섬기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 때, 왜 사람들이 당신의 코에 식초를 붓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이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했음을 의미하며, 그분 자신이 예언자였음을 증명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문제들이 성육신 교리 아래에서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실 수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육체적 존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유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유익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해를 끼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베드로전서 2:4-10

너희는 산 돌이시오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으시고 그분께는 보배로우신 그분께 나아와,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성경에 이르기를 "보라 내가 택함을 받은 보배롭고 귀한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돌은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운 돌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잇돌이 되었나니" 하였고,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본래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바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버지와의 교제이자 친구였습니다. 또한 꾸란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수라 33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알라]께서 너희 (무슬림)와 그분의 천사들을 위해 기도하시니, 너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리라."

마찬가지로, 수라 33:56은 "알라와 그의 천사들은 요살로나"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다') 예언자[무함마드]께 기도하라."

5. 꾸란은 예수가 하나님과 별개의 신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합니다.

5장 11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외에 나와 내 어머니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말할 자격이 없는 말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더라도 당신은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당신은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시지만 저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릅니다. 당신은 숨겨진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 구절에 대해 알려지는 신의 질문이 수사적이며, 이단에 빠질 위기에 처한 기독교인들을 질책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단은 삼위일체가 아버지, 어머니, 아들로 구성된다는 마리아미파 (Mariamites)입니다. 원래 비너스 숭배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그리스 신 비너스를 성모 마리아로 대체하는 마리아미파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6. 꾸란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라 6:102 배우

자가 없는 그에게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수라 19:35 하나

남께서 아들을 낳으심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세. 그분께서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는 오직 "있으라"라고만 하시고, 그것은...

장 19:88-93

참으로, 당신은 가장 끔찍한 일을 해셨습니다. 그 일로 하늘은 터질 듯하고, 땅은 갈라지고, 산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지경입니다. 그들이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아들을 내놓으려 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신다는 것이 그분의 위엄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어떤 존재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아와서는 안 됩니다.

하인으로서.

수라 6:102에 대해 알바이다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갖는다는 것은 그분이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불가능합니다."

알타바리는 같은 구절에 대해 이렇게 주석합니다. "아이는 남녀 관계에서 낳지만, 신께는 여성 배우자가 없으신데 어떻게 아들이 있으시겠습니까? 신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여자와 관계를 맺으셨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이미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셨습니다"(요한복음 1:1).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7. 꾸란은 예수가 오직 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장 19:30,31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니 그가 나에게 계시를 주시고 나를 선지자로 삼으시고 나를 복되게 하셨느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 기도와 자선을 명하셨고, 내가 살아 있는 동안 기도와 자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알라지는 예수에게 전해진 이 말씀에 대해 네 가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창녀라는 것을 반박하셨습니다.
- 하나님께서도 거룩한 자를 주지 않으셨으므로 의롭다고 인정받으실 것입니다. 나쁜 여자의 아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성경적 사실을 무슬림들에게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첫째,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는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전갈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와 그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자기 영혼이 고난을 받은 후에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요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이사야 53:1-11).

둘째, 종이라는 사실이 그분이 아들이심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의 처음 네 구절은 이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로마서 1:1-4).

8. 꾸란은 인간 예수가 신성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43장 15절

그들은 그분의 종들 중 몇몇에게 그분과 (그분의 신성을) 공유한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인간은 명백히 은혜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이 신성의 일부가 되었다고 신성모독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피조된 인간은 창조주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며 태초부터 그러했다고 믿습니다(요한복음 10:30).

사실, 꾸란 자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분의 영이시다"(수라 4:171 참조)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독특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II.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들어오실 방식이 독특하고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사셨던 방식,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 이 세상을 떠나신 방식,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방식까지,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그 어떤 분보다 특별하십니다. 꾸란과 하디스에서 이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 교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신성한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16

의심할 여지 없이 경건의 신비는 위대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고, 세상에서 믿음을 얻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은 이슬람에서 제시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섯 가지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꾸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장 171절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알라의 사자이며, 마리아에게 부여하신 알라의 말씀이며, 알라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분을 낳기 전에 마리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때가 차서"

십자가와 초승달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갈라디아서 4:4, 5).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도 아들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시편 2:7, 히브리서 1:5). 아버지는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태어나시기 전부터 아들이셨습니다.

2. 성경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셨기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골로새서 2:9).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3

하나님께서서는 과거에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한 이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모든 것을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붙드시며, 우리의 죄를 친히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이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한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주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때로는 하나님이라고, 때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마태복음 26:6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한 제자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하느냐?"(요한복음 14: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나 예수님이 인간이시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진실의 일부분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셨으며, 그분의 본성의 이 두 면은 많은 복음서 이야기에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4:35-41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태워 데려갔습니다. 다른 배들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큰 돌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쳐 거의 물에 잠겼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어도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파도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서로 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바람과 파도까지도 순종하는구나!”

예수께서 온전히 하나님이자 온전히 사람이셨을 때에야 비로소 히브리서 기자가 그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8)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잘 알려진 구절에서 설명했듯이,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1-4, 14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느니라...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3. 성경은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육신이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부활 후에 그분의 신성한 영광의 상태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이고 권위 있는 행위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요, 다시 얻기 위함이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요한복음 10:17-18).

십자가와 초승달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신 후,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마쳐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요한복음 17:4-5).

"육신이 되신" 행위는 예수님을 폄하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더욱 드높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어떻게 굴욕적인 처형을 당하실 수 있었는지는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빌립보서 2:5-11

그리스도 예수: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은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분은 다른 사람과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그분의 신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6:13-18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다. "당신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4. 성경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언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제자들의 증언을 거부하는 무슬림들은 종종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자신의 신성에 대해 분명히 주장하신 내용이 최소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61-64

대제사장이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그는 물었습니다. "너희는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모두 예수를 사형에 합당하다고 정죄했습니다.

요한복음 5:17, 18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오늘날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더욱 힘써 예수를 죽이려 하더라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음이라

요한복음 8:56-59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볼 것을 기뻐하였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아직 오십 세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성전 뜰에서 빠져나가 몸을 숨기셨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옳게 말했듯이,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중 하나여야 합니다.

이슬람은 예수를 미친 사람이나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슬림은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명백히 주장한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5.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과 행동으로 자신의 신성을 입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차례 기적을 행하셨으므로 자신에 대한 주장을 즉시 입증하셨습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일은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일어났습니다.
-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 요한복음 11장 25-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6.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슬림은 누구도 "신의 아들"이나 "신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신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2장 116절

그들은 말한다. "알라께서 아들을 얻으셨다." 알라는 그런 것보다 더 뛰어난 자다!

장 39:4

만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낳고자 하셨다면, 그는 그가 창조한 것 중에서 그가 원하시는 것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들되심은 영적인 관계를 묘사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암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수단인과 이집트인들은 "나일 강의 자손"이라고 불립니다.

아랍어에서 "아버지"라는 명사조차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법적, 비유적 의미뿐 아니라 생물학적 의미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쿠란은 무함마드의 적 중 한 명을 아부 라합, 즉 "불꽃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수라 111 참조).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은 “길의 아이들”이라고 불립니다(수라 2:177 참조). 낙원에 보 존된 태블릿은 세 번이나 “성서의 어머니”라는 뜻의 움 알-키탕(Umm al-Kitab)으로 불립니다(수라 3:7, 13:39, 43:4 참조). 수라 93:6-8은 알라께서 무함마드에게 “알라께서 너를 고아로 여기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용합니다.

“너는 보호받는가?” –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시편 68:5)라고 묘사한 것을 반영합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의 부성(父性)을 가르치지만(잠언 23:26; 호세아 11:1; 시편 68:5; 103:13 참조), 무함마드와 달리 히브리인들은 이것이 신의 유일성에 모순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꾸란은 예수님을 22회에 걸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수라 2:87, 253; 3:45; 4:157, 171; 5:17 참조). 이는 예수님을 어머니와 연관 짓습니다. 아버지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의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논리적입니다.

이 제목은 특별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관계:

- 유대인의 사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이유로 예수를 죽이려고 더욱 힘썼습니다. 그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요한복음 5:18)
- “아들”은 아버지의 속성을 지니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
- 아들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를 대신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요한복음 19:30 참조).

7.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신조나 의식의 집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이자 구속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라디아서 2:20).

그는 또한 “나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라” (빌립보서 1:21)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살아 계시며,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을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III. 무슬림이 성육신을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

나 슬램은 신이 인간이 된다는 생각에 강하게 저항합니다.
무슬림 사상에서 신의 위대함은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육신이 실제로 신을 폄하하거나 신의 본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일상생활에서의 예시

한 교회가 돌과 가시덤불로 가득한 인접한 땅을 매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교인들이 그 땅에 정원을 가꾸고 싶어 자원하여 그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명한 외과의사와 목사도 자원 봉사자 중 한 명입니다. 비록 노동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겉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아야만 그들의 진짜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위해 잠시 접어둔 역할과 정원이 완성되면 다시 그 역할로 돌아갈 역할 말입니다. 물론 목사가 손가락을 다치면 외과의사는 수술복 없이도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가 그들을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더 존경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업적 명예를 내려놓고 교회 동료와 함께 일에 동참할 의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일꾼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그분은 영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요한복음 15:13-14).

2. 꾸란의 두 가지 삽화

수라 28:29-30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기한을 채우고 가족과 함께 길을 가던 중 멀리서 불을 보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서 계십시오. 멀리서 불이 보입니다. 어쩌면 거기서 소식을 전해드리거나 불에서 나온 나무 조각을 가져다드려 몸을 녹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불에 도착했을 때, 축복받은 들판의 계곡 오른쪽, 나무에서 누군가가 그를 불렀습니다. '오, 모세야! 보라! 나, 바로 내가 온 세상의 주님 알라이다.'"

같은 이야기가 수라 20장 9-12절에도 나옵니다. 만약 신이 모세를 골짜기 오른쪽, 축복받은 들판, 나무에서 부르셨다면,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꾸란은 알라께서 “만약 우리가 그[무함마드]를 천사로 임명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를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이다”(수라 6:9)라고 말씀하셨다고 인용합니다. 무함마드 와그디는 이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 “만약 우리가 무함마드를 사람이 아닌 천사로 창조했다면,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있도록 그를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야 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증명 방법 성경의 진실성 10

모든 종교 교리는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경우 이 권위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유래한다고 여겨진다. 기독교인들은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조를 세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교리가 참되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성경에 담겨 있으며, 그 성경들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서로 다른 성경에 교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교리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무슬림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도전할 것입니다.

- 성경의 진실성.
- 그리스도의 신성.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
- 삼위일체 교리.

교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 신자들과의 의견 차이보다 실제로 그들끼리의 의견 차이가 훨씬 적습니다. 한 무슬림 이맘은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간의 차이점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자를 방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전통들은 이슬람이 문제 삼는 모든 교리에 동의합니다. 성경이 진실이라는 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는 점,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점,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합니다."

무슬림들이 성경을 주장할 때 - 그들이 종종 그러하듯이 -

십자가와 초승달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의 근거로 삼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논의를 사실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신 계시의 정확하고 진실된 사본입니다.

그리고 무슬림의 반대는 종종 무지와 오해에 근거합니다.

I. 기독교와 이슬람은 '계시'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계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단정과 성경 사도 바나바는 "예언은 어떤 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베드로후서 1:21) 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이러한 영감의 과정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알려줍니다. 구약성경에서:

신명기 31:24-26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에 다 기록한 후,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라.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 36:1,32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사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내리셨다.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사른 두루마리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을 더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신약성서에서 누가는 예수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1-4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을 처음부터 목격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종들이여. 그러므로 나 자신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였으므로, 존귀하신 데오빌로 각하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나이다. 그리하여 각하게서 배우신 바의 확실성을 알게 하려 함이 로소이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도(2:1; 3:14; 14:13 참조)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라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신 것을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같은 시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시로 기록했고, 어떤 이들은 산문으로 썼습니다. 어떤 이들은 웅변적인 언어로, 어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의 재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보호하셨고, 그분의 메시지도 어떤 변경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이에 비해 무슬림들은 꾸란이 영원 전부터 아랍어로 단 하나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보존판, 알라우 알마흐푸즈 에 기록되어 왔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 판이 라일라트 알카드르, 즉 권능의 밤에 가장 높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실로 카드르의 밤에 그것을 내려보냈다 ... 카드르의 밤은 천 달보다 더 아름답다. 그날 밤 천사들과 성령이 주님의 허락을 받아 그분의 모든 명령을 가지고 내려온다."

(수라 97:1-5) 그 후 23년 동안, 이 계시는 무함마드에게 조금씩 주어졌는데, 무함마드의 기여는 거의 없었다. 알라께서 무함마드에게 말씀하셨다. "계시를 재촉하려고 혀를 움직이지 마라. 그것을 모아 낭송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낭송할 때, 낭송을 따라라.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수라 75:16-19)

무슬림 신조에 따르면, 무함마드는 알라께서 주신 말씀만 낭송했습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신호를 전송하는 라디오처럼 계시 행위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된 책임은 "신호"가 순수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꾸란을 낭송할 때는 추방된 사탄으로부터 알라께 피난처를 구하라"(수라 16:98).

II. 하나님은 그분의 계시가 부패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꾸란에는 “알라의 말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라 6:34) 그리고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 디크르 (기억)' 를 내려주었으며 , 그것을 보존합니다." (수라 15:9) 꾸란에서 말하는 "기억"이란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모든 경전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성경도 포함됩니다.

꾸란은 또한 “너희[무함마드] 이전에 내가 보낸 사자들은 우리가 영감을 준 인간에 불과했다. 만약 너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디크르를 가진 자들에게 물어보라. [우리는] 명확한 표징과 경전을 가지고 그들을 보냈다. 우리가 너희에게 디크르를 내린 것은 너희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들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수라 16:43, 44)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수라 21:7에도 반복됩니다. 수라 21:48은 “옛적에 우리는 모세와 아론에게 기준을 주었고, 옳은 일을 하는 자들에게 빛과 디크르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꾸란은 시편 37:29을 인용하여 “이전에 우리는 디크르 다음에 시편 에 기록하였다. ‘나의 종들, 의로운 자들이 땅을 차지하리라’”(수라 21:105)라고 말합니다.

꾸란 이전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보호하신다고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이사야 40: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 "나는 내 말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12)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를 확증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태복음 5:18). 또한 "성경은 폐할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10:35)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성경 자체에도 계시의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엄격한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아무것도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명령을 지키라"(신명기 4:2).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읽습니다.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방법

요한계시록 22:18,19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경고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 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 참여함을 그에게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과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계신 말씀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두 말씀 모두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 메시지가 기록된 기록이 변질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을 바꾸도록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신앙의 권위 있는 토대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독한 약병에 라벨이 없어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병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얼마나 복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병에 약이 들어 있는지 독이 들어 있는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III. 이슬람은 이전의 경전을 "확증"한다.

꾸란은 예수와 무함마드에게 모두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매우 명확한 방식으로 구약을 확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16-21

예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셨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예수께 건네졌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와 초승달

그러자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종드는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께 집중되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하셨습니다.

꾸란은 무함마드가 구약과 신약을 모두 확증했으며, 그것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감시했다고 말합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 5:43-49

그들이 [유대인들] 자신들에게 알라가 [그들을 위해] 심판을 내린 그들만의 토라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에게 심판을 받으러 오는가? 그 후에도 그들은 돌아선다. 그들은 [진정한]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우리는 토라를 계시하였는데, 그 안에는 인도와 빛이 있어서 알라께 항복한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을 심판하였고, 랍비들과 사제들은 알라의 경전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대로 [심판받았으며], 그들은 그 증거가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나의 계시를 비참한 가격에 팔지 말라. 누구든지 알라가 계시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 안에서 멍하였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코는 코로, 귀는 귀로, 이는 이로, 상처와 보복으로. 그러나 누구든지 보복을 용서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에 대한 속죄 행위이다. 그리고 알라가 계시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자는 바로 그런 자들이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 그에게 계시된 것을 확증하였고,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주었는데, 그 안에는 인도와 빛이 있고, 토라에서 그 이전에 계시된 것을 확증하며, 경건한 자들에게 인도와 훈계가 된다. 복음의 백성은 알라가 그 안에서 계시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알라가 계시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자는 바로 그런 자들이 타락한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에게 진리로 성경을 계시하여 그 앞에 있는 모든 성경을 확증하고 그것을 감시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알라께서 계시하신 바에 따라 그들을 판단하고, 너희에게 임한 진리에서 그들의 욕망을 따르지 말라. 우리는 각자에게 율법을 정하였고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방법

정해진 길. 알라께서 원하셨다면 너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너희에게 주신 것으로 너희를 시험하고자 하셨다. 그러므로 서로 선행을 경쟁하라. 너희 모두는 알라께로 돌아갈 것이며, 그분은 너희가 다투었던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알라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그들 사이를 판단하고, 그들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알라께서 너희에게 계시하신 것의 어떤 부분에서라도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지 않도록 그들을 조심하라.

이븐 카티르의 수라 5장 43-48절 주석은 아부 다우드가 전한 하디스(하디스 4449)를 인용하는데, 이 하디스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간통죄로 잡힌 남녀를 무함마드에게 데려왔습니다. 범인들이 귀족 출신이었기에 유대인들은 돌로 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무함마드는 유대인들에게 토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토라가 가져오자, 그는 그것을 들어 올리며 "나는 당신과 당신을 계시하신 분을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방석 위에 토라를 놓고, 비서에게 간음한 자를 돌로 치는 것에 관한 구절을 찾을 때까지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토라가 요구하는 대로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결국 "알라께서 계시하신 것"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라("지침과 빛")와 복음("경건한 자들에게 지침과 훈계") 모두 알라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알라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진리의 수호자로 신뢰할 수 없기에, 이전 경전을 확인하고 "감시자", "판단자", "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함마드에게 달려 있습니다.

IV. 꾸란은 성경의 신뢰성을 전제로 한다.

- 수라 29:46은 모든 무슬림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서의 백성[즉, 유대인과 기독교인]과 논쟁하지 말라. 더 나은 수단을 동원하지 말고,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과 논쟁하지 말라. 오히려 이렇게 말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내려진 계시와 너희에게 내려진 계시를 믿는다. 우리의 신과 너희의 신은 같은 분이시니, 우리는 그분께 절한다.’” 이 구절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에게 “내려진 계시”는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가정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수라 10:95,96은 무함마드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만약 우리가 너에게 계시한 것에 의심이 든다면, 너보다 먼저 이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진실은 참으로 네 주님으로부터 너에게 왔으니, 의심하지 마라. 또한 알라의 징조를 부인하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무함마드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을 자신의 계시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경전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 수라 16:43, 44는 무함마드와 무슬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이전에 보낸 사자들은 우리가 계시를 준 사람들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 만일 너희가 알지 못하거든 기억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우리는] 분명한 표징으로 그들을 보냈다.” 다시 한번, 꾸란은 이전의 경전에 전적인 신뢰를 두고 있는데, 이는 현명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전들은 꾸란이 단지 이름만 언급하는 예언자들과 예수의 기적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수라 3:49, 5:110 참조).
- 수라 26:193-196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실한 영 지브릴이 [꾸란을] 너의 마음과 정신에 내려왔으니[오 무함마드], 이는 네가 경고자 중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니라.[쉬운 아랍어로]”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이전 사람들의 계시된 책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동일한 생각, 즉 꾸란의 진실이 이미 기존의 성경에서 발견된다는 생각은 수라 41:43(“오 예언자여, 그대에게 말한 것은 그대 이전의 사자들에게 이미 말한 것이 아니다”)과 수라 87:18,19(“이것[꾸란]은 가장 초기의 책인 아브라함과 모세의 책에 있다”)에도 나타납니다.
- 수라 19:12와 수라 66:12는 세례자 요한과 성모 마리아가 진짜 책을 소유했다고 주장합니다. 신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야히야(세례자)야, 이 책을 힘차게 붙잡아라.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어린 시절부터 지혜를 주었다.” 성모 마리아에게도 진정한 책이 있었습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순결을 지킨 임란의 딸 마리아에게, 우리는 [그녀의 몸]에 우리 영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의 말씀과 계시의 진실성을 증거했으며 독실한 신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V. 꾸란은 성경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위 인용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대 무슬림들은 꾸란이 성경을 변경했다고 비난합니다. 꾸란에서 변경을 의미하는 아랍어 단어는 '타흐리프'인데, 이 단어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따라서 R. 토마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타흐리프(tahrif)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본문 비평에는 부패 (corruption), 전위(dislocation), 전치(transposition)와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전달상의 오류를 의미할 뿐, 고의적인 왜곡이나 위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달상의 오류는 성경의 핵심 교리적 구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사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부패"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무슬림이 인질(Inji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이상합니다. 인질은 예수님이 쓴 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학계에서는 네 복음서 기자가 쓴 네 권의 복음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복음"이라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수 세기 동안 선포한 복음의 본질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ii

만약 우리가 무슬림들이 이 타흐리프가 만들어졌다고 증명한다고 말하는 모든 꾸란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 이 구절들은 결코 신약성경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 토라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은 실제로는 무함마드의 유대인 동시대인들이 토라를 해석한 것만을 공격합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7세기 아랍 반도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인용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원본 이야기와 세부적으로 상충되는 구약성서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약성서의 히브리어 본문을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쿠란

십자가와 초승달

그러므로 공격은 반드시 성경의 변화된 본문이 아닌 변화된 의미에 집중될 것입니다.

무슬림들이 인용하는 구절은 실제로 세 가지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ent 유형의 사람과 세 가지 수준의 요금 유형:

1. 토라가 아닌 꾸란의 일부를 수정하여 이슬람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구절

3장 70-72절

오, 경전의 사람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가 증언하는 알라의 징조들을 배척하느냐? 오, 경전의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진리를 거짓으로 덮고, 고의로 진리를 감추느냐? 경전의 사람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한다. "아침에 믿는 자들에게 계시된 것을 믿으라. 그러나 저녁에는 그것을 거부하여 그들이 돌아서게 하라."

3장 78절

그들 중에는 혀로 성경을 왜곡하는 무리가 있어,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게 하되,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라에게서 왔다"고 말하지만, 알라에게서 온 것이 아니며, 고의로 알라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수라의 다른 구절에서는 다른 견해가 제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장 199절

성서의 백성 중에는 알라를 믿고,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것과 그들에게 계시된 것을 믿으며, 알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알라의 계시를 하찮은 이익을 위해 팔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그들의 보상은 그들의 주님 앞에 있으며, 알라는 심판이 빠르십니다.

2. 유대인들이 일부 지역을 억압한 것을 책망하는 구절

그들은 토라를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는 지시와 같습니다.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방법

2장 40-44절

오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베푼 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이행하듯 너희도 나와 맺은 언약을 이행하라. 그리고 오직 나만을 두려워하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계시 [꾸란]를 믿으라. 그것은 너희에게 주어진 계시를 확증하는 것이니, 먼저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

내가 계시한 것을 헐값에 팔지 마라. 그리고 나만을 두려워하라. 진리와 거짓을 혼동하지 말고, 고의로 진리를 숨기지 마십시오. 기도에 힘쓰고, 정기적으로 자선을 베풀고, 절하는 자들과 함께 절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길을 따르라고 권하면서, 토라를 읽으면서도 자신은 잊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분별력이 없습니까?

2장 75-79절

이제 [오 무슬림들이여], 그들이 [유대인들] 너희를 믿을 것이라고 바라느냐?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알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한 후에 고의로 왜곡하였으니 말이다. 그들이 신자들을 만나면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만 있을 때는 서로에게 "주님 앞에서 너희와 논쟁하려고 알려给你们 계시하신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겠느냐?"라고 묻는다. 너희는 [그들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들은 알려给你们 그들이 숨기는 모든 것과 드러내는 모든 것을 온전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알지 못하느냐? 그들 중에는 성경 [토라]에 대해 무지하고 추측에만 의존하는 무식한 자들이 있다. 자기 손으로 성경을 쓰고 "이것은 알려给你们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며 헐값에 팔아넘기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손으로 쓴 것에 화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얻은 것에 화가 있을 것이다.

6장 92절

그들은 "알라께서 인간에게 아무것도 계시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면서 알라의 권능의 진정한 척도를 측정하지 않는다. [오, 무함마드여,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라. "모세가 가져온 그 책을 누가 계시했는가? 인류를 위한 빛과 인도자인데, 너희는 그것을 양피지에 적어서 보여주지만, 너희는 그 중 많은 것을 숨기고 있구나."

십자가와 초승달

3. 성경의 일부를 잘못 해석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구절 토라

4장 44-47절

성경의 일부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오류를 사서 너희 [무슬림]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알라께서는 너희의 원수가 누구인지 가장 잘 아신다. 알라께서는 보호자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돕는 자로서도 충분하다. 어떤 유대인들은 문맥을 바꾸어 "우리는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한다. 듣지 아니하는 자와 같이 듣는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한다.

[라이나]는 혀로 왜곡하고 종교 [이슬람]를 비방합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는 듣고 순종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보십시오."라고 말했다면 그들에게 더 좋았을 것이고, 더 합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라께서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셨기에,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 성경을 받은 너희여, 우리가 너희의 소유를 확증하는 계시를 믿으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파괴하여 혼란스럽게 하거나, 안식일을 어긴 자들을 저주했던 것처럼 그들을 저주하기 전에.

5장 13절

그들이 언약을 어겼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문맥에 맞지 않게 말을 바꾸고, 그들에게 전달된 메시지의 일부를 잊어버린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소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배신을 끊임없이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참아주고 용서하라. 진실로 알라는 선한 자들을 사랑하신다.

장 5:41-43

오 사도여! 불신앙의 경주에서 서로 경쟁하는 자들, 입술로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과, 유대인들, 곧 어떤 거짓말이든 가까이 듣고, 당신에게 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말을 바꾸어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지면 받아들이고,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자들을 보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알라께서 죄를 지으라고 정하신 자에게는 너희가 알라께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알라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치욕이 있고, 내세에서는 무거운 형벌이 있을 것이다.

형벌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듣고 불법을 탐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온다면, 그들 사이에서 판단하거나, 아니면 간섭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거부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조금도 해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판단한다면, 그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알라는 공정하게 판단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토라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에게 심판을 구하러 오느냐? 알라는 거기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도 그들은 돌아선다. 그들은 [진짜] 아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

VI.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가장 파괴적인 공격 중 하나는 기독교 내부, 즉 자유주의 신학과 소위 "고등" 비평 및 "하등" 비평을 통해 제기되어 왔습니다. 고등 비평은 성경 저자의 추정된 목적을 규명하고, 세속 역사나 고고학을 참고하여 저술의 맥락을 검토합니다. 하등 비평은 "원본 성경 본문"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두 비평 모두 성경의 역설과 명백한 모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식 있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만족스럽게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종종 성경이 어떻게든 "반증"되었다고 고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순된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두 진술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우리는 그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결국에는 단지 차이일 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종종 지적 편견에 사로잡혀 단순한 차이와 모순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iv

혼란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복되는 이름.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회. 모순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행전 12장의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이고, 사도행전 15장의 야고보는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 같은 사람에게 붙은 여러 이름들. 비평가들은 종종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들의 이름 목록을 비교하며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러한 반론은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그 예입니다. 꾸란에서는 그를 아자르(수라 6:74)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는 테라(창세기 11:27)라고 부릅니다.
- 평행 기록. 요한복음 20장 12절과 마가복음 16장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천사들에 대한 두 기록은 언뜻 보기에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두 천사가 언급되어 있는 반면, 마가복음에는 한 천사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도 다른 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한 쪽은 단지 더 광범위하고 자세한 묘사일 뿐입니다.
- 번역 과정에서 의미 손실. 때로는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 겉보기에 모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어휘는 영어 어휘와 단어 하나, 의미 하나까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종 그리스어나 히브리어에서 두 개 이상의 다른 단어가 영어에서 같은 단어 하나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결과 중요한 의미의 뉘앙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소 사람 사울의 회심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은 "그와 함께 가던 사람들은 말을 못하고 서서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바울은 "나와 함께 가던 사람들은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 두 진술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기록에서는 바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음성을 들었고, 다른 기록에서는 바울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문 그리스어를 살펴보면, 첫 번째 경우 "듣다"로 번역된 단어는 귀로 소리를 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방법

반면 두 번째 경우에서 “들으라”로 번역된 단어는 물리적인 청각과 이해 모두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동료들은 그 음성의 소리는 들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 고고학적 증거. "고등 비평가들"은 벨사살이 다니엘을 왕국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았다는 성경의 기록이 오류라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다니엘 5:7, 10, 29 참조). 그들은 벨사살이 파라오 치하의 요셉처럼 두 번째 통치자가 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창세기 41:40, 43 참조). 그러나 최근 고고학적 발견은 벨사살이 그의 아버지 네보 네데스 치하에서 단지 부왕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다니엘을 세 번째 통치자로 묘사한 것은 완전히 정확합니다.
- 통계. 열왕기상 7장 26절은 어떤 욕조의 용량이 2,000밧이라고 말하지만, 역대기하 4장 5절의 동일한 구절은 그 용량을 3,000밧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해답이 있습니다. 3,000밧을 담을 수 있는 욕조는, 물이 넘치지 않고 목욕할 수 있는 높이로 2,000개의 욕조를 담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모순을 하나하나 살펴볼 만큼 충분한 지면이 부족합니다. 다음 원칙들을 권고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및 신약 사본들이 원본이 작성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필사되었다고 해서 그 사본들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최초의 필사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본문 전달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사소한 철자 오류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에서 "d"와 "r"은 서로 매우 유사하며 때로는 서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류는 텍스트의 의미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모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해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사역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십니다. 오직 진실하게 진리를 찾는 자들만이 그분을 발견합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을 겸손하게 하고 영원하고 불멸하며 지혜로우신 주님, 보이지 않는 왕이신 그분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마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경외심을 갖고 마음을 가라앉혀 성경에 접근한다면, 복잡한 문제들은 적절한 때에 해결될 것입니다.

VII. 성경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정확하고 신실성을 증거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변화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이 예언들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예언된 대로 정확히, 종종 수백 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구약성경의 예언은 예수의 삶의 여러 가지 특징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 예수님의 탄생지. 미가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예수님은 약 700년 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마태복음 2장 1절).
- 동정녀 탄생.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700여 년 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마태복음 1:18, 누가복음 1:35).
- 베들레헴 아이들의 학살. 선지자 예레미야는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애곡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하는구나. 자식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예레미야 31:15).

마태복음 2장 16-18절에 따르면, 이 예언은 약 600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성경 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방법

- 이집트로의 피난. 선지자 호세아는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가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호세아 11:1). 마태복음 2장 15절에 따르면, 이 예언은 700여 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스가랴 9장 9절은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라! 시온의 딸아, 외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네게 임하노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니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온유하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 곧 나귀의 작은 것 ...

- 예수님이 은 삼십 세겔에 배신당하심. 이는 시편 41편 9절과 스가랴 11장 1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 품삯을 취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은 삼십 세겔을 내게 주었느니라."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따르면, 이 예언은 600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 토기장이의 발 매입. 스가랴 11장 13절에 따르면, 이 은 삼십 개로 발을 샀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을

"토기장이여, 그들이 내 값을 매긴 그 값어치의 값어치를 하였구나! 그래서 나는 은 삼십 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토기장에게 던졌 느니라." 마태복음 27장 7절에 따르면, 이 말씀은 600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사야 5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리니, 이는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에 쏟았고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았음이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3장 33절은 이사야의 예언이 700년 후에 성취되었음을 기록합니다.
- 예수님의 손과 발이 찢림. 시편 22편 16절은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서 내 손과 발을 찢었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찢은 나를 바라보고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며 만아들을 위하여 통곡하듯 그를 위하여 크게 슬퍼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예언은 수백 년 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성취되었습니다(요한복음 19장 18절).
- 부자와 함께 장사됨. 이사야 53장 9절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악인과 함께 묻히고 부자와 함께 죽었더라." 이것이 바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는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내어 주라 명하더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 새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러 놓고 가니라"(마태복음 27:57-60).
- 부활. 시편 16편 10절은 "주께서 나를 음부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이 다윗에게는 성취되지 않았다고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몸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사도행전 2:25-36).

- 승천. 시편 68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서, 심지어 반역자들에게서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51절과 에베소서 4장 8-11절에서 읽듯이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VIII. 성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바뀌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특히, 그들은 다음에 답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

1. 성경은 언제 바뀌었나요?

성경은 쿠란 기록 이전에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이후에 바뀌었습니까? 만약 그 이전에 바뀌었다면, 쿠란은 무슬림들에게 진실을 찾기 위해 성경을 참고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수라 16:43, 44 참조). 또한 알라께서 의심하는 무함마드에게 "성경의 백성"에게 조언을 구하라고 권고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수라 10:95, 96 참조). 게다가 쿠란 이전의 수천 개의 성경 사본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과 동일합니다.

2. 성경은 어디에서 바뀌었나요?

무슬림들이 구상한 방식으로 성경을 바꾸려면 유대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의 국제 회의, 승인된 변경 사항 목록, 개정된 원본 사본 준비, 그리고 모든 이전 사본의 체계적인 폐기가 거의 확실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칼리프 우스만은 이렇게 쿠란의 원본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3. 누가 성경을 바꾸었나요?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을 수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설령 수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독립적인 사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약성경을 수정했을까요? 쿠란은 기독교인들이 서로 분열되어 싸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5장 14절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자들과도 우리는 계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보내진 메시지의 상당 부분을 잊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심판의 날까지 서로 적대감과 증오로 갈라놓았노라. 그리고 곧 알라께서 그들이 행한 일을 그들에게 보여 주시리라.

61장 14절

믿는 자들이여, 알라의 돕는 자가 되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제자들에게 “누가 나와 함께 알라를 도우러 올 것인가?”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우리는 알라의 돕는 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 중 일부는 믿었고, 일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믿는 자들을 그들의 적에 맞서 굳건히 했고, 그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분열된 기독교 교회가 성경 개정을 조율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성경을 개정할 동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3:5-8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은 육을 낳되 영은 영을 낳느니라.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말에 놀라지 말라. 바람은 임의로 불고,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 그분은 그들에게 정직과 신실함을 가르치십니다. 성경을 충실하게 거듭난 신자들이 생명의 말씀인 그들의 책을 바꾸고 싶어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위협이 되는 형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4.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바뀌지 않았나요?

성경의 모든 단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1만 3천 개가 넘는 고대 사본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방법

서기 130년경 존 라일랜드 컬렉션에 있는 사본, 서기 200년경 체스터 베יתי 컬렉션에 있는 사본, 서기 350년경 시니아 사본, 서기 400년경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리고 로마에 보관된 바티칸 사본을 포함한 신약 성경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오늘날 기독교 회에서 사용하는 번역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본은 무함마드보다 수백 년 앞선 것으로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약 성경 전체(단지 11절만 제외)가 초기 교부들의 저술에서 인용되었습니다.

9. 꾸란은 성경을 폐지하지 않습니다.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꾸란이 다음과 같이 믿어진다. 권위, 또는 원칙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꾸란에는 폐기에 대해 언급하는 구절이 두 구절뿐이며, 이는 성경이 아니라 꾸란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꾸란은 구약과 신약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폐기와 관련된 첫 번째 꾸란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라 2:106 만일

우리가 어떤 구절을 폐지하거나 잊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좋거나 비슷한 것으로 대체합니다. 알라께서 모든 것에 전능하심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븐 아바스에 따르면, 이 구절이 "계시"된 이유는 무함마드가 밤중에 받은 구절을 종종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은 잊어버린 구절을 비슷하거나 더 나은 구절로 대체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꾸란의 진위(결국 어떤 구절이 보존된 서판에 나타났을까요?)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는 성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폐기와 관련된 두 번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라 22:52 우

리는 너희 이전에 사자나 예언자를 보낸 적이 없다. 그러나 그가 욕망을 품으면 사탄이 그의 욕망에 어떤 일을 넣어 주었다.

그러나 알라께서는 사탄이 던진 것을 폐지하신다. 그리고 알라께서는 완전하게 하신다.

십자가와 초승달

그의 계시와 알라는 전지전능하고 지혜로우십니다.

이 구절(수유티와 부하리의 아스바브 알-누줄)에 대한 주석은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이교도 아랍인들의 세 가지 주요 우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꾸란 53장 수라 알-나즈 19절과 20절을 읽으면서 무함마드는 "이 가장 높은 두루미들이여!

진실로 그들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사탄은 이 추가 내용을 무함마드의 계시에 넣고 알려가서 그것을 폐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작가 살만 루 슈디는 나중에 그의 논란이 많은 소설 사탄의 시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는 꾸란 교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로지 사용되는 원칙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에 관한 이 네 가지 모순되는 구절 중, 무슬림 학자들은 마지막 구절이 다른 세 구절을 폐기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16장 67절

그리고 당신이 독한 술과 좋은 영양분을 얻는 대추야자와 포도의 열매도 있습니다.

2장 219절

술과 도박에 대해 묻는다면, "둘 다 큰 해로움도 있고, 사람에게에는 이로움도 있지만, 죄가 이로움보다 더 크다"고 말하십시오.

4장 43절

기도할 내용을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도에 임하지 마십시오.

5장 90절

술과 도박과 돌맹이와 점치는 화살은 사탄의 작품에 불과합니다. 성공하려면 그것들을 제쳐두십시오.

마찬가지로, 알키블라 (기도할 곳을 알려주는 곳)에 대한 세 가지 모순되는 구절 중 마지막 구절이 나머지 두 구절을 폐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장 125절

아브라함이 서 있던 곳을 예배 장소로 채택하세요.

2장 142절

동쪽과 서쪽은 모두 알라께 속합니다.

성경 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방법

수라 2:144 우리

는 너희가 사랑하는 �블라를 향해 기도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얼굴을 불가침의 예배 장소 [메카의 카바]로 향하라.

무슬림 신학자들은 꾸란에서 세 가지 종류의 폐기된 구절이 발견되거나 이전에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 법은 폐지되었지만 말씀은 폐지되지 않은 구절들. 따라서 그 말씀은 여전히 꾸란에 남아 있지만, 일상적인 이슬람 관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라 7장 19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서를 고수하고 자비를 베풀며, 무지한 자를 멀리하라."

무슬림 신학자들은 "용서를 지켜라"와 "무식한 자에게서 돌아서라"는 계명은 폐지되었지만 "친절을 명령하라"는 계명은 폐지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 율법과 언어가 폐지된 구절들. 이러한 구절들은 꾸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알라께 가장 좋은 종교는 하니피테스입니다."

이 구절은 꾸란에는 나오지 않으며, 꾸란의 법은 무시됩니다. 다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아들이 자신이 구한 돈의 골짜기를 받으면, 그는 두 번째를 요구할 것이다. 그가 두 번째를 요구하고 그것을 받았다면, 그는 세 번째를 요구할 것이다."

- 구절의 내용은 폐지되었지만 법은 여전히 적용되는 구절. 예를 들어 "만약 노인과 노파가 간통을 저지르면, 처벌로 둘로 쳐라."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꾸란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계명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X. 왜 네 복음서가 있는가

무슬림들은 예수님께 계시된 복음서가 아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이 진정한 인질을 소유하지 못하고 대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인질을 소유한다고 믿습니다.

무슬림들에게 이 역설을 설명하려면 인질(Injil)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인질은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항상 단수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질은 예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글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복음 이십니다. 그러나 네 명의 기독교 역사가가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의사 누가는 자신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누가복음 1:1-4

많은 사람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일꾼이었던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였으므로, 존귀하신 데오빌로 각하게 차례대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하게서 배우신 것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교회는 하나의 이야기에 대한 네 가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하나의 복음, 즉 하나의 기쁜 소식에 대한 네 가지 기록입니다.

XI. 무슬림들이 바나바의 위조 복음을 선호하는 이유

바나바 복음서 첫 인쇄본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15세기 이슬람교에 개종한 한 사람이 자신의 새로운 신앙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프로이센 왕국의 지도자였던 JF 크라머는 1709년 이탈리아어로 된 이 책의 첫 번째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1713년 사보이의 외젠 공에게 기증되었고, 1738년에는 빈 국립도서관에 기증되었습니다.

무함마드 고르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서는 15세기 유럽인이 쓴 위조된 복음서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시대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묘사하는 데 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자신이 그리스도도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인용합니다."vii 초기 무슬림 주석가들은 바나바 복음서를 언급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바나바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슬림 주석가 알타바리와 이븐 카티르는 진정한 복음서 저자 목록에 바나바 복음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무슬림들은 이 위조된 복음서를 다섯 가지 이유에서 정경으로 간주합니다.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방법

-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바울 1:4)라고 가르칩니다. (92:17-20) 또는 하나님의 아들(212:5,6).
- 유다 이스가리옷이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졌고, 예수님이 무사히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가르칩니다(바울서 112장, 139:4-9).
- 구약성경이 바뀌었다고 가르칩니다(바울 72:11, 124:6-10). 신약성경도 바뀌었습니다(바울 52:14, 96:9-11).
-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과 맺어졌음을 가르칩니다. 이삭(바알 43:20-31).
- 예수님께서 무함마드를 위해 길을 준비하러 오셨고 무함마드의 오심을 예언하셨다고 가르칩니다(바울서 42:10-13, 72:10-72).

바나바 복음서에는 수많은 오류와 모순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바알 20:1,2과 바알 92:3은 나사렛과 예루살렘이 두 개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 바알 152:75은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통에 보관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은 가죽 부대를 사용했습니다. 통은 중세 시대에도 사용되었습니다.
- 바알 82:18에서는 희년이 100년마다 온다고 말씀하시는 반면, 성경에서는 희년이 50년마다 온다고 말씀합니다(레위기 25:11 참조).
- 바실리카 3장 5-20절은 마리아가 고통 없이 출산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마리아의 고통이 너무 커서 죽고 싶어했다는 꾸란 19장 22-23절과 모순됩니다.
- 바알 105:308은 아홉 개의 하늘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모순됩니다. 수라 17:44에는 일곱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XII. 성경은 삶을 변화시킨다.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최후의 증거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랍들은 초기 유럽인들과 동격적인 성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네 명의 칼리프 중 세 명이 암살당했습니다. 아랍 전사들은 무슬림이 된 후에도 계속 싸웠습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그들은 단지 다른 부족과 나라를 습격할 때 사용한 깃발만 바꾸었을 뿐입니다. 무함마드는 자신을 모욕한 유대인 시인을 자기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듣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인도하셨고,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에베소서 4:28). 시편 기자는 옳게 말했습니다. 시편 19:7-11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와 계명은 빛나서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와 규례는 확실하여 전적으로 의로우니 금이나 많은 정금보다 더 귀하며 꿀이나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큰 상이 있사오니이다

i 장의 주제에 대한 유용한 자료는 조쉬 맥도웰의 Evidence that Demands a Verdict (샌버나디노: Here's Life Publishers Inc, 1972)입니다.

ii R. 토마스, 이슬람: 측면과 전망 (Islam: Aspects and Prospects)(오스트리아 빌라흐: Light of Life, nd), 184쪽 이하.

iii 이 섹션의 주제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은 The True Guidance (Villach: 생명의 빛(Light of Life), 1-5권. www.light-of-life.com에서 인터넷으로 구매 가능

iv "구약성경에 대한 거짓 비난", 참된 인도 (빌라흐: 생명의 빛, 1992) 8-11쪽.

v Al-Suyuti, Sura 2:106의 Asbab al-Nuzul .

vi Al-Suyuti, 꾸란 과학의 우수성, 폐기된 자와 폐기자의 장, 꾸란의 폐기 목록은 2부, 20쪽을 참조하세요.

vii Muhammad Ghorbal, Al-Mawsuua al-Arabia al-Muyassara (카이로, 자체 출판, 1986), 354쪽.

11 무슬림들은 어떻게 십자가형을 보셨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깊이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그리스도. 이는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보였던 것과 같은 경외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마태복음 16:21-23)

신을 순수성과 절대적인 힘의 관점에서 보는 종교(이는 유대교와 이슬람 모두의 관점과 본질적으로 일치합니다)에서 신이 고통받고 죽는다는 개념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신성이 어떻게 이처럼 참혹한 패배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무슬림과 유대인은 항상 이 질문을 해왔고, 기독교 신학자들은 항상 이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니케아 신경을 작성한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대장장은 철막대를 불에 넣고 두드려서 도끼 같은 것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분이 쇠를 치실 때는 불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쇠만 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 세기 후, 서기 820년에

십자가와 초승달

Caliph Abdul-Rahman ibn Abdul-Malek al-Hashemi와 Ibrahim al-Tabarani라는 수도사 사이의 예루살렘.

토론에 참석한 알바다위 알바힐리는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셨을 때 신성이 떠났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성이 예수님과 같은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시는 겁니까?"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수도사는 "햇볕 아래 앉아 있는 낙타를 칼로 때리면 햇빛이 영향을 받거나 햇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I. 십자가형과 꾸란

꾸란의 한 구절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4장 157,158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 [유대인들이] ‘우리가 마리아의 아들 예수, 즉 알라의 사자 메시아를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죽이지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습니 다. 슈비하 라흠 (Shubbiha lahum,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으로만 보였을 뿐, 이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의심합니다. 그들은 추측만 할 뿐, 그분을 확실히 죽이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알라는 그분을 당신께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알라는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사실, 무함마드가 이러한 해결책을 처음 생각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신이 굴욕적인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같은 주저함을 느낀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이미 샤비흐, 즉 "땀은 존재" 라는 개념을 내놓았습니 다.

이 주제에 관한 책에서 카이라와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면 꾸란에 언급된 유사성에 대한 신화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탄생하기 전, 그리고 6세기 동안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기독교 이단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iii

Qayrawani는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 영지주의자 바실리데스는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간 키레네 시몬이 그리스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히셨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 가현설(Docetism)파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가현설"이라는 단어는 "보이다" 또는 "나타나다"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 서기 185년, 기독교를 받아들인 테베 사제들의 후손인 이단 종파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분은 안전하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 서기 276년, 페르시아의 자칭 예언자 마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며,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후대의 마니교 전승에 따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 서기 370년, 한 신비주의 영지주의 종파는 예수의 십자가형을 부인하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지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구경꾼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기 520년 시리아의 주교 세베루스는 알렉산드리아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단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나타났을 뿐이라고 가르치는 일단의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 서기 560년에 수도사 테오도르는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부인했습니다. 본성을 부인하고 그분의 십자가형을 부인했습니다.
- 서기 610년경, 키프로스 총독의 아들인 요한 주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단지 구경꾼들에게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단은 무함마드 시대에 아라비아 반도의 영지주의 종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서기 380년경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주교에게 "소동이 일어나고 분열의 위험이 있는 아라비아와 예루살렘의 교회들을 방문"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이 종파들은 역사적 증거에 기반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념과 상상에 따라 행동했고, 주로 그리스도의 인성의 본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II. 수라 4:157, 158의 의미

나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주의 깊게 읽으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

1.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였다고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157절에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 곧 알라의 사자인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불렀더라면, 결코 그분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꾸란의 구절은 그들을 잘못 표현하고 있습니다.

2. 이 구절은 십자가 처형의 역사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했다.
- 유대인들이 십자가 처형의 진정한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까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없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요한복음 10:18).
-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장은 순교자들의 운명을 다룰 때 꾸란 자체가 사용하는 주장입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자들을 죽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들은 살아 있으며, 그들의 주님께 풍족하게 부양받을 것이다"(수라 3:169). 또한 "알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자들을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은 살아 있지만,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수라 2:154).

이 두 구절은 순교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 결과를 부정합니다. 순교자들은 죽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죽었다고 증명했습니다(마가복음 15:44 참조). 그분은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무덤 입구에 돌이 굴러졌습니다(마가복음 15:46 참조). 무덤은 봉인되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마태복음 27:66 참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끝냈다고 생각하여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이 잔혹한 죽음이 제자들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요한복음 12:32). 하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분을 죽이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습니다."

3. 십자가 처형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이슬람의 문제이지 기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1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다른 자들은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추측만 할 뿐,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처형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자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추측을 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는 십자가 처형과 그 주변 사건들에 대해 완전히 일치합니다.

무슬림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추측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지식도 없는" 바로 그들이죠.

III. 샤비흐에 대한 무슬림의 속담은 모순된다.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을 찬양하는 것은, 특히 그 말쑥한 자들의 의견은 기독교 이단자들처럼 이 샤비흐의 정체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 알잘랄란은 "그들에게 그렇게 보였다" (슈비하 라흠) 라는 구절에 대해 해설하며, 알라께서 한 남자에게 예수의 모습을 입히셨고, 그가 체포되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예수라고 생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같은 주석은 "그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구절을, 일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남자를 보고 "얼굴은 예수의 얼굴이고, 몸은 그의 몸이 아니다"라고 외쳤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이 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 알바이다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어머니를 붙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고, 그들은 즉시 원숭이와 돼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내 형상을 입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낙원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수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을 그에게 입히셨고, 그는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 알-자마르샤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 슈비하 라후' 이라는 구절은 그들이 그렇게 상상했거나, 그분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여겼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분은 죽었고 살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당신께로 데려가셨기에 살아 계십니다."

알라지는 사비흐가 누구였을지에 대해 네 가지 다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 유다라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예수님처럼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가 집 밖으로 나오자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으로 여겨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데려갔습니다.
-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 그들은 그분을 감시하는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자신에게로 들어 올리시고 그 파수꾼을 예수님과 똑같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 파수꾼은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라고 외치며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 예수님은 친구 중 한 명이 자신을 대신하여 죽겠다고 자원하면 낙원에 갈 곳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친구를 예수님과 닮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배신한 제자를 예수님과 닮게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 대신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정확히 얼마나 지속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다. 꾸란은 알라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3장 55절

오 예수님! 나는 무타와 피카[mutawaffika , 너희를 죽게 하거나 “너희를 모으는”]이며 너희를 내게로 승천시키고, 믿지 않는 자들을 너희에게서 깨끗이 씻어 주고, 너희를 따르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 위에 올려놓아 심판의 날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부활. 그러면 너희는 모두 내게로 돌아올 것이요, 너희가 이전에 서로 다투었던 것에 대하여 내가 심판하리라.

이 구절에 대해 알라지는 사망 기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명한 무슬림 권위자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 와흐브 이븐 무나비흐는 예수가 3시간 동안 죽으셨고, 그 후 알라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 무함마드 이븐 이샤크는 예수가 7시간 동안 죽으셨다가, 그 후에 하느님께서 그를 부활시켜 승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 알라비 이븐 아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라를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알라께서 [꾸란에서] ‘알라는 영혼을 죽음의 순간에 데려가시고, 아직 죽지 않은 영혼은 잠자는 동안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수라 39:42)
- 이드리스는 예수가 3일 동안 죽으셨다가 알라가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10세기 후반 이라크 바스라에 설립된 비밀 아랍 형제단인 이크완 알-사파(Ikhwān al-Safā', 알-사파 형제단)는 예수가 죽고 나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IV. 알라지의 샤비흐에 대한 여섯 가지 문제

"**답을 사람**"이라는 타이틀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아래에는 이 문제들이 인용되어 있으며, 각 문제 뒤에는 그가 내린 결론, 즉 논평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1. 모든 인식이 의심스러워지는 문제.

한 사람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궤변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처음] 본 후 다시 본다면, 두 번째로 본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니라 단지 모방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함마드가 자신들을 가르치고 금하는 것을 본 그의 동료들은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투영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그가 같은 무함마드라고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법의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핵심적인

십자가와 초승달

구술 서사 연쇄의 주제는 첫 번째 화자가 지각 가능한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각 가능한 시각적 사물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면, 사건을 구술로 전달하는 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러한 문을 여는 것은 궤변의 시작이며, 그 끝은 예언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알라지의 코멘트: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한 유사성이 위에서 언급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당신이 언급한 것에 대한 답입니다.

2. 예수께서 자신의 신성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문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지브릴에게 예수와 동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석자들이 그의 말씀, "내가 성령으로 너희를 얼마나 강하게 하였는가"(수라 5:110)를 해석하면서 나타낸 것입니다. 지브릴의 날개 한쪽 끝은 인류를 돌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더욱이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와 나병환자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분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내리거나 질병과 만성 질환과 마비를 주어 그분과 대면할 수 없게 하지 않으셨는가?

알라지의 코멘트:

만약 지브릴이 [예수님]을 옹호했거나, 신께서 예수께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그의 기적은 강제적인 힘에 의해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3. 불필요한 행동의 문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늘로 높이 올리심으로써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형상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불행한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알라지의 코멘트: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 형상을 입히지 않으셨다면 그 기적은 강제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제약의.

4. 신의 기만을 암시하는 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에게 입히시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속고 모호해지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어긋납니다.

알라지의 코멘트: _____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둘러싼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호함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5. 종교적 전통을 불신하게 만드는 문제.

동반구와 서반구 모두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극진히 사랑하고 그분을 지나치게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부인한다면, 구전으로 입증된 사실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구전 전승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무함마드와 예수의 예언자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들의 역사성,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의 역사성마저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알라지의 코멘트: _____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가 현혹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구전이 소수에게 전수되면 지식에 쓸모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6.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탈출을 시도하지 않는 문제.

구전으로 전해진 바에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오랫동안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는 겁에 질려 “나는 예수가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백성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전혀 없었으므로, 우리는 이 일이 당신 주장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라지의 코멘트:

한 가지 가능성은 예수의 모습을 지닌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의 대리자가 되기를 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가 진실을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이 언급한 질문들은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꾸란] 본문이 무함마드가 보고한 모든 내용의 신뢰성을 증명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우연적인 질문들이 [꾸란]의 무오류적인 본문과 모순될 수 없으며, 신은 인도의 주인이십니다.

어려움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이슬람 학자는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려 다 오히려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립니다. 명백한 해결책(사비흐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는 꾸란의 권위를 주장하며 도피합니다. 그는 무함마드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것은 옳을 것이라고 말한다.

V. Al-Razi에 대한 Qayrawani 씨의 반응

Al-Razi의 6개 댓글에 대한 6개 응답: y. Qayrawani는 그의 책 'Was Christ really crucified?'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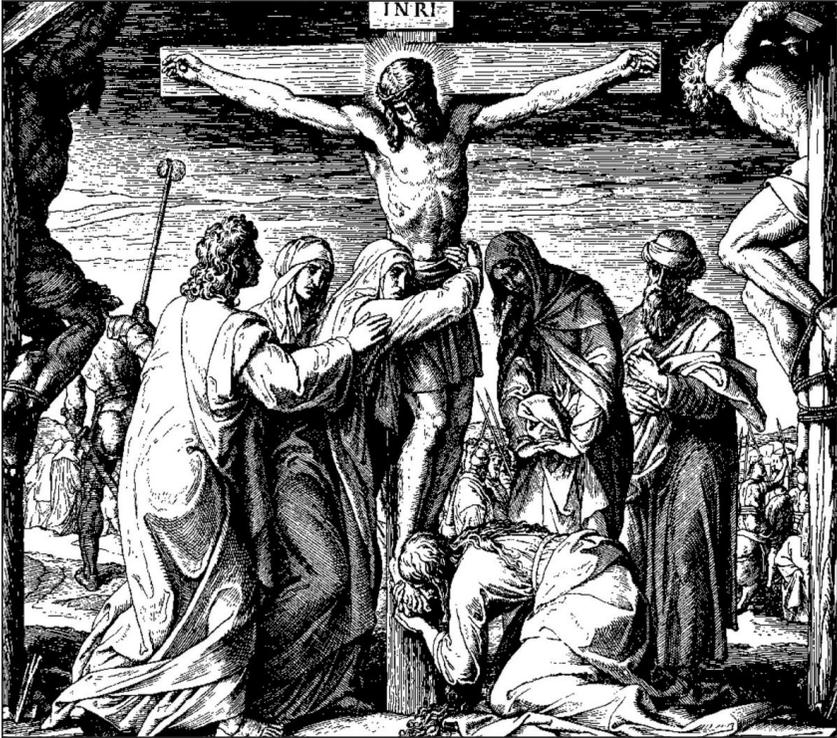
1. 예수님은 '더블'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라지의 첫 번째 답변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많은 사람들을 서로 닮도록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피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뜻으로 이루어시기로 택하신 사명이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비겁함이나 무관심으로 십자가 처형을 피하려 하셨다면, 그분은 스스로 완수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닮은 자의 기적을 행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2. 예수님은 전능하셨지만, 자신을 변호하지 않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천사 지브릴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방비 상태가 아니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으시기 전에 행하신 기적들은 훨씬 더 놀랍고, 주장된 구출 작전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사실들은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분의 적들이 그분을 잡으러 왔을 때, 그분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강력한 말씀으로 그들을 땅에 내던지셨습니다(요한복음 18:6). 그분은 안전하게 길을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민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그분은 그들 가운데서 빠져나가셨습니다. 당시 그들 중 누구도 감히 그분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때가 오자,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적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알라지와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목적을 연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한 죄 사함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의 주된 이유였음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3. 샤비흐에는 기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누군가에게 예수와 닮은 모습을 부여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유사 이야기의 목적은 그의 주인을 배신한 유다 이스가리옷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유다의 자살에 대한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그리는 것을 삼가는 것이 왜 강제적인 강요로 여겨져야 합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은 그분을 둘러싼 모든 의심을 불식시킬 것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4.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에 대한 신뢰할 만한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몇몇 추종자들이 그 끔찍한 밤 현장에 있었고 스승님께 일어난 일을 목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십자가 처형의 세부 사항을 복음서에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인 참고 자료와 문서로 뒷받침되는 복음서의 서술은 쿠란, 이슬람 하디스의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무슬림 해설자들의 수많은 환상과는 상충됩니다. 복음서는 이 중요한 사건의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줍니다.

5. 목격자들은 신뢰할 수 있다.

알라지는 네 번째 답변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건을 둘러싼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모호성을 제거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모순을 드러냅니다. 이제 그는 제자들이 소수였고 "소수에게 현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구전이 소수에게 전해진다면 지식에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모순적인가! 알라지는 제자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을 깨닫고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는 목격자로서 그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목격자들은

환상의 영향입니다. 실제로 십자가 처형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500 명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기록한 십자가 처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입니다.

6. 잘못된 사람이 처형에 저항했을 것입니다.

대조적인 이슬람 이야기들에 따르면, 한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예수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진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무슬림 해설가들은 그가 예수의 원수 중 한 명이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침묵을 지키거나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또는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외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거짓으로 고발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은 고귀한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카이라와니는 알라지가 이슬람식 십자가 처형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함마드의 진실성을 언급하는 반면, 기독교인들은 복음서 저자들의 진실성을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6세기 후에 쿠란에 기록된 한 구절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진정한 역사적 기록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VI. 십자가 처형을 확증하는 꾸란 구절들

그리고 십자가 처형에 의심을 던지는 꾸란의 한 구절에 대해서는 여러 위에 구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됨:

2장 87절

진실로 우리는 모세에게 성경을 주었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께 분명한 기적을 베풀고 성령으로 그분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뜻에 맞지 않는 사자가 오면, 당신은 교만해져 어떤 사람은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는 것입니까?

이 구절은 모세와 예수,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죽이는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꾸란은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꾸란의 인질이 이 주제에 대한 유일하고 자연스럽게 최초의 정보 출처가 됩니다. 예수는 부인되고 죽임을 당한 사자였습니다.

3장 55절

알라께서 말씀하셨다. “오 예수여! 나는 무타와피카 [무타와피카][너를 죽게 하고], 너를 내게로 승천하게 하며, 불신자들을 너에게서 씻어 주고, 부활의 날까지 너를 따르는 자들을 불신자들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다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요, 너희가 이전에 서로 다투던 것에 대하여 내가 심판하리라.

알라지는 이 구절, 특히 일반적으로 "너희를 모오다"로 번역되는 " 무타와프-피카 "라는 구절을 해석하면서 다른 무슬림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했지만,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습니 다. 다양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기를 마치세요. 무타와피카는 "내가 이 땅에서 네 임기를 마치니, 네 원수인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너를 죽게 한다. 이것은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꾸란의 해설자"로 알려진 이븐 바스의 해석입니다. 또한 무함마드의 전기 작가 이븐 이샤크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목적이 예수의 유대인 적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예수를 하늘로 올리심으로써 영광을 베풀었습니다.
- 네 정욕을 죽이라. 아부 바크르 알 와시티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정욕과 네 영혼의 욕망으로 너를 죽게 한 후, 너를 내게로 일으켜 세운다. 그가 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 죽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신에 대한 지식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는 천사들처럼 정욕에서 자유로워지셨다." 이 신비주의적 해석은 예언자들의 무오류성이라는 이슬람의 원칙과 모순됩니다. 또한 예수는 "흠이 없다"(수라 19:19)는 꾸란의 말씀과도 모순됩니다.
- 너를 승천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마리아의 아들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으로 모두 온전히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은 “그들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심으로써 마치 그분이 죽은 것처럼 이 땅에서의 그분의 존재가 끝나게 됩니다.
- 붙잡다, 또는 소유하다. 예수님을 땅에서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은 대가이자 보상이입니다.
- 일에 대한 보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분의 순종과 선행을 받아들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적들 때문에 겪게 될 고난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해석은 독자의 마음에 혼란을 야기합니다. 왜 이 무슬림 학자들은 혼한 단어를 다르게 해석했을까요? 그리고 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신은 더 잘 아신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빨리 사용하는 걸까요?

쿠란에 나오는 '무타와피카(mutawaffika)'라는 단어의 함축적 의미를 연구하는 것은 충분히 간단합니다. 이 단어와 그 파생어는 25회 등장합니다. 대부분 죽음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며, 잠을 이야기할 때는 단 두 번만 사용됩니다.

6장 60절

밤에 당신을 기억하시는 분도, 낮에 당신이 저지른 일을 아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39장 42절

하느님께서 영혼이 죽을 때 영혼을 데려가시고, 아직 죽지 않은 영혼은 잠자는 동안 데려가십니다.

수라 3:55의 맥락을 연구하면 우리는 mutawaffika 를 볼 수 있습니다.

비유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데, 자연적으로든,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든 말입니다. 하디스는 무타와피카가 "너희를 죽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알부하리는 이븐 압바스의 권위를 빌려 무함마드가 "심판의 날에 너희는 맨발로, 벌거벗은 채, 할레반지 않은 채"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수라 21장 104절의 말씀을 낭송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창조를 시작했듯이, 우리는 그것을 반복할 것이다. 우리는 약속을 했고, 우리는 진실로 그것을 실행할 것이다."

무함마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활의 날에 가장 먼저 웃을 입는 사람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내 동료들 중 일부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인도될 것이며, 나는 '나의 동료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가 그들을 떠난 후에 그들은'

십자가와 초승달

[이슬람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아들, 경건한 종 예수가 [수라 5:117]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들 가운데 거하는 동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죽게 했을 때, 당신은 그들을 지켜보는 분이셨고, 모든 것을 지켜보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그들을 벌하시면 그들은 당신의 노예가 되고, 당신이 그들을 용서하시면 당신은 참으로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이 하디스에 따르면, 무함마드는 꾸란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무함마드는 죽었고, 아무도 그가 승천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위의 꾸란 구절을 낭송하며 "타와파이-타니 (tawaffay-tani, 나를 죽게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그는 자신의 죽음을 언급했을 뿐, 승천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게 했다"라는 표현은 예수와 무함마드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두 분의 차이점은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기독교와 무슬림 교리가 모두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꾸란 구절과 이슬람 하디스에서 '와파트'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맥락상 다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죽음'입니다.

3장 183절

그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불이 태워버릴 제물을 가져올 때까지 어떤 사도도 믿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오, 무함마드] "사자들이 나보다 먼저 기적을 행하며 너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묘사하는 그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죽였습니까? 만약 진실이라면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꾸란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늘에서 제물을 가지고 온 유일한 사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수라 5장 1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 우리 주 하나님, 하늘에서 온 음식으로 차려진 식탁을 내려주소서. 그것이 우리를 위한 잔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중 처음이자 마지막인 우리를 위한 잔치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표징이 되게 하소서. 당신은 가장 훌륭한 양육자이시니 저희에게 양식을 주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제물을 가져오신 분이시며, 유대인들이 죽인 분입니다.

수라 5:116, 117 알라

께서 말씀하셨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네가 사람들에게 ‘알라 외에 나와 내 어머니를 두 신으로 모시라’고 했느냐?” 그러자 예수는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가 할 말이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나는 당신의 마음을 모릅니다. 나는 당신께서 내게 명하신 것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 너희의 주님 알라를 경배하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는 동안 나는 그들을 증거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게 했을 때에도 당신은 그들을 지켜보셨고, 모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5장 117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제자들을 통제할 수 없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늘로 부활하셨다는 이슬람의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 혹은 그들을 위해 증거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는 동안 그들을 위해 증인이 되었노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간접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분이 의미하신 것은 "당신께서 저를 죽게 하셨으니, 이제 저는 그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살아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였습니다.

19장 33절

내가 태어나는 날, 내가 죽는 날, 그리고 내가 살아서 부활하는 날에도 평화가 있기를.

이것은 예수의 입에서 나온 분명한 꾸란 고백이자 예언으로, 그가 육신을 입고 죽고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적에 근거한 것이며 복음서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꾸란은 수라 19장 15절에서 세례자 요한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태어난 날과 그의 죽음의 날, 그리고 그가 부활하는 날에 평화가 그에게 있기를." 많은 무슬림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내가 죽는 날"이라는 구절이 예수의 재림과 그의 죽음 이후의 죽음을 가리킨다고 가정합니다.

십자가 와 초승달

다잘 의 파괴 . 알타바리, 이븐 카티르, 알자마크샤리, 알바이다위와 같은 주석가들이 이 구절들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i 성 아타나시우스, 말씀의 성육신 (마크타바트 알-마하바, 카이로, nd), 56쪽.

ii 알-트바라니, 이브라힘, 신학적 논쟁 (빌라흐: 생명의 빛, nd), 42쪽.

iii Qayrawani,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빌라흐, Light of Life, 1994), 27쪽.

iv Ikhwan al-Safa', 백과사전, Rasa'il ikhwan al-Safa' wa khillan al-wafa', Vol. 4, p.30.

v Qayrawani, op.cit., pp.23-26.

십자가 처형의 증거

12

1. 십자가 처형에 대한 성경적 증거

66권의 영감받은 책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반향하고 말하며, 80권의 사건들의 세부 사항을 예언합니다. 27권의 책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네 권은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며, 특히 생애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저자들이 이 기간을 가장 중요한 시기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1. 성경의 예언은 십자가형을 증거합니다.

시편 22편(기원전 1,000년 전에 기록됨)과 이사야 53장(기원전 700년 전에 기록됨)은 아마도 예수님을 언급하는 가장 인상적인 구약 예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을 예언하는 구절들은 훨씬 더 많으며, 모두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가) 예수님을 은 삼십 개에 원수들에게 넘겨주심

스가랴 11:12

그러자 내가 그들에게 "만약 당신들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내 품삯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내 품삯을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은 삼십 세겔을 달아서 내 품삯으로 지불했습니다.

이행:

마태복음 26:14

그러자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가리옷이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무엇을 주겠소?" 대제사장들은 그에게 은화 서른 개를 주었다.

십자가 와 초승달

(b) 도공의 발 매입

스가랴 11:13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돈을 금고에 넣어라. 그들이 내게 준 주인의 값어치를 넣어라." 그래서 나는 그 삼십 세겔을 가져다가 주님의 집 금고에 넣었다.

이행:

마태복음 27:3-8

그분을 배반한 유다는 그분이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회개하여 은 삼십 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무죄한 피를 팔아넘겨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라." 그리고 나서 그는 은화를 성전에 던져 버리고 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은전을 거두어 "이것은 피값이니 금고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며 의논하고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발을 사서 나그네들을 묻으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발은 오늘날까지 피발이라고 불린다.

(c) 예수님을 조롱한 후 십자가에 못 박음

사편 22:16-18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고, 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있으며, 그들은 내 손과 발을 찢었습니다. 나는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노려보며 즐거워하고, 내 옷을 나누어 가지고, 내 옷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행:

마태복음 27:39-42 지나가

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비웃으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는 자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더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를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더라.

(ㄷ) 아버지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에 대한 놀라움

시편 22:1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를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행:

마태복음 27:46 오후

9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입니다.

(e) 그에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함

시편 69:21 그들

은 내가 목마르자 식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행:

요한복음 19:28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
도록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초를 듬뿍 묻
힌 해면을 히솅에 꿰어 예수의 입에 대었습니다.

(마) 그의 옷을 제비로 나누어 주는 군인들

시편 22:18

그들은 내 옷을 서로 나누고 내 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행:

요한복음 19:23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의 옷을 가져다가 군인 한 명당
하나씩, 총 네 부분으로 나누고, 또한 그의 튜닉도 가져갔습니다.

(g) 그의 뼈가 부러지지 않음

시편 34:20

그는 모든 뼈를 다 보존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하셨느니라.

이행:

요한복음 19:32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이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h) 그가 창에 찔림

스가랴 12:10

그들은 자기들이 찔렀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위해 애통해할 것입니다.

이행:

요한복음 19:34

군인 중 한 사람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i) 악인들과 함께 죽으셨지만 또한 영광을 받으심

이사야 53:9

그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들과 함께 만들었고, 그의 죽음은 부자와 함께 했습니다.

이행:

마태복음 27:57-60

저녁이 되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는 부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것을 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떠났습니다.

2.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형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자신에게 임할 것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6:2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22

그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은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마태복음 26:1-2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 후면 유월절이 이르고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넘겨지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8:31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느니라.

마가복음 9:31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요, 죽임을 당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32-34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보다 앞서 걸어가시자 그들은 놀랐고, 뒤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고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니, 그들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요,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누가복음 9:22

인자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13, 14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2:24, 32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 와 초승달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진실의 말씀"(수라 19:34)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실을 말씀하신 분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신앙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3. 유대인 동시대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목격하고 부활 이야기를 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명의 유대인도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후, 골고다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주요 목격자인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 청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그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도다"(사도행전 2:23). 비슷한 때에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사도행전 3:14-15).

만약 이러한 비난이 근거가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이를 부인했을 것이고, 제자들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러한 비난에 반박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자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했을 뿐(사도행전 4:18, 5:28, 40), 제자들이 이를 무시하자, 헛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사도행전 7:59, 8:4 참조).

4. 자연은 십자가형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자, 해가 세 시간 동안 어두워졌습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27:50-54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영이 떠나시니라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고 십자가 처형을 감독하던 로마 백부장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5. 초기 교리문답은 십자가형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최초의 기독교 교리문답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다시 생각나게 하노니, 너희가 그것을 받았고 또 그 안에 서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만일 너희가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만일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얻는다. 내가 받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다"(고린도전서 15:1-4).

6. 성례전은 십자가형을 증거합니다.

초기 교회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성례를 행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됨"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합한 자가 되리라"(로마서 6:3-5).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지속적인 행사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태복음 26:26-28)

7. 말고의 귀를 고치신 일은 십자가 처형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시몬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변호하고자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쳐 그의 오른쪽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내가 그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십자가 와 초승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라"(요한복음 18:10,11).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만지시고 고쳐 주셨습니다(누가복음 22:51).

예수님 외에 누가 잘린 귀를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체포된 사람이 사비, 즉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었다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8. 십자가에 달린 일곱 가지 진술은 십자가 처형을 증거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비르는 고통스러운 죽음의 고통 속에서 결코 그런 말씀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술 1.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누가복음 23:3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진술 2. 회개한 도둑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할 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누가복음 23:42,43).
- 진술 3.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을 지켜보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에게는 “이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9:26,27).
- 진술 4. 오후 9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하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입니다.(마태복음 27:46)
- 진술 5.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28)고 말씀하셨습니다.
- 진술 6. 예수님께서 잔을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을 내어주셨습니다(요한복음 19:30).
- 진술 7.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숨을 거두셨다(누가복음 23:46).

성모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십자가 바로 아래에 서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을 리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가장 친한 친구가 그다음입니다!

9. 빈 무덤과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증거합니다.

무슬림과 기독교인은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무덤이 사흘째 되는 날 비어 있는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그리스도 대신 무덤에 안치되었다고 믿는 무슬림들은 그 실종을 설명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순절 날, 베드로는 첫 설교를 했습니다(사도행전 2:14-36 참조). 그 설교에서 그는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여러분 가운데에 베푸셔서 여러분에게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유대인들]에게 넘겨진 것이었는데,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 각각 한 구절씩 할애한 후, 부활에 대해 아홉 구절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24-3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죽음이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다윗은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뵈었습니다.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희망 속에 살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나를 스올에 버리지 않으시며 당신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 주셨고 당신 앞에서 나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족장 다윗이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여기에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언자였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로 그의 후손 중 한 명을 그의 왕좌에 앉히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와 초승달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버려지지 아니하셨고, 그의 육신은 썩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목격합니다.

같은 설교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분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2:33-36

하나님 우편으로 높이시어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체가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청중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반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건을 목격했고,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다." ... 그의 말씀을 받아 들이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 명이나 더하더라"(사도행전 2:37-41).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14, 15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부활하신 후, 그분은 제자들과 수백 명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확증하셨습니다. 바울이 증언하듯이,

고린도전서 15:3-8

내가 받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오백 명이 넘는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맨 나중에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가장 놀라운 반응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는 믿기 전에 항상 확실한 증거를 구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라고 말했지만, 그는 "내가 그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 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20:24-29).

II. 십자가 처형의 의학적 증거

예수님의 분삭은 불길과 적독, 매달렸고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골고다로 향하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십자가 처형 자체는 고통스럽고 지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약 아홉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고, 손과 발,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한 군인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흘러나온 피와 물은 그분이 이미 죽으셨음을 증명했습니다(요한복음 19:34).

존경받는 의사들이 책을 썼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의학 협회 저널의 한 기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역사적, 의학적 증거의 무게는 분명히 예수가 옆구리에 상처가 나기 전에 이미 사망했음을 시사하며, 이는 오른쪽 갈비뼈 사이에 찢린 창이 오른쪽 폐뿐만 아니라 심낭과 심장까지 관통하여 예수의 죽음을 확신했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가정에 근거한 해석은 현대 의학 지식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ⁱⁱ

III. 십자가 처형의 심리적 증거

어떤 단계를 거쳐 죽음을 자랑스럽게 호수하는 경우라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갈라디아서 6:14 참조).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곧 이 죽음의 도구를 신앙의 상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팔에 새기고, 교회에서 높이 들었습니다. 한때 수치의 원천이었던 십자가는 기쁨과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잔혹한 독재자가 이웃 나라를 침략하여 시민들을 고문하고 학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애국자가 동포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자, 독재자는 그를 체포하여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그의 추종자들은 일어나 압제자를 몰아냈습니다. 그 나라는 해방되었습니다. 지도자의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시민들은 나라 이름을 "교수형의 나라"로 바꾸고 국기에 올라미 그림을 눈에 띄게 걸었습니다.

이는 기독교에서 일어난 일과 매우 흡사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메시지는 "예수님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입니다.

(고린도전서 2:2) 그들은 십자가를 그들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도자의 죽음, 즉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비할 데 없는 축복의 원인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IV. 십자가 처형에 대한 비기독교적 증거들

많은 ~~이교~~ ~~역사~~ ~~가~~ ~~들~~ ~~이~~ ~~이~~ ~~를~~ ~~살~~ ~~려~~ ~~서~~ ~~증~~ ~~언~~ ~~하~~ ~~는~~ ~~다~~.

-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 (서기 55-120년). 정직함과 선함으로 유명한 타키투스는 고대 로마 최고의 역사가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로는 『연대기』와 『역사』가 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총독 시절 접할 수 있었던 공식 기록에서 그리스도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이것들에 대해 세 번 언급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연대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를 불태웠다는] 소문을 없애기 위해, 네로는 그 죄를 뒤집어씌우고 민중이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혐오스러운 계층에게 가장 가혹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 이름의 유래인 크리스투스는 티베리우스 통치 기간에 우리의 총독 중 한 명인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손에 극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잠시 억제된 가장 해로운 미신이 악의 근원인 유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추악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중심이 되어 인기를 얻는 로마에서도 다시 발생했습니다."iii 타키투스가 암시하는 "해로운 미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부활이었습니다.

- 탈루스 (서기 52년경). 타키투스처럼 탈루스는 초기 기독교인들과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로마 역사가 중 한 명인 그는 트로이 전쟁부터 자신의 시대까지 동지중해 세계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저작 중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와 같은 다른 저자들의 인용문과 함께 남아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십자가 처형 당시 온 땅을 뒤덮었던 어둠에 대해 율리우스는 서기 221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탈루스는 그의 역사서 제3권에서 이 어둠을 일식으로 부당하게 설명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4 율리우스는 일식이 "보름달이 뜨는 시기에 일어날 수 없으며, 예수가 [...]"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v 탈루스만이 이 어둠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고대 작가들도 이를 전합니다. 아레오파기타 디오니시우스는 “자연의 신이 지금 명상 중이거나,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세기에 점성가 필로포네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타난 어둠은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븐 카티르도 그의 저서 『알-비다야 왈-니하야』에서 이를 언급했습니다.

vi 이븐 알-아티르의 서술자와 해설자의 권위에 따라 그의 연대기에 이를 기록했습니다.vii

- 요세푸스. 십자가 처형 후 몇 년 뒤에 태어난 유대인 요세푸스는 서기 66년에 20권에 달하는 동족 역사를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자세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행실이 선했고 덕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대인과 다른 민족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은 그분의 제자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지 사흘 만에 나타나셨고, 살아 계신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아마도 선자들이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했던 메시아였을 것입니다.

- 루시엔 (서기 100년). 뛰어난 그리스 역사가였던 루시엔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추종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는 그들의 자세를 이해하지 못했고, 영혼 불멸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천국에 대한 갈망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현세에 살기보다는 불확실한 천국의 희망에 매달리는 기만당한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 암시하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까지도 한 사람을 숭배합니다. 바로 그들의 새로운 의식을 도입하고 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저명한 인물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신들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자를 숭배하며 그의 율법에 따라 살아갑니다."9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은 기독교 신앙을 조롱했던 이교도들조차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본디오 빌라도. 그의 첫 번째 변증서에서, 순교자 저스틴(c. 서기 150년)은 본디오 빌라도의 행적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빌라도의 보고로 확증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을 언급하며 저스틴은 " 본디오 빌라도의 행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 셸시우스 (서기 140년경).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이자 기독교의 적이었던 셸시우스는 그의 저서 『진실된 담론』(The True Discourse)에서 십자가 처형의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인류의 복지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 마라 바르 세라피온. 1세기 후반에서 3세기 사이에 쓰인, 감옥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라 바르 세라피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현명한 왕을 처형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얻었습니까? ... 현명한 왕은 영원히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한 가르침 속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이교도였던 마라 바르 세라피온은 예수를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동등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여겼습니다.

V. 영적 증거: 십자가 처형을 목격한 증인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께 이끄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그의 귀중한 삶과 목숨을 가르침에 이끌린 사람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친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요한복음 12:3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한복음 3: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이끌립니다.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요한일서 4:8-10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것은 이것입니다. 곧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VI. 십자가 처형에 대한 이슬람의 증거

1. 꾸란은 십자가형을 증명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리스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만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만을 통한 구원을 전파하는 제자들은 사실상 사비흐, 즉 예수님과 닮은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전파한 셈입니다. 무함마드가 오기까지 600년 동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가짜를 믿도록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거룩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속인다는 개념은 꾸란의 가르침입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선자들은 알라를 속이려 하지만 (유카디아우나), 그들을 속이는 분은 알라이시다 (카디우흐)" (수라 4:142)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유대인들]은 마카루 ("음모")를 꾸렸고, 알라께서는 마카라("음모")를 꾸렸다. 그리고 알라께서는 마케린 ("음모자") 중 최고이시다. 알라께서 '오 예수야, 나는 무타와피카 (mutawaffika, 너를 죽게 하고, 너를 내게로 승천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수라 3:54,55)

꾸란에 따르면, 신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이단을 만들어내어 모든 사람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게 했습니다. 이슬람이 와서 "진실"을 밝힐 때까지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진실"은 600년이나 늦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도 전혀 없었습니다!

2. 많은 무슬림들이 십자가 처형을 목격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슬림들은 십자가 처형을 믿습니다. 그중에는 노벨상 수상자인 벵골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가 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시구를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오래전 그곳에서 그분은 죽음의 쓴 잔을 부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지 않는 생명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시대를 상처 입혔던 악의 무기들을 본다. 거만한 뾰족한 창과 창, 가늘고 교활한 칼, 외교용 칼집에 꽂힌 굵고 잔인한 원월도는 괴물 같은 바퀴 위에서 날을 세우며 쇠뿔거리고 불꽃을 튀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것은 도살자들의 손에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이 새겨진 것, 증오의 불길에 녹아든 그분의 말씀으로 만들어 지고 위선적인 탐욕으로 망치질된 것입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죽음의 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 음을 느꼈다. 교묘한 기술을 터득한 사람들이 수없이 만들어낸 새로운 못이 그의 모든 관절을 찔렀다.

그들은 성전 그늘에 서서 한때 그분을 다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중 속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신성한 제단 앞에서 그들은 군인들에게 "쳐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인자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칩니다.

예를 들어, W. Stroud 박사의 저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물리적 원인과 기독교의 원칙 및 실행과의 관계에 관한 논문』 (런던: Hamilton and Adams, 1871) 28-156쪽, 489-494쪽 참조 .

ii 미국 의학 협회 저널, 1986년 3월 21일, 1463쪽. 노먼 L. 가이슬러와 압둘 살렘의 저서 『이슬람에 대한 답변』(Answering Islam), 베이커 하우스, 그랜드래피즈, 1993, 230쪽에서 인용.

iii 게리 R. 하버마스, 역사의 판결(The Verdict of History) (내슈빌: 토마스 넬슨, 1982), 87쪽.

iv FF 브루스, 신약성서 문서(The New Testament Documents) (케임브리지: 틴데일, 1960), 113쪽.

v 위와 같음, 113쪽.

vi Ibn Kathir, Al-Bidaya wal-Nihaya, Vol. 1, p. 182.

vii Ibn al-Athir, Tarikh al-Kamil (베이루트: Dar Sadir, 1965) p.319.

viii 게리 R. 하버마스, 앞의 책, 91f쪽.

ix 게리 R. 하버마스, 앞의 책, 100쪽.

x 게리 R. 하버마스, 앞의 책, 107쪽.

xi Awad Samaan, Qadiatul Ghofran fil-Masihia (카이로, 1951년, 자체 출판), p.109.

xii Gary R. Habermas, 앞의 책, 101쪽.

xiii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시와 희곡집 (뉴욕: 맥밀런, 1937), 453쪽.

예수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

13

성경과 과학은 인간 복수에 이미 꾸란이 에덴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을 확증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꾸란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전하며(수라 2:35-38과 7:19-26) "사탄이 그들을 빗나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이 그들의 후손에게 미칠 결과를 분명히 밝힙니다. 수라 2:36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구체적으로 그들을 한 쌍으로 지칭하며) "내려가라[복수], 너희 자손은 서로 원수가 되리라... 너희 모두 여기서 내려가라[복수]"(수라 2:36, 38)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용합니다. 수라 7:24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구체적으로 한 쌍으로 지칭하며) "내려가라[복수], 너희 중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에게 원수가 되리라"(수라 2:37-38)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용합니다.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인간 영혼의 타락을 인정합니다.

11장 9절

그 사람은 절망하고 배은망덕합니다.

12장 53절

인간은 분명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14장 34절

분명 인간은 잘못을 저지르고 은혜를 모르는 존재일 것이다.

17장 67절

참으로 인간은 언제나 은혜를 모르는구나.

33장 72절

그는 폭군이며 바보 임이 증명되었습니다.

100장 6절

사람은 참으로 주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십자가 와 초승달

구약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 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 53:6)라고 말합니 다. 신약 성경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독사의 독이 그들의 입술에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하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며 파멸과 고생이 그들의 길을 나타내나 평 강의를 알지 못하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라고 말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

(로마서 3:10-20)

이것이 모든 무슬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악행을 속죄해 주시고, 의로운 자들의 모임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 주십시오” (수 라 3:193)라고 기도하는 이유 입니다 .

가장 큰 의문은 이 청원이 어떻게 승인될 수 있는가입니다.

I. 선행은 구원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꾸란은 선행이 악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선행은 악행을 물리칠 것이다. 이 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들을 위한 기억이다.”(수라 11:114)

꾸란이 악을 없애기 위해 권장하는 몇 가지 선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2장 271절

공개적으로 자선을 베푸는 것은 좋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밀리에 구호품 을 베푸는 것이 더 좋으며, 당신의 죄 중 일부를 속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 니다.

5장 12절

만일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자카트(구호금)를 바치고, 나의 사도들을 믿고 지지하며, 알라께 좋은 것을 빌려준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5장 45절

눈에는 눈으로...그러나 누구든지 보복을 용서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위한 속죄 행위입니다.

5장 89절

알라는 의도하지 않은 맹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시지만, 의도적으로 맹세한 맹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속죄는 가난한 사람 열 명에게 너희가 너희 동족에게 먹이는 것의 평군을 먹이거나, 그들에게 옷을 주거나, 노예 한 명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3일간의 단식을 시키십시오.

장 29:7

믿는 자와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해 주고, 그들이 행한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보상해 줄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기도, 자선, 신의 사자를 지원하는 것, 보복하지 않는 것, 노예를 해방하는 것, 금식이 속죄의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취합니다. 신약성서는 선행이 악행을 무효화하거나 없앨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2:8,9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된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디도서 3:3-7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속고 온갖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하며 악독과 시기 가운데 살며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였더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셨으니 곧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와 초승달

하나님은 저울을 사용하여 우리의 선행을 한쪽에, 악행을 다른 쪽에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선행이 악행보다 10배나 더 많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로.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돈, 사용하는 에너지, 누리는 건강, 그리고 그분께 드리는 시간, 이 모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선물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기부할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은 참으로 아무것도 드릴 수 없사오니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우리는 주의 소유를 드렸을 뿐이이다"(역대상 29:1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의 영적인 빛을 갠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둘째, 세상의 어떤 법원도 범죄자가 선행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돌려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살인죄를 면제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법원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려야 하며, 범죄자는 그 형벌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법의 근본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건한 행위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를 치르실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참되고 온전히 받아들여질 만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디모데전서 1:15)

II. 우리에게서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1. 대속물은 성경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람이 없느니라"(히브리서 9:22)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벌거벗음의 수치를 느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가리려는 모든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 털로 옷을 입히심으로써 주도권을 잡으셨습니다(창세기 3:20).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보상.

아담의 두 아들, 아벨과 카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것이 제사였기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카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창세기 4:3,4).

고대의 위대한 선지자들은 동물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했습니다. 노아(창세기 8:20 참조), 욥(욥기 1:5), 그리고 아브라함(창세기 12:8)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삭은 큰 제사를 통해 구속받았고(창세기 22:13), 후에 그 자신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창세기 26:25). 그의 아들 야곱도 그랬습니다(창세기 35:3).

레위기의 거의 전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죄를 위해 드려야 할 동물 제사에 관해 주신 율법을 다룹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파라오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월절 양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출애굽기 12:1, 2). 그때부터 아론과 그의 후손인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생물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네게 주어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노라"(레위기 17: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참된 제사를 상징하는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모세 율법에 따른 모든 제사의 성취가 그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한복음 1:29)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고린도전서 5:7)이십니다.

히브리서 9:22-28

사실, [모세의]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불과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그분은 하늘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또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분은 자신을 여러 번 드리기 위해 하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그러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단번에 나타나셨습니다...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시려고 단번에 제물로 바쳐지셨고, 죄를 지고 가지 않으시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시기 위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십자가 와 초승달

2. 꾸란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아들'의 대속물

꾸란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큰 희생으로 구원하는 것에 대해 언급할 때 "몸값"이라는 개념을 수용합니다. 꾸란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해 "우리는 큰 희생으로 그[아들]를 몸값으로 지불했다"(수라 37:107)라고 말씀하셨다고 인용합니다.

하지만 어떤 아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알-쿠르투비의 수라 37:107 주석은 무함마드 자신, 그의 사촌 이븐 아바스, 알리, 우마르, 압둘라 이븐 마사우드, 압둘라 이븐 우마르 등을 포함한 일부 주요 무슬림들이 구원받은 아들이 이삭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합니다. 무함마드와 이븐 아바스(역시), 그리고 아부 후라이라와 아부 투파일을 포함한 또 다른 집단은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주장합니다. 압둘라 유세프 알리는 같은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 "몸값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 지불한다. 오직 이 구절에서만 신이 몸값을 지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알바이다위에 따르면, "그는 자신을 대신하여 희생된 것에 의해 구속되었고, 따라서 그 행위는 성취되었습니다."

같은 구절을 언급하며 알-라지는 알-수디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려 나갔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갑자기 산에서 내려오는 숫양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들 곁을 떠나 그 숫양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오늘 너는 내게 선물로 주어졌다.' 숫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위한 대속물로 받아들이셨기에 큰 제사였다고 합니다."

무슬림에게는 매년 두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이드 알 카비르 ("대축일")와 이드 알 사기르 ("소축일")입니다. 두 번째 축제는 금식월인 라마단이 끝나는 시기에 열리며, 이드 알 피트르 ("금식 깨기")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축제는 이드 알 아드하 ("희생의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아브라함의 아들의 구원을 기념합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동물을 도살해야 합니다. 하지를 행하는 사람들은 메카에서 제물을 도살합니다. 이에 대해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장 22:32-36

알라께 봉헌된 제물을 크게 여기는 자는 분명 마음의 헌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너희에게 유익이 있으며, 그 후에는 그것들이 옛 성전에 제사로 바쳐 집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가축 위에 알라의 이름을 부르도록 의식을 정했습니다. 낙타도 알라의 의식 중 하나로 정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낙타가 대열을 이룰 때 알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라. 낙타의 옆구리가 떨어지면 그것을 먹고 거지와 간청하는 자에게 먹이를 주어야 한다. 우리는 너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낙타를 너희에게 복종하게 했다.

수라 37:107에 대해 알 가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 제물을 도살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 신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희생 제물을 바치고 신께서 그 제물의 각 부분, 즉 당신의 일부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라십시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크고 그 부분이 많을수록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은 더욱 충만해집니다... 동물을 희생하여 신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아이샤에 따르면, 무함마드는 이드 알 아드하의 희생 제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생 제사의 날에 피를 흘리는 것보다 신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희생 제물로 바쳐진 동물은 부활의 날에 뽕과 털, 발굽을 가지고 나타나 그 행위의 저울을 무겁게 할 것입니다. 진실로 그 피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신의 허락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기뻐하십시오."ii

하지만 이슬람에서 '알-아드하'라는 용어는 그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희생 제사인 '알-아드하'는 아브라함이 "위대한 희생"의 고기를 먹거나, 거지와 간청자들에게 주거나, 지옥에서 면죄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대속의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삭을 구속하기 위해 숫양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요한복음 1:29, 36).

알 아드하 축제는 대속을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로마서 5:8). 안타깝게도 무슬림들은 모세 율법의 제사와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제사의 성취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축제인 알 아드하의 실제 의미를 무시합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III.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꾸란은 신이 정의롭다고 가르칩니다. 저 세상에서 그들에게 매우 무거운 형벌을 내리리니, 그들을 도울 자가 없으리라”(수라 3:56). 절대적인 정의가 충족되어야 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치러야 합니다.

꾸란은 또한 신이 자비로우심을 가르칩니다. "너희 주께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니, 너희 중 누구든지 악을 행하고 회개하여 선을 행하면 알라는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시니라... 만일 알라의 은총과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너희에게 베푸시는 자비가 없었다면, 너희에게 큰 벌이 내렸을 것이다"(수라 6:54, 24:14).

꾸란은 자비와 정의를 함께 언급하기도 합니다. "알라는 엄한 벌을 내리시지만, 알라는 관대하고 자비로우심을 알라... 진실로 너희 주님은 징벌에 빠르시고, 진실로 관대하고 자비로우시다"(수라 5:98, 7:167).

따라서 꾸란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는 성경과 일치합니다. 그분 안에는 자비와 정의의 속성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분이 죄인을 용서하신다면, 그분의 자비는 작용하지만 정의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죄인을 벌하신다면, 그분의 정의는 작용하지만 그분의 자비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속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꾸란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십자가에서 모두 작용했다고 말합니다.

자비와 정의는 우리 죄의 형벌을 짊어지신 예수님 안에서 화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최고의 형벌을 치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19)

한 무슬림이 저자에게 “자비로우신 신께서 당신의 거룩한 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진실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변호하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를 보내 주시지 못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마태복음 26:51-5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니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함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요한복음 10:17-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심으로써 자비와 정의가 모두 충족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사야 53:4-6

그는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도다"(시편 85:9, 10). 시편 기자의 예언은 천 년 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고린도후서 5:17-21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자니라

십자가 와 초승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당신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이다. 제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로다." (누가복음 2:25-35)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하실 때의 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늦밤을 장대 위에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4-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참된지요!

히브리서 10:19-23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곧 휘장 곧 그의 몸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느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는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깨끗이 씻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붙잡자.

작은 마을 교회의 한 목사가 다른 직책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끊임없이 가르친 것을 이해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많은 교인들이 사역하고 있는 밭으로 갔습니다. 그들에게 인사를 건넨 후, 그는 물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뭐야?" 마을 사람이 짚으로 원을 만들고 지렁이 한 마리를 가져다가 원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그는 짚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렁이는 위험을 감지하고 꿈틀거렸지만, 스스로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은 손을 뻗어 지렁이를 안전한 곳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구원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따뜻하고 강력한 손길을 뻗어 불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온 인류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목사의 마음이 흡족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며,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맡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19)

IV. 무슬림들은 왜 그리스도의 속죄를 거부하는가?

무슬림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거부합니다.

1. 무슬림은 죄가 신을 해치거나 신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슬림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못합니다.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도다"(말라기 2:17)라는 비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무슬림도 하나님께 "내가 오직 당신께만 죄를 지어 당신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나이다"(시편 51:4)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슬림에게 죄를 짓는 것은 시험에서 틀린 답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2+2=5"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것이지만, 산수 선생님이나 산수 법칙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슬림에게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죄의 사악함을 부각시켜 존재해서는 안 될 문제를 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 무슬림들은 신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용서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슬림의 사고방식에서 용서와 낙원의 제공은 신의 결정이며, 오직 신의 뜻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필요할까요? 이미 죄의 문제를 확대함으로써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통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십자가 와 초승달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신이 죽어야 한다는 거야!

이 두 가지 점에 대한 기독교인의 간단한 답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 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일입니다. 구약의 모세, 시편의 다윗, 그리고 복음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조화롭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사도행전 4:10, 12).

V. 십자가형은 거룩한 삶으로 이끈다.

그리스도 위 십자가형이 죄자 감싸 권원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32). 죄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공격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판단하실 때에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리이다"(시편 51:4).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라디아서 2:20)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3-12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음이니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지체를 제물로 드리지 말라

너희 몸의 일부를 죄에게 주어 불의의 무기로 삼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몸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그분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은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니라.

고린도후서 5:14-21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는 한 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이니라” (갈라디아서 6:14)고 말합니다.

VI. 십자가는 사랑의 논리를 말한다.

대학 교수이자 무슬림인 그는 박사 학위를 두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그는 기독교 목사님을 인터뷰해야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친절하게 맞아주셨고, 그의 질문에 자세히 답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교수는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상가이시면서, 아직도 기독교인이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고, 그리고 독생자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해 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원수들을 죽이고 자신을 구원하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어떻게 믿으십니까?"

목사님은 겸손하게 인도를 구하는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자녀가 있으신가요?"라고 물었습니다.

"네, 딸이 있습니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딸아이를 등에 태워본 적이 있나요?"

교수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 와 초승달



사랑의 논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요점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교수가 대답했다.

"대학생들이 당신의 등에 올라타게 하지 않겠어요?"

교수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저는 단지 마음과 가슴은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집에서는 마음의 논리를 적용합니다. 딸아이를 등에 태워주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논리입니다. 대학에서는 마음의 논리를 적용합니다. 존중과 명예를 요구하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라고 말하며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목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의 논리를 적용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로마서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드물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로마서 5:6-8).

한 무슬림 여성 국회의원이 같은 목사를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직도 기독교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 죽게 하셨다고 어떻게 믿으십니까?"

목사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생후 3개월 된 딸이 자정이 넘어서 울면서 깨웠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물었습니다. 딸에게서 육체적으로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사실이 아니었나요? 딸은 골치거리이자 불편한 존재가 아니었나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했고, 내일도 힘든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깨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목사는 이어서 "이 쓸모없고 귀찮은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지는 게 마땅한 일이지!"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의원은 목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아이를 이성적인 논리가 아닌, 마음의 논리로 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어머니가 이른 아침에 깨어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몇 시간씩이나,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만족할 때까지 아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고통받는 죄인을 지옥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디모데전서 2:4).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의 논리를 봅니다. 다른 이들은 오직 비이성과 연약함만을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오직 부끄러움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후서 1:18, 22-24)

부모님께서 마음의 논리가 아닌 사랑의 논리를 우리에게 적용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만약 부모님께서 마음의 논리를 적용하셨다면 우리는 이승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랑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전하듯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를 전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3:16-18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4:7-1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4:19-21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분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마가복음 12:29-31).

VII.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1.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가족 사랑의 본보기로 지적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비밀은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에베소서 5:25-32).

2. 십자가는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로마서 5:8)

십자가 와 초승달

이 위대한 모범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해를 비추시며,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이보다 더하지 아니하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보다 더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3-48).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도리어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로마서 12:19-21).

십자가에서 우리는 사랑의 논리를 보고 만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매일의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다면, 그분의 속죄가 지닌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희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및 Al-Ghazali, Ihya Ulum al-Din, Vol.1 (Cairo: nd), pp.243,250.

ii Mishkat, 4권, 42장, 2절.

기독교인들이 믿는 이유 삼위일체 안에서

14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적인쟁쟁 세 인격체. 그러나 C.S. 루이스는 기도에 관해 글을 쓰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보여줍니다.

평범하고 순진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애씁니다. 그는 자신을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압니다. 말하자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정한 지식이 하나님이셨던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기도하도록 돕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신은 또한 그를 밀어주는 그 안에 있는 존재, 즉 원동력입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교리에서 독특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아버지 오시리스, 어머니 이시스, 아들 호루스의 삼위일체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단일 신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하나의 가족이었고,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아들을 낳았을 때 비로소 삼위일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힌두교의 존재, 생성, 소멸의 우주 순환에 상응하는 힌두교 삼위일체(브라흐마, 비슈누, 시바)는 "삼위일체"로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삼위일체는 기껏해야 신에 대한 완전한 진실을 예고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그 진실을 선포할 뿐입니다.

I. 구약성경의 삼위일체

그러나 구약성경에 삼위일체를 언급하는 단 한 문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약성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내용은 구약성서에도 그대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일반적인 히브리어 이름 - 엘로힘

-는 항상 복수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수형이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주장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개 단수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복수형을 사용하실 때는 그분의 단일성이 단순하기보다는 복잡하고 역동적임을 드러냅니다.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26)

- 바벨. 창세기 후반에 세속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구워 내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서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은 도시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창세기 11:3, 7, 8)
- 지혜.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면과 그분의 통치를 "지혜"로 의인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혜라 명철과 함께 거하며 지식과 분별력이 있고...나는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나는 모략과 정직한 판단을 가지고 있으며, 총명과 능력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통치하고 관원들이 정의로운 판결을 제정한다...여호와께서 그 창조의 시작 곧 태초에 행하시기 전에 나를 내셨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나를 세우셨느니라...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깊음 위에 두시며 위로 구름을 굳게 펴시며 깊음의 샘들을 굳게 세우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물이 그의 명령을 넘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으니, 그때 나는 그분 곁에서 장인이 되어 날마다 기쁨으로 찬만하였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으며, 그분의 온 세상 안에서 즐거워하였고, 인류 안에서 기뻐하였다.”(잠언 8:12-31)

- 하나님의 영. 구약 성경은 성령이 축복, 힘, 용기, 문화, 그리고 건전한 통치의 근원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위해 유다 지파의 브살렐을 택하시며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는 자로 삼았으니”(출 3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이 시기의 또 다른 사건에도 나타납니다. “모세가... 그들의 장로 칠십 명을 모아 장막 둘레에 세우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와 말씀하시고 모세 위에 임하신 영을 가져다가 칠십 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그들에게 임하시매 그들이 예언하였으나 다시는 예언하지 못하였더라.”

(민수기 11:24,25)

-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수와 복수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더라.”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이사야 6:8)라고 대답합니다. 또한 예언적 환상 속에서 이사야는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게 가까이 와서 이 말씀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일이 이를 때에 내가 항상 거기에 있느니라.”
 이제 주권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의 영도 보내셨느니라
 (이사야 48:16)

II. 신약성경의 삼위일체

구약성경의 문헌에서 언급하는 것은 신약성서에서 더 자세히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성령이 인물로서 훨씬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세례자 요한은 “내 뒤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리니 나는 그의 신을 들 자격도 없노라 그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마태복음 3:11)라고 선포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마태복음 1:18-25).

십자가 와 초승달

삼위일체 하나님을 처음 본 것은 예수님의 세례 때였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니,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태복음 3:16-17).

신약성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류 구원 사역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맡으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셨습니다. 이는 다음 구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1:3-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의 기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면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믿은 여러분은 약속의 성령으로 그분 안에서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구속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업을 보증하는 보증이 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III. 삼위일체 교리의 역사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용어 자체는 아마도 서기 2세기에 테르툴리아누스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는 또한 아들, 곧 그의 말씀이 계시며, 이 말씀은 자신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로부터 성령, 곧 보혜사를 보내셨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러한 신적 연합을 "삼위일체로 균형 있게 제시하여, 아버지, 아들, 성령을 셋으로 제시했습니다."ⁱⁱ

가장 오래된 신조 중 하나는 사도신경입니다. 정확한 날짜와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는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신조는 기독교 교회에서 보편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수도사 아리우스(서기 250-336)는 이를 부인하며 "말씀"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이단은 알렉산드리아의 성 아타나시우스(서기 296-373)에 의해 반박되었습니다. 그는 "말씀"과 성부는 동일 본질(동일한 본질), 동등(동일한 위계), 동등하게 영원(동등하게 시간을 초월함)하다고 주장하며 성령의 완전한 신성을 주장했습니다. 서기 325년, 성 아타나시우스는 니케아 신경을 작성하여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 공식 단죄하고 삼위일체를 교회의 공식 교리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 전에 그의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니

하느님은 빛의 빛이시며, 참 하느님의 참 하느님이시며... 모든 것이 그로 인해 창조된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그리스어: Homousios] 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서기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성령에 관한 이 가르침을 채택했습니다. 교회 공의회는 또한 시발리우스가 제기한 삼위일체에 관한 또 다른 이단을 배척했습니다. 이 이단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의 세 현현이며, 각각 특정 시기에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부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끝났고, 오순절로 시작된 성령의 시대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발리우스의 가르침을 배척하며,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영원부터 공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기 325년과 381년 공의회 이후, 전 세계 교회는 하나님 교리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중적 일치로 공식 수용했습니다. 교회는 (성 아타나시우스의 말을 빌리자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지만,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성부도 영원하시고, 성자도 영원하시고, 성령도 영원하시지만, 한 분이 영원하시다."라고 믿습니다.

IV.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증거

Aleco가 삼위일체 교리를 논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중은 그에게 "이 양초는 어떻게 타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강사는 "밀랍, 심지, 공기가 합쳐져서 이 빛을 내는 거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청중은 "이 세 가지 다른 물질이 어떻게 하나의 빛을 내는지 이해하시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청중은 "그렇다면 빛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 빛을 믿나요?"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성을 이해하기 쉬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위일체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 근거한 반론은 요점을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삼위일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며, 삼위일체라는 생각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원자 입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 뇌의 기능이나 시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 가능하기 위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의존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욱 그러하겠습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여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성경은 우리에게 세 분의 인격을 소개하며, 그들을 한 분의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 삼위일체는 세 신이 아니라 하나의 본질입니다.
- 각 사람은 자신만의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 삼위일체는 피상적이거나 시간적이지 않고 참되고 영원합니다. 경계.
-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은 동등합니다.
- 이 교리는 다른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기독교 교리.

1.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신약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 예수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마가복음 12:29-31)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름이 아님]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19)라고 명령하셨습니다.
- 바울. 사도 바울은 “할례받은 자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무할례받은 자도 같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로마서 3:30)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디모데전서 2:5)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기독교 축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노라” (고린도후서 13:14)

- 야고보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난다." (야고보서 2:19)
- 요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셋은 하나이시니라"(요일 5:7). 이 구절은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에서 누락되었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고고학을 통해 요한 서신의 가장 초기 버전에 속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것 외에도 삼위일체 안에서 각 위격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할을 매우 분명하게 밝힙니다. 성부에 대해 우리가 접하는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버지께서는 믿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3)
-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 크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베드로 전서 1:3).
- 아버지는 편재하십니다. 바울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에베소서 4:6)라고 말씀합니다.
- 아버지께서는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요한복음 4:2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의 권능으로 보호하소서”(요한복음 17: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듣는 몇 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표적을 주실 것이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사야 7:14)
-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놀라운 참모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이사야 9:6).
- 예수님의 기원은 영원부터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도시 베들레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오리니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미가 5:2)
- 예수님은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5편 6절의 예언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용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히 보좌하며 주의 나라의 흠은 공의로 할 것이니라"(히브리서 1:8).
-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담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느니라”(골로새서 2:9)라고 말합니다.
- 예수님은 영원한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요한계시록 1:8).
-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말씀으로,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사도행전 10:36)
-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분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태복음 18:20)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20)
- 예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립보서 2:10-11).
-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십자가와 초승달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누가복음 1:35)

-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요한복음 20:28)라고 고백했을 때, 도마의 예배를 받아들이셨습니다.

4.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성령에 관해 알려주는 것들 중 일부

이다:

-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십니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의 몸은 그분의 성전입니다. 그분은 그들 모두 안에 동시에 거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린도전서 6:19).
-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짓말하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당신의 마음에 가득 차서 성령을 속이고 땅 판 돈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로다"(사도행전 5:3-4).
-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청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참된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사도행전 28:25, 26).
- 성령은 영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사망에 이르는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브리서 9:14).
-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압니다. 사람의 생각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린도전서 2:9-11).

- 성령은 주님이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17)
- 성령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깊은 곳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시편 139:7-10).

V. 삼위일체의 인격들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는가

구약성서에서 하나님 백성 유인성을 즐거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라”

(신명기 6:4) 동시에 시편 110편 1절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 우편에 앉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4절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그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기부터 신이 무슬림들이 알라에 대해 믿는 것처럼 단순한 단일체가 아니라는 이해를 돕니다. 신은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삼위일체 모두 신입니다. 신은 하나이시므로, 이 삼위는 반드시 하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의 세 인격은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까?

-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서로를 찬양합니다. 성부는 성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마태복음 3:17, 17:5, 요한복음 5:20-23).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십니다(요 5:19, 30, 31, 12:28). 성령은 아들을 공경하십니다(요 15:26, 16:8-10, 14).
- 세 분은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 사역에 협력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중보하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로마서 8:26, 27). 예수님께서도 중보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로마서 8:33-34).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시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니라”(히브리서 7:25).

- 세 분은 영원하고 서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은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24)
- 세 분은 서로 존중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5)
- 세 분은 서로 생각과 조언을 나눕니다. 바울은 “영생의 소망에 근거한 믿음과 지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디도서 1:2)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에게”(로마서 16:25).
- 세 분은 서로 행복을 나눕니다. “그분께서는 그 기쁨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에베소서 1:9).

i CS 루이스, *순수 기독교 (Mere Christianity)* (글래스고: 폰타나 북스, 1975), 137쪽.

ii RT 켈달, *신학 이해 (Understanding Theology)* (런던: 크리스찬 포커스, 1999), 29쪽.

설명하다 15

삼위일체는 무슬림에게

마지막으로 삼위일체가 거부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슬림들이 거부하는 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이며, 그 오해를 극복, 교인들 역시 이러한 오해를 거부할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I. 무슬림들이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이유

1. 무슬림들은 삼위일체가 인간 가족처럼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슬림에게 신이 아버지와 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은 신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의미하며, 따라서 아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신격에 나중에 추가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성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부성과 같은 법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부성은 실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비유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성부"와 "성자"라는 용어는 성부와 그분의 영원한 "말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두 분 모두 시간을 초월합니다. 두 분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두 분 모두 완전하고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아랍어에서 "아버지"라는 칭호를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입양아는 아버지가 있지만, 물리적인 의미에서 "아버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느슨한 방식으로, 꾸란은 부성애를 강조합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무함마드의 적을 "아부 라합" (수라 111:1-5 참조) 또는 "불의 아버지" (수라 3:7, 13:39, 43:4 참조)라고 부르고, 보존된 서판을 "움 알-키타프" (수라 3:7, 13:39, 43:4 참조)이라고 부를 때 이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초기 주교들을 "교회의 교부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성경이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묘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신의 구성원들이 문자 그대로 부모-자식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기독교 밖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슬람 이전 아랍 신화에 따르면 알라에게는 알라트, 웃자, 마나트라 세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수라 53:19). 또 다른 신화에 따르면 알라께서는 진(jinn)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자녀를 두셨다고 합니다(수라 6:101).

세 번째는 알라가 천사들 중에서 여성을 입양했다고 말했고(수라 17:40), 네 번째는 알라가 자녀를 낳은 후, 딸들을 자신을 위해 선택해 아들들을 메카인들에게 주었다고 말했습니다(수라 37:151-153, 43:16).

무함마드는 이러한 저속한 믿음을 당연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또한 "문자 그대로의 부성"이라는 개념을 기독교 신격에 도입하여 삼위일체가 성부(하나님), 성모(마리아), 성자(예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르친 마리아마따 이단에 반발했습니다. 이 이단은 성경의 가르침을 명백히 왜곡하며, 예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과는 별개로 자신과 성모를 숭배하라고 요구하셨다는 믿음(수라 5:116 참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기독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확고히 맞서 왔으며, 이슬람의 이단에 대한 공격은 성경 진리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단에 대한 공격입니다.

2. 무슬림들은 정의상 3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과 동일함.

다시 한번 말하지만, 1 + 1 + 1이 3이 아니라는 것은 무슬림과 기독교인 모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이슬람교 못지않게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수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든 무슬림이든 어떤 성경도 "유일성"을 하나님이 단 하나의 속성이나 특징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R. 토마스 박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무슬림은 "하나"가 정적인 산술적 단위를 나타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는 하나됨을 역동적인 통일성, 즉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통일성의 관점에서 봅니다. 무슬림은 하나됨을 다른 모든 것과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알라가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고, 연민하며, 고통받는 존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꾸란은 신의 분노, 인정, 증오, 그리고 애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연 현상은 정적인 일체성 개념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절대적인 분리 불가능한 단일체가 존재할까요? 공간은 길이, 너비, 높이의 세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만 인식될 수 있습니다. 빛의 스펙트럼에는 세 가지 원색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 생활은 사고, 의지, 그리고 감정에 따라 작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가족, 정치, 그리고 핵과 같은 여러 차원의 단결이 상상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원자가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자(atomos)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원자가 전자, 양성자, 중성자를 하나로 묶고 있으며, 이 단결은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친밀한 것은 두 명, 세 명,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찰 가능한 일체성을 넘어서 더 깊고, 더 크고, 더 안정적인 일체성이 존재하며, 본질과 사랑의 확장으로 삼위일체로 세 인격을 묶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꾸란은 마리아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영이심을 인정합니다(수라 4:171). 이는 진리에 대한 명백한 왜곡이지만, 신자들이 말씀과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일치의 완성을 볼 수 있도록 충분히 인정합니다.

II. 꾸란의 구절은 삼위일체의 거짓 교리만을 공격합니다.

꾸란의 어떤 구절도 삼위일체, 즉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열심에 의해 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성령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신격의 하나됨을 다루는 구절들(아래에 모두 인용됨)은 사실 거짓 교리와 일탈을 겨냥합니다.

2장 116, 117절

그들은 말합니다. "알라께서 아들을 얻으셨다."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경의를 포함합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니, 어떤 일을 정하실 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취하셨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한복음 1:1-4).

3장 59절

예수와 알라의 유사성은 아담과 유사성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존재합니다.

- 이 비유는 틀립니다. 그 이유는 꾸란의 다른 구절에서 예수와 아담이 다르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는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 꾸란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알라의 사자였으며, 알라께서 마리아에게 전하신 말씀과 그로부터 온 영이시니, 알라와 그분의 사자들을 믿으라"(수라 4:171).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보내어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리니, 그는 아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동정녀인데 말입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26-35)

- 이와 대조적으로, 수라 7:12는 창세기 2:7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수라 2:36은 아담이 죄를 지어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었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나 수라 19:19에 따르면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3장 64절

오, 성서의 백성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여!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공통된 합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알라만을 경배하고, 그분과 동등한 자를 두지 않으며, 우리 중 누구도 알라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기로 합니다.

9장 31절

그들은 오직 유일신을 숭배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랍비와 수도사,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메시아를 알라와는 별개의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과 "동반자"를 연결 짓지 않습니다. 꾸란 자체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서 온 영"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무슬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밖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말씀도 없고 생각도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 둘째, 이 구절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체적으로 공격합니다. 이는 문화적 관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자들은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거나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무슬림들의 의견에 동의할 것입니다.

4장 171, 172절

오, 성경의 백성 [유대교인과 기독교인]들이여! 너희 종교에 지나친 집착을 하지 말고, 알라에 대한 진실만을 말하지 말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 메시아는 알라의 사자이며, 마리아에게 전하신 말씀이며, 알라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알라와 그분의 사자를 믿고 "셋"이라고 말하지 말라. 멈추어라! 너희에게 더 좋다! 알라는 오직 한 분의 신 이시다. 그분께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위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다. 그리고 알라는 보호자로서 충분하다. 메시아는 알라의 종이 되는 것을 결코 경멸하지 않을 것이며, 총애받는 천사들도 마찬가지다. 누구든지 알라를 섬기는 것을 경멸하고 거만하면, 그는 그러한 자들을 모두 그분께로 모을 것이다.

- 삼위일체 신조는 “셋”이 아니라 “세 위격 안에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 대해 알바이다위는 “셋, 즉 알라, 그리스도, 마리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혹은 하나님이 세 위격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아버지는 '다트' 즉 '본질', 아들은 '일름' 즉 '지식', 성령은 '하야트'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립니다.

- "그분의 초월적인 위엄에서 아들을 낳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아내 또는 배우자 사이의 어떠한 육체적 관계나 출산도 부정합니다. 이 개념은 꾸란에 두 번 언급되는데(수라 6:102, 수라 72:3), 두 번 모두 기독교와 동떨어진 이교 교리를 공격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가르칩니다(요한복음 4:24 참조). 따라서 예수님과 성부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5장 17절

"알라는 마리아의 아들 메시아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참으로 불신자들이다. 말하여라. "알라께서 마리아의 아들 메시아와 그의 어머니와 지상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려 하셨다면, 누가 알라께 대항할 힘이 가장 적었겠는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의 주권은 알라께 있다. 그분은 원하시는 것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 "알라는 마리아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그 이상입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 "만약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메시아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지상의 모든 사람을 멸하고자 하셨다면, 누가 하나님께 대항할 힘이 가장 적었겠습니까?" 이 꾸란 구절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를 멸할 수 없도록 하신다고 답합니다. 그분은 마리아를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하셨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거룩함, 그리고 사랑은 서로 조화롭게 작용합니다.

장 5:72-76

"알라는 마리아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하는 자들은 신성모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나의 주님이시며 너희의 주님이신 알라를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라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알라께서 천국을 금하셨고, 그의 거처는 불지옥이 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알라는 삼위일체이시라"라고 말하는 자들은 신성모독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한 분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들 가운데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벌이 내릴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들은 알라께로 돌아와 그분의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알라는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한 명의 사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도들은 많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성녀였습니다.

둘 다 음식을 먹곤 했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계시를 밝히는지 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돌아서는지 보아라. 말하여라. "너희는 알라 대신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도 이롭게 하지도 못하는 것을 경배하느냐? 알라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시니라."

- "알라는 그리스도시라 하는 자들은 신성모독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심을 이미 말씀드린 바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나의 주님이시며 너희의 주님이신 알라를 경배하라.” 예수님께서 승천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나는 내 아버지시오 너희 아버지시오 내 하나님시오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17)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들의 관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공로로 얻은 아들의 신분을 가지셨지만, 우리의 아들의 신분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오직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나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형체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빌립보서 2:7)입니다.
- “알라를 동료로 삼는 것.” 예수님은 알라의 동료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이 "셋 중 세 번째"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하나됨은 결합되고 역동적인 연합이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 예수님과 그분의 어머니는 “음식을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태초에...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한복음 1:1, 2, 14).

- “알라 대신 해를 끼치지도 이롭게 하지도 못하는 것을 경배하는 것.” 기독교인들은 결코 알라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알라는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자신을 구속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한복음 3:16-18).

5장 116-118절

알라께서 “오, 마리아의 아들 예수여! 네가 사람들에게 ‘알라 외에 나와 내 어머니를 두 신으로 삼으라’고 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가 할 말이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나는 당신의 마음을 모릅니다. 진실로 당신만이 숨겨진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당신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주님, 너희의 주님, 알라를 경배하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는 동안 나는 그들을 증거했고, 당신이 나를 데려가셨을 때 당신은 그들을 지켜보는 분이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그들을 벌하시면 그들은 당신의 종이 되고, 당신이 그들을 용서하시면 당신만이 위대하고 지혜로우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예수님은 "알라 외에 나와 내 어머니를 두 신으로 모시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모든 존경심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그녀를 삼위일체에 결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는 동안 그들을 증거하였고, 당신께서 나를 데려가셨을 때 당신은 그들을 지켜보는 분이셨습니다.”
이 진술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두 분 모두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아버지의 권위와 같습니다.

수라 6:102 그

에게 배우자가 없다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느냐?

- 같은 내용이 수라 72:3에도 반복되어 있으며, 이 장의 서두에서 다루었습니다. 메시아의 아들됨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과 동정녀 마리아 사이에는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9장 30절

유대인들은 "우자이르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말했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들은 옛 불신자들의 말을 흉내 내는 것뿐입니다. 알라의 저주가 그들에게 있기를! 그들은 얼마나 진리에서 멀어졌는가!

- 구약성경에는 우자이르가 신의 아들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일부 무슬림 주석가들은 우자이르가 서기관 에즈라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우자이르가 성경 속 에즈라라면, 유대인들은 그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무함마드 시대에 아랍 반도의 이단 종파가 지어낸 표현일 것입니다.

-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우자이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사이에는 아무런 유사점도 없습니다. 그 유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12장 1-4절

말하야라: 그는 알아이시며, 유일신이시며, 영원하시고, 절대적이다. 그는 낡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으셨다. 그리고 그와 동등한 존재는 없다.

-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의 내용에 대해 무슬림들과 동의하지만, 아마도 기독교인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말하야라, 그는 하나님이며, 유일신 하나님이며, 영원하시고, 절대적이다. 그는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낡지도 않으셨다. 그리고 그와 동등한 이는 없다."

십자가 와 초승달

- 이러한 재구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합니다. (1) "그는 낳지 않았고, 낳아지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순서의 이동입니다. 아무도 먼저 낳아지지 않고는 낳을 수 없습니다. (2) "그는 낳지 않았다"는 과거 시제로만 사실을 부정하는 반면, "낳지 않는다"는 가능한 모든 시제를 포괄합니다.

III. 삼위일체에 대한 이슬람의 증거

1. 꾸란은 삼위일체를 암시적으로 언급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사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믿습니다.

유대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이사야 42:1).

기독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사도행전 10:8)

꾸란에는 "우리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었고 성령으로 그를 강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라 2:87). 이 말씀은 같은 수라(253절)에도 반복됩니다. 수라 5:110은 하느님께서 "오, 마리아의 아들 예수여, 내가 너와 네 어머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성령으로 너를 얼마나 강하게 하였는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인용합니다.

이 세 개의 꾸란 구절에서 우리는 힘을 주시는 아버지, 힘을 얻으신 분인 예수, 그리고 힘을 주시는 성령을 발견합니다.

2. 꾸란은 기독교인을 일신교도로 간주합니다.

29장 46절

성서의 백성과 논쟁하지 마라. 너희에게 부당한 일을 저지른 자들과 논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더 나은 방식으로 논쟁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너희에게 계시된 것을 믿는다. 우리의 신과 너희의 신은 하나이며, 우리는 그분께 항복한다."

이 책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수라 29:46은 무슬림에게 좋은 유대인과 좋은 기독교인을 잘 대우하고, 유대인에게 계시된 구약성서와 기독교인에게 계시된 신약성서를 믿을 것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신이 그들 자신의 신이며, 그 신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믿게 합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은 이교도로도 다신교도로도 여겨지지 않습니다.

5장 5절

오늘 너희에게 모든 선하고 순수한 것들이 허용되었다. 성경의 백성의 음식은 너희에게 허용되며, 너희의 음식도 그들에게 허용된다. [결혼에서 너희에게 허용된 것은] 신자로서 순결한 여성들 뿐만 아니라, 너희 시대 이전에 계시된 성경의 백성 가운데서도 순결한 여성들, 곧 너희가 그들에게 마땅한 지침금을 주고, 음란함이나 은밀한 음모가 아닌 순결을 바라는 여성들뿐이다.

누구든지 믿음을 거부하면 그의 일은 열매가 없고, 저 세상에서는 잃어버린 자의 대열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꾸란은 무슬림 남성이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다신교도와와의 결혼은 금지합니다.

수라 2장 2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그들이 믿을 때까지 결혼하지 마라. 믿지 않는 여자보다 믿는 노예가 더 낫다. 비록 그녀가 너를 유혹할지라도.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그들이 믿을 때까지 결혼하지 마라. 믿지 않는 남자 노예가 너를 유혹할지라도 믿지 않는 남자보다 낫다. 믿지 않는 자들은 너희를 지옥으로 부르지만, 알라는 그분의 은총과 용서로 천국으로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그분의 징조를 보여 주시어 그들이 훈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 따라서 꾸란은 기독교인과 다신교도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4장 48절

알라는 자신과 짝을 이루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시지만, 그 외에는 자신이 원하시는 자에게 용서하신다. 알라와 짝을 이루는 자는 참으로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신교의 죄를 제외한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꾸란은 알라께서 유대인, 기독교인, 그리고 사바인들을 그들의 신앙이 유일신교라는 이유로 용서하신다고 말합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 즉 유대인, 기독교인, 그리고 사바인, 알라와 최후의 날을 믿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누구든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수라 2:62).

이런 생각은 수라 5:69과 수라 22:17에서도 반복됩니다.

IV. 삼위일체 교리는 문제를 해결한다.

무슬림들은 신의 특성이 영원하고 불변하며, 다른 모든 신성으로 하나이십니다. 그분의 특성은 생명, 지식, 능력, 의지, 청력, 시각, 언어, 사랑 등이 포함됩니다. 꾸란은 알려가서 모세에게 "나는 나로부터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다"(수라 20:39)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용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징들 중 다수가 다른 사람이 존재할 때만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심지어 신조차도, 정의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알거나, 말하거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이 단순하고 단일적인 의미에서 "하나"라면, 우리는 그러한 특징들이 사랑과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천사나 인간이 창조될 때까지 정적인 상태, 즉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창조는 신의 속성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신의 유일성이 무슬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일하고 단순하다면, 창조 이전에 신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습니.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 그는 아무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 완벽하고 변함없는 단일성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이 문제는 삼위일체의 사실로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알제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셨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성자는 성령을 사랑하셨고, 성령은 성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자.'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고 설명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속성의 상태를 바꾸지 않았습니. 그분은 영원토록 참으로 하나이시며, 변치 않으시고, 결합되고 역동적인 연합의 상태로 존재하십니다. 창조 질서가 있든 없든, 성부와 그분의 말씀과 성령 사이에는 사랑과 말씀과 경청이 있습니다. 사실, 창조는 하나님께 사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일 뿐, 오히려 처음부터 그분 안에 있었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성부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성자도 성부를 사랑하시고, 두 분 모두 성령을 사랑하십니다. 세 위격 사이의 이 영원한 사랑은 단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기도에 응답합니다. 꾸란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리라"(수라 40:60)라고 말씀하셨다고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갓아 주실 것이다"(마태복음 6:6).

영원부터 하나님은 온전히 자신 안에서 알고 알고, 이해하고, 이해해 오셨으며, 원하고 원하셨고, 보고 보고, 듣고, 사랑하고 사랑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자급자족은 절대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실 무슬림들이 믿는 "하나됨"은 결코 하나됨이 아닙니다. 알라께서 당신의 창조물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속성은 창조물이 존재하기 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라께서는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변하셨습니다.

V.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비유

교리 **삼위일체**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사용하면 사용하세요.

하지만 비유에는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비유는 단지 촉매제일 뿐이며, 보이지 않는 진실의 형상을 인식하게 해 줍니다. 알리 이븐 아부 탈리브는 "신의 본성에 대한 논쟁은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마음에 들어온 것은 모두 당신 자신의 상태이며, 신은 그 반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능한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간: 신체, 정신,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단일한 존재입니다.
- 마음: 상상력, 이해력, 기억력이지만 단일한 현상.
- 불: 열, 빛, 불꽃이지만 하나의 불입니다.
- 태양: 형태가 있고, 열과 빛을 주지만 하나의 몸체입니다.
- 과일: 크기, 맛, 냄새가 있지만 단일한 물체입니다.
- 물: 액체, 증기 또는 얼음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단일 물질입니다.

- 정육면체: 3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지만 모양은 하나이다.

아마도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과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은 C.S. 루이스가 그의 책인 순수 기독교에서 한 것일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주에서는 세 가지 방향, 즉 왼쪽이나 오른쪽, 앞뒤,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습니까. 모든 방향은 이 세 방향 중 하나이거나, 그 둘을 절충한 형태입니다. 이를 3차원이라고 합니다. 1차원을 사용하면 직선만 그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차원을 사용하면 정사각형과 같은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은 네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3차원을 사용하면 우리가 입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육면체, 주사위나 설탕 덩어리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여섯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점을 아시겠어요? 1차원 세계는 직선이어야 합니다. 2차원 세계에서도 직선은 있지만, 여러 선이 모여 하나의 도형을 이룹니다. 3차원 세계에서도 직선은 있지만, 여러 선이 모여 하나의 입체를 이룹니다. 다시 말해, 더 현실적이고 복잡한 차원으로 나아갈 때에도 더 단순한 차원에서 발견했던 것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더 단순한 차원만 알았다면 상상도 못했을 방식으로 말입니다.

기독교의 신에 대한 설명도 같은 원리를 따릅니다. 인간적 차원은 단순하고 오히려 공허한 차원입니다. 인간적 차원에서 한 사람은 하나의 존재이고, 두 사람은 마치 2차원(예를 들어 평평한 종이 위에서)에서 하나의 정사각형은 하나의 도형이고, 두 개의 정사각형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도형인 것처럼 서로 분리된 두 존재입니다. 신적 차원에서도 여전히 여러 인격들이 존재하지만, 그 위에는 우리가 그 차원에 살지 않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된 인격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적 차원에서는 세 인격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존재인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정육면체가 여섯 개의 정사각형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정육면체인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존재를 완전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두 차원만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우주에서는 정육면체를 제대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렵פות이나마 그 모습을 떠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무리 희미하더라도 초개인적인 무언가, 사람 그 이상의 무언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코 짐작할 수 없었던 일지만, 일단 듣고 나면 마치 짐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것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삼위일체 존재를 상상할 수 없다면,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글썄요,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삼위일체적 삶에 실제로 이끌리는 것이고, 그것은 언젠든, 지금 당장, 오늘 밤이라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신학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막연하게나마 신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는 미치광이라고 치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신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죽음을 당한 것을 본 후 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회나 공동체를 형성한 후, 그들은 어떻게든 그들 안에서 신을 발견했습니다. 신은 그들을 인도하고,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헤아려 본 후, 그들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이라는 정의에 도달했습니다.

i R. 토마스, 앞의 책, 180쪽 이하.

ii CS 루이스, 앞의 책, 137쪽 이하.

중요한 날짜 이슬람 역사

| | |
|-------------|--|
| 서기 570년 | 무함마드의 탄생. |
| 서기 595년 | 무함마드가 카디자와 결혼한다. |
| 서기 610년 | 무함마드가 첫 번째 계시를 받는다. |
| 서기 622년 | 히즈라 - 무함마드가 메디나로 이주하다 . 이슬람 시대의 첫해. |
| 서기 624년 | 바드르 전투 - 무슬림이 군대를 격파하다 메카의. |
| 서기 625년 | 메카인들이 우후드에서 무슬림 군대를 격파함. |
| 서기 627년 | 디치 전투, 메디나 포위 공격, 무슬림이 승리합니다. |
| 서기 629년 | 비잔틴군이 무슬림 군대를 격파했다. |
| 서기 630년 | 무함마드의 군대가 메카를 점령함. |
| 서기 632년 | 무함마드의 마지막 메카 순례, 그리고 죽음. |
| 서기 632-634년 | 아부 바크르의 칼리프국. |
| 서기 634-644년 | 우마르의 칼리프국. |

십자가 와 초승달

| | |
|--------------|-----------------------------|
| 서기 644-656년 | 우스만의 칼리프국. |
| 서기 656-661년 | 알리의 칼리프국. |
| 서기 661-750년 | 우마이야 왕조의 통치. |
| 서기 674년 | 무슬림들이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했습니다. |
| 서기 680년 | 카르발라에서 후세인의 죽음. |
| 서기 711년 | 무슬림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스페인으로 이주합니다. |
| 서기 732년 | 투르 전투 - 샤를 마르텔의 패배 무슬림들. |
| 서기 750-1258년 | 아바스 왕조의 통치. |
| 서기 786-809년 | 바그다드의 하룬 알 라시드 칼리프. |
| 서기 870년 | 무슬림들이 몰타를 점령합니다. |
| 서기 1091년 | 기독교 세력이 시칠리아와 몰타를 회복했습니다. |
| 서기 1099년 |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
| 서기 1187년 | 히틴 전투 - 살라딘이 패배하다 십자군. |
| 서기 1203년 | 무슬림의 지배가 인도 북부에서 시작됨. |
| 서기 1227년 | 징기스칸의 죽음. |
| 서기 1405년 | 타메를란의 죽음. |
| 서기 1453년 | 콘스탄티노플이 무슬림에게 함락됨. |
| 서기 1492년 | 스페인에서 추방된 무슬림들. |
| 서기 1517년 | 오스만 술탄이 칼리프국을 장악함. |
| 서기 1923년 | 칼리프국의 폐지. |

어히비

아부

많은 남성 아랍 이름에 등장하는 요소로, "~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부 다우드 는 "다우드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아단

무슬림의 공개 기도 요청.

아흘 알-키타브

"성서의 백성" - 꾸란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에게 부여한 칭호로, 그들이 신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수라 3:72, 113 참조). 처음에 무함마드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심판의 날에 내가 그를 고발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는 마음을 바꾸어 "아라비아 반도에 두 종교가 공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부 바크르는 아라비아에 거주하는 아흘 알 키타브에게 전하는 메시지에서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아마디아

편자브 카디안 출신 미르지 굴람 아흐마드 카디아나가 창설한 이단 무슬림 종파입니다. 이슬람과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그리스도론, 마흐디("메시아"), 지하드("성전")에 있습니다. 아흐마디아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겔보기에 죽음과 부활 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카슈미르로 이주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120세까지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아흐마디아는 예수가 스리나가르에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선지자의 무덤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믿습니다.

십자가 와 초승달

유즈 아사프라고 불립니다. 마흐디와 지하드의 사명에 관해, 아흐마디아는 마흐디의 사명은 평화이며, 불신자들에 대한 지하드는 전쟁 도구가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부에 대한 진실한 복종은 필수적입니다. 마흐디는 예수와 무함마드의 화신이자 동시에 크리슈나의 화신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알바이다위

나세르 엘딘 압둘라는 1286년에 사망한 유명한 무슬림 주석가이다. 그의 주석서는 안와르 알탄 질 와 아스라르 알타월이라고 불린다.

알잘랄란

Jalal el-Deen Al-Suyuti와 Jalal el-Deen al-Mahalli가 작성한 논평입니다.

알-칼비

이븐 알 사예브, 하디스 의 서술자 이자 역사가. 서기 763년 사망.

알 라지

무슬림 주석가 파흐르 알딘. 그의 주석서는 '알타프시르 알카비르'라고 불린다.

알-수디

이스마일 이븐 압둘 라흐만은 아나스 이븐 말리크로부터 하디스를 듣고, 후세인 이븐 알리 이븐 아부 탈리브를 만났습니다.

알-수유티

잘랄 엘 딘 압둘 라만(Jalal el-Deen Abdul Rahman), 무슬림 신학자이자 평론가 (AD 1445-1505).

알타바리

Abu-Gaafar Muhammad ibn Jarir (923년 사망), 무슬림 평론가. 그의 논평은 Jami al-Bayan fi Tafsir al-Qur'an이라고 불립니다.

알자마크샤리

아부 알 카셈 마흐무드(1075-1144)는 유명한 쿠란 주석가입니다. 그의 주석서는 알 카사프(Al-Kashaf)라고 불립니다.

아라비아 말

히브리어와 시리아어와 같은 언어 그룹에 속하는 셈어파 언어.
꾸란의 언어와 무슬림의 공식 기도문.

아슈라

시아파 무슬림들이 무하람 달의 첫 10일을 부르는 이름으로, 후세인이 카르발라에서 죽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아야톨라

시아파 학자의 가장 높은 직함.

바스물라

비즘 알라 알-라흐만 알-라힘 ("자비롭고 자비로운 신의 이름으로")을 말합니다 .

칼리프

무함마드가 죽은 후 이슬람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에게 주어진 칭호.

DA'WA

이슬람에 가입하라는 부름.

에크레마

무함마드의 사하바(*sahaba*, "가까운 친구") 중 한 명. 서기 634년 사망.

파티하

꾸란의 첫 번째 수라.

하디스,

무함마드가 말하고, 행하고, 허락하고, 명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하디스 중 일부만이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시아파와 수니파 무슬림은 각자가 인정하는 하디스의 내용이 다릅니다. 하디스 는

십자가와 초승달

꾸란은 이슬람의 법과 삶의 근원이며, 그 자체로 행동 모델과 법의 근거를 형성합니다.

히즈라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사건. 무슬림 연대기의 시작점이 되는 날짜. 무슬림력 1년은 서기 622년이다.

이븐

많은 남성 무슬림 이름에 등장하는 요소로, "~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븐 아바스는 "아바스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이븐 아바스

무함마드의 사촌. 그는 무함마드의 하디스 중 많은 부분을 낭송했습니다. 그의 쿠란 주석서는 <탄위르 알-미크바스>(Tanwir al-Miqbas)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사파의 형제

문자 그대로 "순수의 형제들"을 뜻하는 이 단체는 이라크 바스라에 설립된 비밀 아랍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10세기 후반에 철학 및 종교 백과사전인 "라사일 이크완 알-사파와 킬란 알-와파"(Rasa'il ikhwan al-safa' wa khillan al-wafa', "순수의 형제들과 충실한 친구들의 서신들")을 편찬했습니다.

이맘

이슬람 종교 지도자 또는 성인. 모스크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도 함.

복음

아랍어로 "복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꾸란에서는 이 단어를 신약성서 전체를 지칭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슬람교

무함마드가 창시한 종교. 이 단어는 "행복", "복종" 또는 "복종"을 의미하는 어근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스티아자

문자 그대로 "피난처를 찾는" A'uzu Billah min al-Shaitan al-Rajim ("나는 버림받은 자들로부터 신의 피난처를 찾는다") 이라고 말합니다.

"악마"). 신자를 신성하게 만들고 사탄의 간섭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한 무슬림의 공식.

진, 더

천사와 같은 초인적 존재(단수형: 진니, 영어의 "지니" 참조). 불로 창조된 진(jinn)은 무함마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믿고 무슬림이 되었지만, 다른 이들은 그를 거부하고 지옥으로 향했습니다. 진에 대한 신앙은 대중 이슬람에서 흔합니다. 이는 초기 몇 세기의 공식 이슬람에서도 받아들여졌으며, 오늘날에도 일부 집단에서 여전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택시

문자 그대로 "정사각형" 또는 "입방체"를 의미합니다. 이 이름을 딴 메카의 작은 건물(바이트 알라, 즉 "신의 집"이라고도 함)은 대모스크 안뜰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안에는 유명한 검은 돌이 있습니다. 카바는 순례와 예배의 중심지이며, 모든 무슬림이 기도할 때 향하는 곳입니다.

무아딘

하루 중 정해진 다섯 시간에 모스크의 첨탑에서 아단 (기도를 시작하는 소리) 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

꾸란

이슬람의 경전. 전체 분량은 신약성서의 약 3분의 2 정도입니다.

비

아랍어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십시오"는 유대인들이 무함마드에게 한 말입니다. 속어로는 "우리는 듣고 불복종합니다" 또는 "우리는 듣지 않는 자로서 듣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샤리아

종교법은 꾸란과 하디스에 근거합니다.

시아파

파티마(무함마드의 딸)의 남편이자 네 번째 칼리프였던 알리의 추종자들이 창시한 이슬람 종파입니다.

십자가 와 초승달

수피

이슬람 신비주의자를 가리키는 용어. 많은 위대한 이슬람 학자들과 시인들이 이 이슬람 종교에 대한 신비주의적 해석을 고수해 왔습니다.

수니파

정통 이슬람 종파는 지금까지 가장 큰 종파로, 아라비아와 지중해 연안 국가의 무슬림 대부분과 인도와 동방의 무슬림 다수가 이 종파에 속합니다.

장

꾸란의 한 장.

토라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처음 다섯 권입니다. 그러나 꾸란에서는 이 단어를 구약 전체를 지칭하는 데 사용합니다.

와흐브 이븐 무나베

고대와 예언자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닌 역사가. 서기 732년 사망.

잠잠

무슬림 전통에 따르면 하갈이 아들의 목마름을 해소했던 메카의 우물.

이슬람 주석서 및 하디스 서적기음

Abu Dawud, Sulaiman ibn al-Asha'th, Hadith (카이로: n.d.).

Al-Baidawi, Nasir el-Din, Abdalla, Anwar al-Tanzil (카이로: n.d.).

Al-Bukhari, Muhammad ibn Ismael, Sahih (카이로: n.d.).

Al-Ghazali, Abu Hamid, Ihya' Ulum al-Din (카이로: nd).

Al-Hindi, Ala' al-Din al-Muttaqi, Kanzul Ummal (하
이데라바드: 1974).

Al-Jalalan(“두 개의 Jalals” – Jalaluddin al-Mahalli 및
Jalaluddin al-Suyuti), Tafsir al-Jalalan (카이로: n.d.).

Al-Qurtubi, Abu Abdullah ibn Ahmad al-Ansari, Al-Jamie
Lekalam al-Quran (카이로: nd).

알 라지, 파크르 알 딘, 마파티 알 가이브 (카이로: 1932).

Al-Suyuti, Jalaluddin, Al-Durr al-Manthur (해설)
(카이로: nd).

Al-Suyuti, Jalaluddin, Asbab al-Nuzul (카이로: nd).

Al-Suyuti, Jalaluddin, Al-Itqan Fi Ulum al-Quran (카이로: nd).

Al-Tabari, Abu Jaafar Muhammad ibn Jarir, Jami' al-Bayan, (카
이로: 1968).

십자가와 초승달

Al-Thaalabi, Abu Ishaq Ahmad, Arai의 al-Magalis (카이로: n.d.).

Al-Tirmidhi, Abu Abdalla ibn Muhammad, Sunan (카이로: 1934).

Al-Zamakhshari, Abu al-Qasem Mahmood, Al-Kashaf (카이로, n.d.).

Ibn Abbas, Tanwir al-Miqbas (카이로: nd).

Ibn Hanbal, Ahmad, Musnad (카이로, n.d.).

이븐 히삼, 무함마드의 삶 (빌라흐: 생명의 빛, 1997).

Ibn Kathir, Ismail, Tafsir al-Quran al-Azim (카이로: nd).

Ibn Kathir, Ismael, Al-Bidaya wal-Nihaya, Dar al-Shaab(카이로: n.d.).

Ibn Sa'ad, Tabaqat (카이로: n.d.).

무슬림, ibn al-Hajjaj, Sahih (카이로: 1956).

서지

Abd-al-Masih, 이슬람에서 알라는 누구입니까?
(오스트리아, 빌라흐: 생명의 빛, nd).

압드 알-마시흐, 돋보기 아래의 이슬람 (빌라흐: 생명의 빛, nd).

압둘-하크, 압디아 아크바르, 《무슬림과 신앙을 나누다》 (미니애폴리스: 베사니 펠로우십, 1980년).

아카드, 푸아드 엘리아스, 『기독교와 이슬람의 교량 건설』 (콜로라도 스프링스: Navpress, 1997).

알-트바라니, 이브라힘, 신학적 논쟁 (빌라흐: 생명의 빛, nd).

엠브리, 함란, 신은 나에게 영원한 삶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리콘: 좋은 길, nd).

아타나시우스, 성인, 말씀의 성육신 (카이로: 마크타바트 알-마하바, nd).

FF 브루스, 신약성서 문서(The New Testament Documents) (케임브리지: 틴데일, 1960).

칼라일, 토마스, 토마스 칼라일의 가장 유명한 작품 (뉴욕: 미국 도서 연맹, 1942).

챗먼, 콜린, 크로스 앤 크레센트: 이슬람의 도전에 대응하다 (레스터: IVP, 1993).

십자가와 초승달

쿠퍼, 앤, 이슈마엘은 내 동생입니다 (마크, 1993).

크래그, 케네스, 이슬람의 집(The House of Islam) (벨몬트, 캘리포니아: 워즈워스 출판사, 1975).

크래그, 케네스, 중동의 아랍 기독교인 (런던: 모브레이, 1991).

크래그, 케네스, 미나렛의 부름(The Call of the Minaret) (런던: 콜린스, 1986).

크래그, 케네스, 무함마드와 기독교인 (런던: Darton, Longman & Todd, 1984).

다게르, 함단, 이슬람에서 여성의 지위 (빌라흐: Light of Life, 1995).

가이슬러, 노먼 L., 압둘 살렘, 『이슬람에 대한 답변』 (그랜드래피즈: 베이커 북스, 1998).

고르발, 무함마드, 아라비아의 Mawsuua와 무야사라 (카이로: 1986).

Gibb, HAR 및 Kramers, JH(편), 이슬람 소백과사전 (라이덴: EJ Brill, 1974).

길크리스트, 존, 무함마드와 이슬람 종교 (베노니, SA: 무슬림에게 예수, 1986).

기욤, A., 이슬람의 전통 (옥스퍼드: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1924).

Haykal, Muhammad Husain, Hayat Muhammad (카이로: Dar al-Ma'aref, n.d.).

하버마스, 게리 R., 역사의 판결(The Verdict of History) (내슈빌: 토마스 넬슨, 1982).

이븐 히삼, 무함마드의 생애 (압드 알마시에 의해 개정 및 확장됨) (빌라흐: 생명의 빛, 1997).

Ikhwan al-Safa, Rasa'il ikhwan as-safa' wa khillan al-wafa'
("순수와 충성스러운 친구들의 형제 서신")
(카이로: nd).

켄달, RT, 신학 이해(Understanding
Theology) (런던: 크리스찬 포커스, 1999).

루이스, CS, 순수 기독교 (Mere
Christianity) (글래스고: 폰타나 북스, 1975).

Moshay, GJO, 이 알라는 누구입니까?
(제라드 크로스 북스: 도체스터 하우스, 1994).

뮤어, 윌리엄, 마호메트와 이슬람 (런던:
종교 소책자 협회, nd).

머스크, 빌 A., 열정적인 믿음
(켄트: Monarch Publications, 1992).

머스크, 빌 A., 이슬람의 보이지 않는 얼굴 (Marc, 1994).

누르바카쉬, 자와드, 수피파의 눈에 비친 예수 (카니카히-니마
툴라히 출판사, 런던, 1983).

카이라와니, 파리스, 그리스도는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빌라흐: 생명의 빛, 1994).

Samaan, Awad, Qadiatul Ghofran fil-Masihia
(카이로: 자체 출판, 1951).

Subeih, Muhammad, Muhammad
(카이로: Dar al-Thaqafa al-Amma, 1957).

Tabbara, Afif, Ruhul-Din al-Islami (다마스쿠스: 1972).

타고르, 라빈드라나트, 시와 희곡집 (뉴욕: 맥밀런, 1937).

진정한 지침, 1-5부(오스트리아, 빌라
흐: 생명의 빛, 1992).

십자가와 초승달

토마스, 리처드 W., 이슬람, 양상과 전망 (빌라흐: 생명의 빛, nd).

토르, 안드레, 무함마드, 그 인간과 그의 신앙 (뉴욕: 하퍼 앤 로우, 1960).

티스달, W. 세인트 클레어, 기독교에 대한 주요 무슬림 반대 의견에 대한 매뉴얼 (런던: SPCK, 1904).

트리튼, AS, 칼리프와 그들의 비이슬람 신민 (런던: Frank Cass & Co. Ltd., 1970).

유세프, 마이클, 근대성에 대한 반란 (라이덴: EJBrill, 1985).

유세프, 마이클, 미국, 석유와 이슬람 정신 (그랜드래피즈: 존더 반, 1991).

